천년을 세우다
묘연계좌 : 농협 301-0248-0882-41
예 금 주 : 아름다운 동행
대한불교조계종 미래본부

현대불교 30
창간 30주년
1994~2024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474호 hyunbulnews.com (불기 2568년 음력 1월 26일) 2024년 3월 6일 수요일



백초월 스님 애국정신, 이젠 우리가

자주독립을 염원하고 순국한 호국영령들과 백초월 스님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리는 마음을 담은 (사)백초월스님선양회가 발족됐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거점사찰로 평가받는 진관사의 주도로 발족된 선양회는 앞으로 백초월 스님 독립운동의 역사고증 및 학술연구활동, 생명존중과 평등사상, 호국불교의 이념을 고양하기 위한 교육 및 장학사업 등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글= 임은호 기자 · 사진=진관사 제공

조계종, '총무원 단일화' 조직 개편 착수

종헌개정안 입법예고…주요 소임자 논의 이어가

교육원·포교원 종헌서 삭제 골자로
진우 스님 "미래지향적 쇄신 필요"
중앙종회·교구본사도 대부분 공감
포교원장 선업 스님 불편한 기색도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1994년 종단 개혁을 통해 중앙종무기관을 총무원·교육원·포교원 3원 체제로 확립한 조계종이 30년 만에 총무원 단일화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30년 전 조직체계로는 급변하는 사회변화에 발맞춰 대응하기 어렵다는 취지에서다. 이를 위해 조계종은 종헌개정안 입법예고와 주요 소임자 회의를 거치며 조직개편 필요성을 알리기 시작했다.

조계종(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2월 2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중앙종무기관 조직개편 관련 주요 소임자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교육원장과 포교원장, 중앙종회의장, 중앙종회 미래특별위원장, 종교편향대응특별위원장, 포교분과위원장, 관음사·은해사 주지, 원로회의·중앙종회 사무처장, 중앙종무기관 각 부실장 등 종단 운영을 위한 핵심 인사들이 대부분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우리 종단이 더 혁신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진취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조직 쇄신이 필요하다"고 조직개편 필요성을 언급했다. 스님은 이어 "이를 위해 지난 30년간 행해왔던 조직체계를 정비하는 개편 작업이 추진 중"이라며 "여러분이 각 조직 책임자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조직개편 필요성을) 충분히 납득하고 잡음 없이 합심해서 진행되도록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앞서 조계종 총무원은 교육원과 포교원을 종헌에서 삭제하는 '종헌 일부개정안'을 2월 21일 입법예고했다. 3원 통합은 교육원과 포교원이 종헌기구가 아닌 종법기구여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개정안 시행일을 2025년 4월 1일로 미뤄 종법 내에서 교육원과 포교원이 기존 역할을 이어가고, 그 기간에 구체적인 조직개편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도 회의에서 이 같은 조직개편 취지에 공감했다. 스님은 "우리 종단은 굉장한 위기에 있다. 출가자 급감으로 본사에 행자가 부족한데 절들은 비어가고 재가 불자도 줄어들고 있다"면서 "그동안 개혁종단 성과가 꽤 있었고 그 덕에 현대적 종단을 이어왔지만 이제는 한계에 이르지 않았나 싶다"고 견해를 밝혔다.

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장 허운 스님 역시 "조직개편은 다소 늦은 감이 있을 정도다. 그동안 공식, 비공식적으로 많이 논의해온 문제"라며 "이제는 논의가 무르익어서 (조직개편)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직개편 대상 조직의 수장인 포교원장 선업 스님은 '구조조정'이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선업 스님은 "종단의 중차대한 일에 관심 기울여주신 부분은 동의한다. 하지만 교육원과 포교원의 역할, 특히 포교에 더 깊이 생각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3원을 총무원 1원 체제로 통합했을 때 종단의 교육·포교 역할이 보다 나아질 수 있는지 묻는 근본적인 우려로 풀이된다. 이후 회의는 비공개로 전환됐다.

총무원은 현재 교육원과 포교원 별원화로 성취한 시대적 역할과 기능이 한계상황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있다. 사업이 정체되고 발전 방향 제시가 없는 상황에서 별원화 취지와 달리 시대상과 종도들의 요구에 역할이 미치지 못한다는 분석이다. 또한 별원체계에서 인사, 재정, 입법제청 등의 역할이 현재 총무원 중심으로 돼 별원의 위상과 의미가 분명하지 못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종헌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3월 19일 개원하는 제230회 중앙종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종헌개정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2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승장 김윤후, 서산·사명대사 의승 추모행사 국가서 지원

문화재청 순의제향 등 20건 지원
대흥사 '구국 삼화상 추모 향례'
김윤후 조명 용인 처인성 문화제
육군병원 통도사 분원 위령재도

호국선열들의 충의를 기리기 위한 제향·문화 행사들이 국가 지원을 받게 됐다. 이중에는 고려 승장(僧將) 김윤후, 조선시대 서산·사명·처영 스님 등을 기리는 불교계 추모행사들이 대거 포함돼 눈길을 끈다.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호국선열의 충의를 기리기 위하여 조성되거나 역사적 사건·인물과 관련되어 있는 국가유산에서 개최되는 기념행사를 국비로 지원하는 '국가유산 호국선열 기념행사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신규 추진하기로 했다"고 2월 28일 밝혔다.

올해에는 20건의 호국선열 기념행사가 국가 지원사업으로 선정됐다. 이중 불교 관련 기념행사는 총 5건이다.

용인문화원과 처인성기념사업회는 제33회 처인성문화제 '처인성에서 다시 만난 김윤후 승장'으로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승장 김윤후는 1231년 처인성 전투에서 처인부곡민을 이끌고 참전해 몽골 총사령관인 살리타 장군을 활을 쏴 머리를 꿰뚫어 사살하는 전과를 세웠다. 이후 1252년 충주산성 전투에서 방호별감으로 있었던 김윤후 스님은 70여 일 동안 항전한 끝에 몽골군을 패퇴시켰다. 몽골이 군사적 패배로 고려에서 군대를 철수시킨 사례는 대몽항쟁 기간 동안 처인성과 충주산성 전투 단 두 차례 뿐이었고, 두 전투를 승리로 이끈 장본인이 김윤후 스님이다.

조선시대 호국의승을 위한 제향인 밀양 표충사의 '사명대사 춘·추향대제', 해남 대흥사의 '구국 삼화상(서산·사명·처영) 및 호국의승 추모 향례' 등이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또한 양산 통도사의 '제31육군병원 통도사 분원 호국 위령재'와 구리 만해 한용운 스님 묘소에 열리는 '만해 한용운 선사 80주기 추모행사'도 지원사업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 2019년 통도사 용화전 미륵불소조좌상의 복장유물에서 '경인년 6월 25일 사변 후 국군 상이병 3000여 명이 입사해 불기 2979년 임진년 4월 12일 퇴거했다'는 기록이 발견되며 통도사가 육군병원 분원으로 사용됐음이 확인됐고, 이에 통도사는 2021년 국가 현충시설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은 "올해부터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으로 '문화재(財)' 체제에서 '국가유산(遺産)'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국가유산의 무형적 가치 또한 온전히 지키고 전승하기 위한 사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국가유산 호국선열 기념행사 지원사업'은 국가유산의 의미와 정신을 보존하기 위한 첫 걸음"이라고 밝혔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사 령

명)편집국 취재부 기자 이 민 우
2024년 3월 4일 부
이상 1명

참신하고 역량 있는 현대불교신문사 지사장을 찾습니다

모집 지역 대구 · 경북 지역
활동영역 • 관할지역 내 광고영업 • 신문홍보 및 구독확장 • 본사 수익 사업 추진
제출서류 및 기한
• 구비서류 : 자필이력서(사진부착 및 연락처 명기), 자기소개서, 주민등록등본 각 1통
• 기 한 : 2024년 3월 31일
• 방 법 : 이메일 또는 본사 방문 및 우편 접수
제 출 처
• 주 소 :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운니동, 월드오피스텔) 현대불교신문사
• 이메일 : hyunbul1994@naver.com • 문 의 : (02)2004-8258

대 광 불 교
대광불교는 연등 시공 전문기업입니다.
연화등
공단등
만월등
연등자동승강장치 최초개발시공업체
대광불교만의 독특한 디자인과 숙련된 노하우로 각종 연등을 제작 보급하고 있습니다.
항상 등불을 밝히는 마음가짐으로 등 제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등 자동 승강장치
연등 시공
대광불교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매자리길 113 e-mail : hskhsg@ naver.com | 010-9446-1862, 010-2788-7270 | 031)768-7270 | 031)768-7271

이승만기념관 강행…종평위 "서울시와 단절"

불교계 거센 반대에도 건립 추진해 갈등 커져

오세훈 시장, 시의회 참석해
"이승만기념관 부지 송현광장"
조계종 종평위 비판 성명 내
"이승만 정화유시, 불교 분열"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오세훈 서울시장이 불교계의 지속적인 반대에도 재차 "송현녹지광장 부지에 이승만기념관 건립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가 기념관 건립 사업 강행 시 서울시와 관계를 단절하겠다고 경고했다.

앞서 오 시장은 2월 23일 제322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이승만기념관을 건립해야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최재란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의 질의에 "네"라고 답했다. 이어 "현재 가능성이 가장 높게 거론되는 곳이 송현광장"이라며 "건립추진위원회가 서울시에 방문해 논의할 때도 송현동을 검토하겠다고 결론이 났다"고 부연했다.

지난해 11월 오 시장이 송현광장에 이승만기념관 건립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불교계 안팎에서는 '건립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와 중앙종회 종교편향 불교왜곡대응특별위원회, 태고종 중앙종회 등이 잇따라 성명을 발표해 "한국불교를 분열시키고 박해했던 이승만 대통령의 기념관 건립 추진은 한국불교에 대한 큰 모욕"이라고 비판했다. 논란이 지속되자 박민식 국가보훈부 전 장관은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해 "입지와 관련해 정해진 바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럼에도 이날 오 시장은 "영화 '건국전쟁' 등이 상영되는 것이 일종의 공론화와 공감대 형성의 과정"이라며 "이제는 입지가 어디가 바람직한지 본격적으로 논의할 시점이 왔다고 본다"고 말했다. 특히 오 시장은 "박민식 전 장관과 제 입장이 달랐다"며 불교계의 반발에 대해선 "송현동 입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 불교계와 협의도 하고 설득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위원장 향문 스님, 이하 종평위)는 2월 28일 '오세훈 시장은 이승만기념관 건립계획 즉각 중단하라' 제하의 성명을 발표했다. 종평위 성명에서 "서울시장이 국민 사이에 갈등을 조장해 분열을 유도하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종평위는 이어 "2022년 7월 (송현녹지광장 부지를) '시민을 위한 열린 녹지광장으로 어떤 시설도 들어올 수 없다는 원칙을 정하고 끝까지 비워놓겠다'는 서울시의 약속을 믿었다"며 "그러나 시민과의 약속을 깨고 이곳에 이승만기념관을 건립하겠다는 오 시장의 발언은 상식적으로 시민과 불교계를 우습게 여기는 몰상식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승만 전 대통령의 공과에 대해서는 역사의 평가가 이뤄지겠지만, 그가 종교 방송 설립과 군종 장교 제도 도입 등에서 특정 종교에게만 특혜를 주고 불교와 천도교 등 민족종교는 차별했다"며 "이른바 정화 유시로 불교계 분열을 일으켜 씻을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른 점은 용서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종평위는 오세훈 시장에게 △국민화합을 저해하고 종교 간 갈등을 부추기는 기념관 건립계획을 즉각 중단할 것 △시민과 약속대로 송현녹지광장을 시민을 위한 광장으로 조성할 것을 요구했다.

종평위는 "요구를 무시하고 이승만기념관 건립이 강행될 경우, 오세훈 시장이 이끄는 서울시와 관계 단절을 포함한 강력한 대응을 해나가겠다"고 이승만기념관 건립에 대한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경쟁적 교육체계 바꿔야 저출산 극복"

진우 스님 저출산위 예방서
인성교육 중요성 거듭 강조


진우 스님이 주형환 저출산위 부위원장에게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국가소멸 위기 상황까지 치달은 저출산 문제에 우려를 표하면서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출산위)에 "인성교육으로 아이들에게 가족의 가치와 인간 존엄성을 가르쳐야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진우 스님은 2월 28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주형환 저출산위 부위원장의 예방을 받았다. 주 부위원장은 "오늘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분기 출산율이 0.65명으로 나타났다. 저희는 이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인다"며 저출산의 심각성을 설명하고 진우 스님에게 조언을 구했다.

진우 스님은 "저출산 문제는 우리나라가 과거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루면서 민족정신과 사회문화가 가족 중심에서 개인주의로 변화한 결과"라며 "물질에 집중한 나머지 정신적 여유와 인간 존엄성이 도외시됐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이어 "극심한 경쟁 사회에서 자란 청년들이 불안을 느끼고 자녀 양육에 부담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며 "다양한 사회적 악재들이 점철된 저출산 극복을 위해 장기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진우 스님은 저출산 대책으로 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스님은 "인간 존엄성과 가족의 가치가 희석된 지금, 교육 시스템을 손봐야 한다"며 현재 경쟁 위주의 교육 시스템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요즘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경쟁에 내몰려 순위 싸움을 해야한다. 이 상황에서 인성교육은 뒷전이 됐다"며 "인성교육을 통해 타인과의 교류와 교감, 이타심 그리고 생명 존엄성과 가족의 가치를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우 스님은 선명상 프로그램도 언급했다. 스님은 "물질적 풍요는 경쟁의 대상이지 정서적 안정을 가져다주지 못한다"며 "선명상 프로그램을 보급해 국민이 심리적 안정을 얻을 수 있게 할 것"이라 말했다.

주 부위원장은 "스님 말씀대로 가족과 인간 존엄성을 바탕해 마련한 장기적 대책을 일관성 있게 유지해 나가겠다. 선명상 프로그램은 경쟁으로 마음이 황폐해진 사람들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답했다. 또한 "'나는 절로' 프로그램의 인기를 전해 들었다. 종단에서 이처럼 만남의 장을 확대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주 부위원장은 "불교는 언제나 국난 극복에 앞장서 왔다. 저출산도 국가의 존망을 건 위기상황"이라며 저출산 대응에 불교계의 협력을 구했다. 이에 진우 스님은 "사회 전체의 일이고 미래에 대한 일이니 내 일처럼 발벗고 나서겠다"고 답했다.

이민우 수습기자

유인촌, 태고종에 "의료대란 호소문 감사"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 예방



유인촌 문체부 장관이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을 예방하고 의료인들의 조속한 의료현장 복귀를 호소한 태고종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상진 스님은 2월 23일 서울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에서 유 장관의 예방을 받았다.〈사진〉 상진 스님은 "전통사찰 지정 등 주요 종단 현안에 관심을 가져줘 감사하다"면서 "국민에게 안정과 편안함을 줄 수 있도록 종교적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인촌 장관은 먼저 태고종에서 의료인 현장 복귀 호소문을 발표한 점에 깊은 감사를 전했다.

이날 유 장관은 특히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영산재에 깊은 관심을 표했다. 유 장관은 "연기자 생활을 할 때부터 영산재에 관심이 많아 직접 관람하기도 했다"면서 "해외 한국문화원 등을 통해 전통문화행사로서 영산재를 세계에 홍보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

교구본사 신흥사·백양사 주지후보 선출

지혜 · 무공 스님 단독후보 정리


지혜 스님


무공 스님

조계종 제3교구본사 신흥사와 제18교구본사 백양사 주지후보로 각각 지혜 스님과 무공 스님이 선출됐다.

신흥사는 2월 24일, 백양사는 29일 경내에서 산중총회를 열고 단독후보로 정리된 지혜 스님과 무공 스님을 종법에 따라 각각 주지후보로 선출했다. 신흥사는 홍진·금곡 스님이 출마해 경쟁구도를 형성했지만 산중총회 전 사퇴하며 단독후보가 됐다.

지혜 스님은 성준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75년 수계했다. 제방 선원에서 20안거를 성만하고 동해 삼화사와 인천 능인사, 양양 명주사 주지를 맡았다.

무공 스님은 지근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79년 수계했다. 백양사 재무국장, 중앙선거관리위원, 고불총림 선원장을 역임했다.

윤호섭 기자

속리산 법주사 주지 선거 4파전 양상


기호1번 정덕 스님


기호2번 황석 스님


기호3번 노현 스님


기호4번 원경 스님

조계종 제5교구본사 법주사 주지후보에 정덕·황석·노현·원경 스님이 출마하며 4파전 구도를 형성했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월 27일 법주사 주지후보 등록 결과 △기호1번 정덕 스님 △기호2번 황석 스님 △기호3번 노현 스님 △기호4번 원경 스님이 입후보했다. 산중총회는 3월 8일 열린다.

기호1번 정덕 스님은 법현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87년 수계했다.

기호2번 황석 스님은 정일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88년 수계했다.

기호3번 노현 스님은 탄성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82년 수계했다.

기호4번 원경 스님은 성일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94년 수계했다.

윤호섭 기자

제40기
한마음공생실천과정 교육생 모집



한마음공생실천과정은
마음공부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프로그램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다가오는
것들을 마음공부의 재료로
삼아 믿고 맡기고 지켜보며
나와 내 주변을 긍정적으로
풀어나가는 생활 속
관법 수행입니다.

대 상 : 마음공부를 하고자 하는 분 누구나
일 정 : 2024년 4월 13일~6월 8일
매주 토요일 오후 1:30~5:30
장 소 : 한마음선원 내 한마음과학원 3층 국제회의실 (주소: 경기도 안양시 경수대로 1282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모집인원 : 총 50명 선착순
신청방법 : 한마음과학원 홈페이지 - hansi.org
수 강 료 : 20만원
문 의 : 031-470-3200/3198

(재)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

“군승 · 교법사가 꿈”…불교 문턱 낮추다

조계종 국제전법단, 홍대선원서
청소년 인재 양성 템플스테이
조계종 종립 고교생 13명 참여
대학탐방·포틀럭 파티·명상체험
학업·진로 등 또래와 생각 나눠
학생들 호응 “4, 5기도 계속 참여”

이민우 수습기자


홍대선원 템플스테이에 참가한 학생들이 싱잉볼 소리에 집중하며 명상을 체험하고 있다.

‘엄숙하고, 어렵고, 힘든 수행을 해 깨달음을 얻어야 하는 종교.’ 불교에 대한 젊은이들의 일반적인 이미지다. 하지만 이는 선입견에 가깝다. 지금의 불교는 변화하고 있다. 템플스테이로 대학 탐방을 하고, 취향 따라 각자 마련한 음식을 나누는 포틀럭 파티(Potluck Party)도 한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간단한 소리명상으로 명상에 입문해보고, 또래친구들과 서로 진로에 대한 진지한 토론도 해본다. 불교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변화와 고민이 보여주는 변화들이다.

조계종 국제전법단(단장 정범 스님)은 2월 24~25일 서울 홍대선원에서 조계종 종립 고등학교 재학생과 졸업생 13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인재 양성 템플스테이’를 진행했다. 지난해 7월 열린 파라미타 청소년연합캠프에 참가한 학생 중 모집된 13명의 학생들은 ‘선연’이라는 이름 아래 3번째 템플스테이를 체험했다.

첫날 오후 3시 시작된 일정에 따라 학생들은 진로 탐색을 위한 연세대 탐방을 마치고 템플스테이 장소인 홍대선원에 들어섰다. 배고픈 학생들을 반기는 것은 한 달에 한 번 열리는 포틀럭 파티였다. 정월대보름을 맞아 준비한 오곡밥과 각종 나물 및 전, 그리고 일부 게스트들이 가지고온 약식, 인도 커리 등 다양한 음식을 맛본 학생들은 빠짐없이 접시를 비우고 “맛있다” “또 먹고 싶다”는 표현을 아끼지 않았다. 자리에 함께한 외국인 투숙객들 덕분에 국제적인 분위기를 체험하는 것은 덤이었다.

저녁공양 후 진행된 소리명상 체험에서 학생들은 싱잉볼 소리에 집중하며 몸과 마음을 비우는 연습을 했다. 때마침 내리는 비가 창문을 때리면서 자연의 소리까지 어우러졌다. 학생들 모두 싱잉볼 소리와 빗소리를 벗삼아 내면에 집중했다.

박성원 군(동대부고1)은 “소리에 집중하니 졸음도 오지 않았다. 생각을 비우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규영 양(광동고1)은 “요즘 학업 때문에 마음이 복잡했는데 소리에 집중하며 명상을 하니 편안하게 생각을 정리할 수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홍대선원 주지 준한 스님과 대화를 나누며 조언을 듣는 시간도 이어졌다. 준한 스님은 자신의 출가 이야기를 설명하며 학생들에 다가갔고 “나 자신을 사랑하고 스스로 도울 수 있을 때 다른 사람도 도울 수 있다. 스스로를 믿고 사랑하라”며 학생들의 자존감을 높였다. 또한 “나 자신을 찾는 공부가 바로 불교의 핵심”이라며 학생들에게 책 〈슬기로운 출가생활〉을 선물했다.

이재희 군(동대부속영석고2)은 “준한 스님 말씀처럼 올해는 나 자신을 믿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며 그 목표를 이룰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병진 군(광동고1)도 “(이번 템플스테이가) 흔치 않은 기회인만큼 뜻깊은 시간이 됐다. 지금까지 모든 템플스테이에 참여했는데 앞으로 있을 4기·5기도 계속 참여하고 싶다”고 참가 소감을 밝혔다.

군승이나 교법사로 진로를 계획하는 학생도 있었다. 이건우 군(동대부속영석고2)은 “제 인생에 영향을 미친 교법사님 말씀이 많다. 저도 교법사님처럼 다른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싶다”며 “군법사가 되기 위해 올해 출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서인 양(동대부속여고2)도 “교법사님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많아 자연스레 소통하는 시간도 많았다. 학생의 마음을 헤아리는 교법사가 1지망 진로”라고 말했다.

청소년 인재 양성을 위한 조계종 국제전법단장 정범 스님은 “국제적인 포교인재로 성장할 자질이 충분한 학생들에게 홍대선원에서 젊은이와 외국인이 함께 불교를 접하는 분위기를 체험시키고 싶었다”며 “학생들이 프로그램 취지에 맞게 잘 따라와 줘 고마울 따름”이라고 밝혔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에 중앙종회의원 만당 스님

진우 스님, 2월 27일 임명



템플스테이 운영과 사찰음식 전문가 양성 등에 힘쓰고 있는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새 단장에 영광 불갑사 주지 만당 스님이 임명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2월 27일 새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으로 만당 스님을 임명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진우 스님은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템플스테이를 주관하면서 한국불교를 세계적으로 알리는 중요한 기관”이라며 “만당 스님이 종단에서 다양한 소임을 맡은 경험으로 사업단 운영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만당 스님은 “총무원장스님 뜻에 따라 한국불교를 세계적으로 알리고,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특히 선명상 프로그램을 템플스테이와 접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연구하겠다”고 답했다.

만당 스님은 지종 스님을 은사로 1992년 수계했다. 총무원 기획실 기획국장, 종교평화위원회 위원장, 제15·16대 중앙종회의원, 제17대 중앙종회 부의장을 역임했다. 현재 제18대 중앙종회의원과 불갑사 주지를 맡고 있다. 윤호섭 기자

송파 세 모녀 10주기…“평등세상 발원”

조계종 사노위, 2월 26일 추모제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지몽 스님, 이하 사노위)는 기초생활보장법 바로 세우기 공동행동,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의 3대 적폐 폐지 공동행동과 2월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송파 세 모녀 10주기 추모제’를 개최했다.〈사진〉

2014년 극심한 생활고를 비관해 세상을 떠난 송파 세 모녀. 이들이 어떤 사회보장체계의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죽음으로 내몰린 사실이 알려지자 한국사회에서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빈곤해결이 시대적 과제로 떠올랐다. 송파 세 모녀의 죽음 이후 ‘기초생활보장법’과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되고 ‘사회보장급여법’이 신설되는 등 일부 사회보장제도가 개선·실행돼왔다. 그러나 그마저도 낮은 선정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유지하고 있어 제도가 필요한 빈곤층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분명했다. 그러는 사이, 2022년 수원 세 모녀 사건, 2023년 1월 성남에서 모녀 죽음 등 비극은 끊이지 않고 이어졌다.

때문에 이날 추모제는 가난으로 생을 마감한 모든 이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고, 사회보장제도 전반의 개선을 통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촉구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사노위 부위원장 혜도 스님은 “국민의 생존권을 책임지는 정부와 국회는 그 생명의 존엄함에 큰 무게를 느껴야 한다. 총선, 대선에서 각종 공약이 남발됐지만 현 정부를 비롯해 역대 정권 모두 근본적인 문제에 대답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내영 기자

“대행선사의 유산 실천으로 이루자”

한마음선원, 대행 선사 탄신 97주년 다례재



한마음선원을 창건하고 ‘한마음 주인공 관법’으로 중생교화에 힘쓴 묘공당 대행 선사(1927~2012)의 탄신 97주년을 기리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마음선원(이사장 혜수 스님)은 2월 11일 안양본원 5층 법당에서 ‘대행 선사 탄신 97주년 다례재’를 봉행했다.〈사진〉

이날 다례재에서는 이사장 혜수 스님의 헌향·헌다를 시작으로, 안양본원 주지 혜솔 스님·광명 선원 주지 청백 스님, 본원·지원 신도 회장단 등의 헌화, 대행 선사 영상 법문 등으로 진행됐다. 한마음선원 사부대중은 대행 선사의 영상 법문을 통해 다시 정진을 다짐하는 계기로 삼았다.

혜수 스님은 “대행 선사께서는 한마음 주인공 관법이라는 광대무변한 위대한 유산을 물려주셨다. 내려주신 그 한마음 주장자를 두루두루 쓸 수 있어야 한다”면서 “사부대중이 대행 선사의 가르침을 실천함으로서 중생을 구제하러 선사께서 오신 뜻을 이어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세상을 밝게 이끌어나갈 수 있는 마음법을 우리 사부대중이 배워 대행 선사가 이끌어주신 대자유인의 길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례재에서는 대행 선사를 향한 마음의 편지 낭독(이병현 거사)과 본원합창단의 음성공양도 이뤄졌다. 신중일 기자

비구니회 운영위원장 진명 스님 선출

2월 29일, 34차 운영위 회의서

조계종 전국비구니회 제13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에 진명 스님이 선출됐다. 수석부위원장은 정관 스님이 맡게 됐다.

전국비구니회장 광용 스님은 2월 29일 서울 법룡사에서 ‘제34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만장일치로 선출된 진명 스님과 정관 스님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신임 운영위원장 진명 스님은 “전국 지회장을 비롯해 모든 운영위원 스님들이 적극 도와줄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비구니회 발전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광용 스님은 “모두가 13대 집행부의 주인공”이라며 “우리는 어떤 소임자다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하기 전에 수행자로서 화합하고 서로 격려하자”고 당부했다.

이날 운영위원회에서는 13대 전국비구니회 경과보고와 함께 △2024년 사업계획 예산 심의의 건 △운영위원회 및 지회장회 활동계획의 건 △조직개편에 관한 건 △기타 감사 선출의 건 등이 논의 됐다. 임은호 기자

광주 전남 산하 담양 용화사 아일다율원
율강 및 범음법패 전통불복장 교육 안내말씀

한국불교태고종 담양 용화사 아일다율원 사분율 범음범패 전통불복장 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 하오니 많은 참여를 기원합니다.

1. 해동율맥 대은 금담 초의 범해 제산 호은 금해 만암 묵담 혜은으로 계승 유지되어 오고있는 담양 용화사 아일다율원에서 원전에 입각한 사분율 강의를 시작합니다. 조계종은 본사에 따라 율원이 있어 강의를 하고 있으나 본종을 비롯한 여타 종단은 특별한 교육장소가 없어 종도스님들의 부름에 따라 담양 용화사 아일다율원에서 강의를 개최하는 바이며
2. 범음 범패도 호남소리 경기소리 영남소리가 각각 작법의 특색이 있어 특성을 살리는데 중점적으로 범음소리를 교육코자 합니다.
3. 전통불복장은 금년까지 3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3기생을 모집 하오니 부처님의 불상을 모시는 근본뜻을 정확히 부각시킴과 동시에 점안 작법에 3증사의 점필법과 불신에 점필 지점을 확실히 교육하여 조상경에 나타난 신해행증(信解行證)의 사문(四門)을 잘 습지해서 전통을 계승하고 광도중생을 지상목표로 삼고자 아래와 같은 커리큘럼으로 교육코자 하오니 뜻있는 사부대중의 동참을 기원합니다.

개강 : 4월 ~ 11월 (매주 수요일 목요일)

과 목	사분율 (매주 수요일 오전)	범음 범패(매주 수요일 오후)	전통 불복장 (매주 목요일)
교 제	원전 사분율 (요진삼장불타야사 공축불념역)	석 문 의 범. 영산각배권공 주해정보요집	조상경 (금강산 유점사 판)
시 간	오전 10시~12시	오후 1시30분~ 3시 30분	3기생 오전 10시~12시 전수행 오후 1시30분~ 3시 30분
강 주	해동율맥 11대 도월 수진	김제 석불사 어장 휴암 광주 법흥사 우하	강주: 도월수진 조교: 대진
특 전	조 교 증사	특별 제 의식 청장 및 증참	특별불복장 작법사
수강료	10만	10 만	초급반: 10만 전수반 : 5만
비 고	※ 특별한 경우 시간은 유동적		

전남 담양군 담양읍 남촌길 77 용화사
전화 : 061-381-2683 팩스:381-2749 홈페이지: www.dyhs.kr(담양 용화사) 홈페이지 참고

대학생 전법 '고조'…강원대에 불교탐방동아리 창립

월정사 · 철학실천硏, 불교문화탐방동아리 창립OT

철학과 교수, 월정사 의기투합
인문대학 불교동아리 첫 창립
학부·대학원생 회원 20명 참여
올해엔 월정사 중심 문화탐방
격주로 경전독해, 명상체험도



2월 28일 창립 오리엔테이션을 가진 강원대 인문대학 불교문화탐방동아리 회원과 상월결사 사무총장 일감 스님, 동아리 지도법사 지우 스님, 김희 지도교수, 유성선 철학실천연구소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강원도 춘천=신중일 기자

대학생 전법 열기가 나날이 확대되고 있다. 명맥이 끊어졌던 대학 불교동아리가 재창립되거나 새롭게 창립되고 있다. 여기에 사찰과 불교문화유산을 순례·탐방하는 전문 동아리가 새롭게 창립돼 눈길을 끈다.

오대산 월정사(주지 정념 스님)와 강원대 철학실천연구소(소장 유성선)는 2월 28일 강원대 인문대학 3호관 104호에서 '불교문화탐방동아리 창립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했다.

이날 오리엔테이션에는 (사)상월결사 사무총장 일감 스님, 불교문화탐방동아리 지도법사 지우 스님(춘천 월천사 주지)을 비롯해 김희 동아리 지도교수, 유성선 철학실천연구소장과 동아리 학생회원 20명이 참석했다.

불교문화탐방동아리 창립은 강원도 인재 양성에 의견을 함께 한 오대산 월정사와 강원대 철학실천연구소가 지난해 12월 14일 업무협약을 맺으며 본격화됐다. 월정사와 철학실천연구소는 협약을 통해 매년 1000만원씩 총 3000만원의 장학금 지원을 포함, 불교동아리 창립을 통한 자원봉사와 명상, 템플스테이 등 체험활동 지원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번에 창립한 강원대 불교문화탐방동아리는 불교문화유산을 전문적으로 탐방하는 첫 동아리이자 첫 인문대학 불교동아리라는 데 의미를 갖는다. 회원도 학부생 13명, 대학원생 7명 총 20명으로 단과대학 동아리로는 꽤 큰 규모다. 이에 따라 강원대에는 중앙동아리인 불교학생회와 인문대학 불교문화탐방동아리, 두 곳이 불교동아리로 활동하게 됐다.

이날 오리엔테이션에서 (사)상월결사 사무총장 일감 스님은 '맹구우목(盲龜遇木)'의 비유를 들며 불법(佛法)을 만나는 희유한 인연을 맺은 것에 축하 인사를 전했다. 또한, 스님은 동아리에 창립축하격려금을 전하기도 했으며, 매달 30만원의 활동비 지원도 약속했다.

일감 스님은 "바닷속 눈먼 거북이가 백 년에 한 번 물 위로 떠오를 때 마침 바다 위를 떠다니는 널빤지에 뚫린 작은 구멍에 거북이 머리가 들어가게 되는 확률이 얼마나 되겠나"라며 "그만큼 어려운 게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이고, 인간으로 태어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는 것은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이다. 오늘 모인 학생들은 부처님 가르침을 만나는 귀중한 인연을 맺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여러분은 불교문화유산을 탐방하고 명상도 배울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반"이라면서 "부처님은 도(道)를 이루는데 도반이 전부라고 강조하셨다. 함께 탁마하며 동아리 활동을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희 지도교수는 동아리 활동 계획을 소개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독려했다. 불교문화탐방동아리는 3월 신학기부터 명상 수행과 경전 연구를 주제로 각각 격주 화요일 정기모임을 진행한다. 경전 연구는 김희 지도교수가, 명상 수행은 지도법사 지우 스님이 담당한다. 또한 연1회 템플스테이, 월정사 탑돌이를 진행하며 연4회 불교문화탐방이 이뤄진다. 올해에는 월정사와 상원사, 청평사 등 강원권 사찰을 탐방하며, 향후 전국 사찰과 불교문화유산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도법사 지우 스님은 "올 한 해 동안 호흡명상을 가르쳐 드리고, 사찰탐방도 진행하려 한다"면서 "잘 준비해서 알찬 동아리 활동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리엔테이션에서는 동아리 활동을 이끌 회장단도 구성됐다. 회장에는 조우연(철학전공 21학번) 씨가 부회장에는 허보윤(철학전공 21학번) 씨가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조우연 회장은 "전국 대학에서 불교문화유산을 탐방하는 단과대학 동아리는 강원대가 유일할 것이다. 이에 대해 높은 자긍심을 갖고 있다"면서 "20명의 회원들이 탐방을 하는 만큼 최대한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또한 사고가 없도록 안정적으로 동아리를 운영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보윤 부회장은 "도반들이 어려움 없이 즐겁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원대 인문대학 불교문화탐방동아리는 오는 3월 11일 오후 6시 철학실천연구소에서 첫 번째 모임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젊은 불교 함께 만들자"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2월 23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이하 대불련) 임원들의 예방을 받고 "불교도 이젠 최신 트렌드를 선도하는 젊은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대불련도 함께 그 역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진우 스님은 올해 9월 개최 예정인 국제선명상대회와 불교도대법회의 의미와 배경을 소개하며 "'젊은 불교'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대불련도 포교원과 잘 협의해 (불교도대법회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연구해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내영 기자

조계사·봉은사 '천년을 세우다'에 1억씩




서울 조계사(사진 왼쪽)와 봉은사(사진 오른쪽)가 조계종단 주요 종책 불사인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 모시기에 각각 1억원을 쾌척했다.

조계사 주지 담화 스님과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은 2월 26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불사기금을 전달했다.

진우 스님은 "'천년을 세우다' 핵심 사업 중 하나가 경주 남산 마애부처님을 세워 모시는 일이다. 천 년 동안 누워계신 부처님을 세워 미래 천 년을 열어가고자 한다"며 "종단 직영사찰인 조계사와 봉은사가 중심이 돼 기금을 마련해줘 감사하다. 덕분에 불사가 원만히 진행될 것 같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김내영 기자

액운은 '활활'…"올해엔 좋은 일만"

봉선사, 정월대보 달집태우기
사부대중 1000여 명 참여 성황
호산 스님, 광동고 장학금 전달



남양주 봉선사가 새해 첫 보름달이 뜨는 정월대보름을 맞아 모든 액운을 태우고, 한 해 평안과 행복을 기원하는 달집태우기 행사를 개최했다.

조계종 제25교구본사 봉선사(주지 호산 스님)는 2월 24일 일주문 앞에서 '2024년 정월대보름 봉선사 달집태우기'를 진행했다.〈사진〉 달집태우기는 정월대보름 달이 떠오를 때 짚으로 만든 '달집'에 불을 질러 주위를 밝히는 놀이다. 액을 쫓고 복을 부르는 의미가 담겼다.

이날 행사는 경내 범종루 마당에서 저녁 예불을 시작으로 달집 이운, 불교 의례, 문화공연, 달집태우기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길놀이패, 사중스님, 달집, 불자 순으로 줄을 지어 조심스레 옮겨진 거대한 달집이 일주문에 다다르자 어산어장 인묵 스님의 집전으로 삿된 기운을 몰아내고 도량을 옹호하는 신중작법 의식이 거행됐다. 이어 광개토예술사물단의 길놀이 공연과 상월청년합창단의 음성공양, 박정민 포교사의 붓글씨 퍼포먼스, 어연경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의 흥부가 창 등 문화공연이 펼쳐졌다. 공연 중 갑작스럽게 내린 비에도 동참대중들은 마지막까지 열렬한 환호를 보냈다.

본격적인 달집태우기에 앞서 봉선사 주지 호산 스님은 "비가 오는 날이지만, 동참자들의 마음에는 보름달이 떴으리라 믿는다"며 "오늘 달집태우기에 함께한 인연으로 마음속 모든 소원이 이뤄지고, 청룡의 해 여의주를 따라 하늘로 승천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축원했다. 호산 스님은 광동고 박기태, 박수빈, 이태희 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며 건강한 성장을 기원하기도 했다.

자명화 봉선사 신도회장은 대표로 낭독한 발원문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욕심을 내려놓고 바르게 살아갈 것을 다짐했다. "티 없이 둥글고 맑은 대보름달처럼 새해 소망은 불처럼 활활 이뤄지고 묵은 근심과 미움, 원망, 아집, 편견은 불길 속에서 재가 돼 사라지며,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어 지은 모든 업장을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옵나니 바르고 지혜롭게 살기를 발원하옵니다."

끝으로 봉선사 주지 호산 스님을 비롯해 참석내빈들이 달집에 불을 붙이자 순식간에 불길이 하늘 높이 솟아올랐다. 시민들이 주렁주렁 매달아 놓은 소원지가 훨훨 타올랐고, 시민들은 연신 승천하는 불을 바라보며 두 손 모아 저마다 간절하게 소원을 빌었다. 행사는 1시간여 만에 달집을 다 태우고서야 마무리됐다.

남양주 봉선사=김내영 기자

수미산원정대 7기 148명 입학

2월 24일, 봉은사서 입학식
6월까지 매주 수요일 12강좌

수행과 신행의 원력 실천으로 불교중흥과 대한민국 화합 나아가 세계 평화를 이루겠다는 상월결사 정신을 잇는 수미산원정대가 7기 입학생을 받고 4개월간의 여정을 시작했다. 7기에는 개교 이래 최대 인원인 148명이 입학, 시간이 더할수록 그 인기를 실감케 했다.

2월 24일 서울 봉은사 보우당에서 7기 입학식이 봉행됐다. 기업 대표를 비롯해 교수, 약사, 법조인, 회계 금융인, 정치인, 예술인, 학생 등 다양한 영역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부처님 법을 올곧이 배우고 전해 불교중흥을 이룰 것을 다짐했다.

이날 입학식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으로 시작됐다. 상월결사 정신을 알리기 위해 2019년 위례 상월선원 천막결사와 도보순례, 그리고 수미산원정대에 대한 소개 등을 담은 영상이 상영됐다. 이어 수미산원정대 6기의 활동을 살펴보며 앞으로의 학사일정과 내용을 숙지하는 시간을 가졌다.

학사일정 소개를 마치고 본격적인 입학식이 열렸다. 이날 참석한 77명의 입학생의 이름과 직업을 일일이 소개하며 동기들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수미산원정대 단장 원명 스님(봉은사 주지)은 혼자가 아닌 함께, 부처님 말씀을 이해하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수미산원정대의 근본 취지임을 밝혔다. 그러면서 "수미산원정대를 통해 부처님 말씀을 잘 터득해 바른 길, 행복의 길로 가길 바란다"면서 "불교를 잘 배워 주변사람들에게도 알리고 인연을 맺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7기 수미산원정대는 2월 28일부터 본격적인 교육일정에 들어갔다. 매주 수요일 오후 7시부터 8시 30분까지 봉은사 보우당에서 열리는 강의는 모두 12강으로 구성됐다. 1박 2일 성지순례(4월 13~14일)와 두 차례에 걸친 상월선원 템플스테이(5월 25~26일, 6월 8~9일)도 준비돼 있다. 6월 19일 마지막 수업이 끝나면 8월 31일 수계 및 졸업법회가 봉행될 예정이다. 임은호 기자


수미산원정대 7기 입학생들이 2월 24일 열린 입학식에서 부처님 법을 올곧이 배우고 전할 것을 다짐했다.

전등사, 역사문화교육관 첫 삽

지하 1층 · 지상 1층 규모
호국역사교육실 등 운영



전등사의 유구한 역사를 바탕으로 인천과 경기 서부지역 대표 전법·포교 공간이 될 '역사문화교육관'이 첫 삽을 떴다.

강화 전등사(주지 여암 스님)는 2월 29일 경내에서 '전등사 역사문화교육관 기공식'을 개최했다.〈사진〉

역사문화교육관은 선불장 옆 공간에 지하 1층 지상 1층, 연면적 869.95㎡ 규모로 조성된다. 호국역사교육실과 명상실, 어린이 법당, 신행단체실 등이 들어설 역사문화교육관은 △명상지도자와 수행자들을 위한 복합수행공간 △불교대학 등 교육수강생들을 위한 강의 공간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법당 △신도들을 위한 신행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총무원장스님을 비롯한 내빈들은 교육관 건립부지에서 시삽을 하며 원만한 불사를 기원했다. 전등사 역사문화교육관은 올해 12월 완공될 예정이다. 김내영 기자

제17대 군불총회장 고현석 장군 취임

2월 25일 국방부 원광사서…창립 24주년 법회 겸해



국군불교총신도회(이하 군불총)의 17대 회장으로 육군참모차장 고현석 중장이 취임했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교구장 법원스님)은 2월 25일 서울 국방부 원광사에서 17대 군불총 회장 취임식과 군불총 창립 24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사진〉

고현석 회장은 취임사에서 "17대 군불총은 한국불교의 미래가 군불교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군종교구와 협력하여 신도조직을 활성화하는 등 불자간 유대를 강화하겠다. 또한 신행단체와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해 장병 포교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민우 수습기자

30돌 맞은 생명나눔실천본부 종교계 대표 공익법인 '발돋움'



30 생명 나누다, 자비의 길 걷다①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부처님의 자비 사상을 바탕으로 1994년에 설립된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 스님)가 올해 30주년을 맞았다.

그동안 보건복지부 지정 장기이식등록기관으로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시대에 생명나눔문화 확산을 목표로 장기 및 조혈모세포 희망등록 사업, 환자치료비 지원사업, 청소년 자살예방 교육사업, 불우이웃돕기 사업 등을 전개하며 부처님 가르침을 널리 전파하는 데 진력해 왔다. 생명나눔실천본부는 종교계를 대표하는 공익법인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사업 다각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30돌을 맞은 생명나눔실천본부의 올 한 해 사업과 목표를 꼼꼼히 살펴본다.

생명나눔 백년대계 준비

생명나눔실천본부는 1994년 설립 이래 매년 눈부신 성장을 해나가고 있다. 25만여 명의 회원모집과 42억여 원의 의료취약계층 치료비 지원, 10만여 명의 청소년 대상 자살예방교육을 실시했으며 2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방한물품을 지원하고 불교 발전 및 포교를 위해 대학 및 고등학교 동아리 장학금도 지원하고 있다.

이웃종교, 넓게는 사회에서 앞서가는 공익법인으로 성장하기 위해 생명나눔실천본부는 올해 '생명을 나누다, 자비의 길을 걷다'를 기치로 삼아 생명나눔과 불교의 핵심 가치를 전파할 계획이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장기기증 서명을 시작으로 전국 25교구 본사를 순차적으로 돌며 장기기증 단체 서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회원수를 현재 25만명에서 50만명으로 확충, 연간 후원금 50억원 달성을 목표 환자치료비 연간 5억여 원 지원, 불우이웃돕기 연간 1억여 원 지원, 동아리 장학금 연간 5000만원 후원 등 생명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장기 및 조혈모세포 등록자 모집 활동 안정화

생명나눔실천본부는 목적사업인 장기 및 조혈모세포 희망등록자 모집 활동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모집 루트를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업무협약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대전보건대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생명나눔 동아리를 신설, 신학기부터 장기 및 조혈모세포 희망등록자를 체계적으로 모집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연간 장기 및 조혈모세포 희망등록 모집목표의 15% 이상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현재 서울에서 진행하고 있는 운전면허시험장 부스도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과 연계, 전국 단위로 확대 운영하며 고양국제꽃박람회, 대학축제, 논산훈련소 수계법회 등 시민들이 모이는 다양한 지역 행사에도 적극 참여해 장기기증 홍보 및 포교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걷기명상, 천도재, 자선음악회 등 법인 행사와 불교박람회, 전통문화마당 등 불교계 행사를 통해 장기기증 활성화는 물론,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대외적인 홍보도 진행할 방침이다.

그간 성과 '생명나눔 백년대계' 준비

전국 25교구 순회로 장기기증 서약

의료 인프라 적은 국가에 약품 지원

창립 30주년 기념식·자선골프대회 등

부처님 자비나눔 실천 단체 염원도

2024년 주요 일정

연번	구분	일자	장소
1	전통문화마당	5월 12일(일)	서울 조계사 및 우정국로 일대
2	걷기명상(걷기대회)	5월 25일(토)	서울 동국대 및 남산 일대
3	천도재	6월 6일(목)	남양주 불암사 경내
4	30주년 기념식	10월 12일(토)	서울 동국대 중강당
5	따뜻한 정 나누기 (불우이웃돕기)	12월 3일(화)	장소 미정

※ 상기 일정은 본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생명나눔 홍보위원회 독자적 사업 추진

법인 창립 30주년을 맞이해 생명나눔 홍보위원회가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장기기증 홍보 및 환자치료비 기금 마련을 위한 '제1회 생명나눔 홍보위원회 주관 자선골프대회'를 추진할 예정이다. 대회 상금은 우승자 이름으로 장기기증 홍보 및 환자치료비를 위한 기금으로 기부된다. 또 홍보위원간의 업무 분담과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나눔의 가치가 함께 실현돼 더 풍요로운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홍보위원회가 일조한다는 방침이다.

해외 의약품 지원 연대 사업 추진

2021년 업무협약을 맺은 글로벌 생명나눔과 연대, 의료 인프라가 미흡하거나 의약품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국가들을 대상으로 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 국가로는 캄보디아와 우즈베키스탄이 예정돼 있다. 개인에게 지원하는 것이 아닌 중앙정부를 통해 의료품을 전달하고 의료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후원 프로그램을 병행, 이를 통해 부처님의 자비와 나눔의 가치를 널리 알린다는 계획이다.

법인 창립 30주년 기념식 개최

1994년 설립된 생명나눔실천본부는 30년 동안 국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에 헌신해 왔다. 올해 30주년을 맞아 회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미래의 나눔을 모색할 계획이다. 앞으로의 30년을 향한 희망과 기대를 함께 나누고 더 나은 복지와 건강을 위해 회원들과 협력하는 시간으로 마련된 30주년 기념식은 10월 12일 오후 2시 서울 동국대 중강당에서 진행된다. 생명나눔실천본부 창립 30주년 기념 '사사'도 이날 공개, 배포될 예정이다.

이사장 일면 스님은 "그간 얻은 성과는 단 한 생명이라도 살리기 위한 회원들의 노력 덕분"이라면서 "앞으로도 부처님 자비나눔을 몸소 실천하는 단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열심히 정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생후 7개월, 준서는
뇌종양과 싸우고 있습니다.

꾸준한 항암치료를 받으면 완치 가능성을 80%로 보고 있지만,
고액의 치료비에 부모님의 걱정은 커져만 갑니다.

생명나눔실천본부는
취약계층, 다문화가정, 이주노동자등 소외계층 환자들의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기후원으로 아픈 환자들을 위해 많은 관심과 따뜻한 보시의 손길을 나눠주세요.

정기후원신청 02-734-8059

후 원 계 좌 농협 053-01-243778 예금주 : (사)생명나눔실천본부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본부



석달 정진 마친 납자들 '입전수수'로 나아가다

백양사 운문선원에서 동안거 수행을 한 납자가 해제를 맞아 걸망을 지고 산문을 나서고 있다. 사진제공=조계종 홍보국

백양사 운문선원 동안거 해제 현장을 가다

장성 백양사=신중일 기자

무릇 명산(名山)엔 명찰(名刹)이 있기 마련이다. 그 명찰에는 이름난 명안종사(明眼宗師)가 있어왔다.

백암산 백양사 운문선원이 그렇다. 선원에서 바라보면 저 앞으로 광주의 무등산이 보이고, 그 왼쪽으로 순천의 조계산, 화순의 모후산, 그 옆으로 광양 백운산의 바구리봉이 보인다. 호남의 내로라하는 명산들이 마치 병풍처럼 둘러쳐 있다.

백양사 운문선원은 고려시대 각진 국사를 필두로 수많은 도인들의 수행처이기도 했다. 조선시대에는 부처님의 화신이라고 불렸던 진묵 스님이 운문선원에서 수행했고, 소요 태능·용성 진종 선사도 운문선원과 인연이 깊다. 또한 학명·만암·전강·서옹 스님 등 선지식들이 운문선원에서 정진했다. '북 마하연, 남 운문'이라고 불렸던 것이 허명이 아님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동안거 해제를 맞아 2월 23일 찾은 백양사 운문선원은 은산철벽을 뚫기 위한 11명 눈 푸른 납자들의 서슬 퍼런 용맹정진이 마지막까지 이뤄지고 있었다.

운문선원장 보인 스님은 "운문선원에 오면 푸른 산과 마주하게 된다. 우리의 본지풍광을 그대로 보는 것"이라며 "번뇌가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원래 우리 본래 자리가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다. 그것을 보면 끝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스님은 "물론 말은 쉽지만, 그 믿음을 갖기 위해 우리가 이제 좌선을 하고, 행선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대사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 그 믿음을 갖기 위한 운문선원 납자들의 하루는 단조롭다. 납자들은 새벽 3시면 기상해 예불한 뒤 바로 입선(入禪)에 든다. 2시간가량 정진 뒤에는 아침공양을 하고 오전 8시부터 10시까지 오전 정진한다. 사시예불, 점심공양 뒤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까지 오후 정진을,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저녁 정진을 한 뒤 취침한다.

백양사 운문선원의 수행 가풍은 만암 종헌(1876~1957) 스님의 '반농반선(半農半禪)'과 서옹 석호(1912~2003) 스님의 '참사람 결사' 정신에 기반한다.

만암 스님은 대중스님들의 울력을 통해 재정 기반을 다짐으로써 독립적인 사찰경제를 확립하고자 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승가의 권위를 회복하고 자주적이고도 청정한 승풍을 진작시켜 일제강점기 왜색불교로 인해 퇴화하는 한국불교를 바로 세우고자 노력했다.

만암 스님의 뜻을 이어 간화선의 청정한 수행 정신을 근간으로 선문(禪門)의 기강을 세우는 데 진력한 선지식이 서옹 석호 스님이다. 서옹 스님은 중생 구제의 방안으로 인간 본연의 자성을 일깨우는 '참사람' 화두를 꺼내 들었다.



백양사 고불선원 수좌 일수 스님이 대중들에게 해제법어를 하고 있다.

'남 운문' 불렸던 수행처 11명 방부

반농반선·참사람 정신 새기며 수행

매일 10시간 은산철벽 뚫으려 정진

"일대사 해결까지 활구참선 임하라"



마지막까지 수행정진을 하는 운문선원의 수행자들.

'참사람'이란 자유와 공존, 자비, 평화, 평등의 가치를 지님으로써 괴롭거나 고통스러운 마음이 일절 생기지 않는 경지의 존재를 말한다. 서옹 스님은 만암 스님의 수행 전통에 따라 간화선 수행을 통해 참사람이 되었을 때 비로소 중생들이 과학 문명의 병폐와 이기에서 벗어나 구제될 수 있음을 이야기했다.

백양사의 수행 가풍에 대해 주지 무공 스님은 "백양사 중창주 만암 스님의 반농반선 정신은 울력과 정진이 둘이 아님을 의미한다. 산내 운문선원, 고불선원의 수좌들은 하루도 안 빠지고 울력을 한다"며 "같이 일하고 함께 정진하는 것, 그것이 백양사 대중의 일과이고 가풍"이라고 설명했다.

백양사 고불선원 수좌 일수 스님은 정중 공부와 동중 공부로 풀이했다. 스님은 "서해안 지역에 위치한 백양사는 눈이 많이 오는 편이고, 그렇기에 울력은 필수"라며 "몸을 쓰며 울력하는 것은 동중 공부고, 앉아서 활구참선을 하는 것은 정중 공부"라고 말했다.

이어 "고불선원에서 정진하는 수좌들은 구참스님들이 대부분이지만, 이들도 울력 정진을 빼먹지 않는다"며 "백양사 사부대중은 울력을 일주일마다 한다. 모두가 나와서 울력하는 모습을 보면 '백양사의 미래가 참 밝다'고 생각하게 된다"고 밝혔다.

운문선원의 선원채에는 부처를 선발하는 곳이라는 '선불장(選佛場)'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다. 부처로 선발되기 위한 방법은 자신만이 안다. 자기자신과 법을 등불로, 나아갈 뿐이다. 그렇기에 백양사 어른인 일수 스님은 2월 24일 동안거 해제 법회에서 법상에 올라 후학들에게 방일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일수 스님은 "우리는 일대사를 해결할 때까지 1700공안을 갖고 오매불망 화두를 들어야 한다"면서 "결제든 해제든 그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스님은 "오늘 해제를 했어도 생사해탈이라는 본분사를 해결하지 못했다면 다시 되잡아서 공부를 해야 한다"면서 "해제하고 산문을 나서면 선지식을 참방해 자기 공부를 점검하라"고 당부했다.

깨달음의 과정을 묘사한 십우도의 마지막은 '입전수수(入鄽垂手)'로 걸망을 진 수행자가 저잣거리로 나아가는 모습이 그려진다. 구름이 걸친 산문(雲門)을 나선 납자들은 저마다의 만행을 나섰다. 그 만행은 자기점검일 수도, 보림(保任)일 수도, 전법행일 수 있지만 그 종착은 중생제도로 귀결된다. 번잡한 저자 속으로 들어가서 손을 내미는 인천의 스승을 세상은 기다리고 있다.

맨 가슴 맨발로 저자에 들어오니
(露胸跣足入鄽來)
재투성이 흙투성이라도 얼굴에 가득한
함박웃음(抹土途灰笑滿顋)
신선이 지닌 비법 따위를 쓰지 않아도
(不用神仙眞秘訣)
당장에 마른 나무 위에 꽃을 피게 하누나
(直教枯木放花開)

최고급제품 & 착한가격 & 친절상담 & 빠른배송
동호불교물류센터
전국 최대규모 500평 매장에 불교용품의 모든것
전품목 10~30%
승복·가방 50% / 가구·병풍 30% 할인
※ 제품 소진시 까지 ※ 일부 품목 제외 ※ 택배비 포함된 가격입니다.

등 설치 할 인 — 설치 스카이 3월 30일까지 할인 / 다양한 연잎 등살 등작업 3월 말까지 행사 중
사월초파일 제품 할인 — 인등 신제품 출시, 주문제작 가능 / 충전 전기초 출시 (1회 충전시 30일 지속, 5종류) / 반야심경/산신/용왕/연꽃 84,000원
입춘대길 수제 인쇄부적 할인 — 수제부적 50장 20,000원 / 국산 전기선 LED전구 100개 이상 1,300원

부적 파라핀 입춘 대길 수제부적 인쇄부적 할인행사 대방출!!

2024 초파일 미리 준비하세요

삼베, 검정삼베 개당 2,000원 / 50개 100,000원
길베, 소창 개당 2,000원
오색종이 개당 450원

식물성 양초 - 그을음 없는 최상급 (흰색, 노랑색 가격동일)
7일초 팝초 20개, 노란색 최상급 20개 소진시까지 ····· 65,000원
5일초 24개 ····· 70,000원
3일초 40개 ····· 70,000원
1일초 90개 ····· 80,000원
15일초 12개 ····· 100,000원
대량구매시 추가할인

국산초
밀대 50개 65,000원
돈타래 40개 75,000원
원백 20개 75,000원

수입양초
밀대 50개 65,000원
돈타래 40개 75,000원
원백 20개 75,000원

흰색 식물성 양초 B급 (※반품 안됨※)
7일, 5일, 3일 ····· 50,000원
15일 ····· 70,000원

천왕배 오색길배-최상급
개당 4,500원 / 30개 135,000원

삼베 삼제풀이 100개 60,000원
일년 신수맞이 100장 120,000원

대통부 6,000원
삼베옷 6,000원
속옷 남자 여자 각각 100장 이상 가격 15만원
베네저고리 1,500원 50장 이상 가격 75,000원

파라핀 오일 1BOX(12개) 65,000원
부정풀이 1BOX(100개) 100,000원

불상 7치 500개 12.000원 / 1000개 11.000원

※칠보 개금 할인 (기존 불상 가능, 3자 기준 좌포함 220만원)
※불상 조각 조성 (소불 500불 이상 1불 당 12,000원, 1000불 이상 11,000원)

동호불교용품물류센터는 모든 불교 용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동호불교 검색 NAVER 에 동호불교를 검색하세요.

대량 구매 시 전화 문의 054-762-8200 / 010-9748-3366 ■ 계좌번호 : 농협 010-2082-2100-89 (임건순) ■ 찾아오시는길 :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공정길 55-36

문화포교 아이콘 '선재전승단' 3기 출범

부산불교 대표 행사서 불교문화 홍보 앞장

2월 24일 삼광사서 출범식
10개월간 연등회·팔관회 등
새싹불자 참여해 불심 다져



제3기 선재동자문화전승단 출범식. 지도법사 덕중 스님과 전승단 어린이, 부모, 지도교사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불교전통문화의 세대를 잇고자 출범한 선재동자문화전승단이 3기를 맞았다. 선재동자문화전승단은 불교문화 체험뿐 아니라 부산연등회와 팔관회 등 부산불교 대표 행사에서 불교문화를 알리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부산불교연합회(회장 정오 스님)는 2월 24일 삼광사 문화관에서 '제3기 선재동자문화전승단 출범식'을 봉행했다. 출범식에는 문화전승단 지도법사 덕중 스님과 김진희 운영회장, 문화전승단 어린이 및 부모 등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지도법사 덕중 스님은 "앞으로 문화전승단 여러분은 10개월가량 다양한 활동으로 부처님 가르침과 불교문화를 배우고 익히게 될 것"이라며 "착한 마음을 내고 실천하는 어린이를 선재동자라고 한다. 보리심을 내어 불자 어린이답게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축원했다.

문화전승단은 2022년 출범해 부산불교연합회가 주관하는 연등회 및 팔관회 등 대표 행사에 동참하며 큰 역할을 담당해왔다. 연등회에서는 호기놀이를 선보여 불교문화를 알렸으며, 연등행렬에도 함께해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했다. 특히 직접 등을 만들고 체험하며 불교문화가 가진 우수성을 나누는 데 앞장섰다. 이뿐 아니라 팔관회에서는 어린이들이 직접 계를 받고 불제자로 살아갈 것을 다짐했다.

문화전승단은 출범식을 시작으로 전통등(燈) 체험, 부산연등문화제 개막공연, 부산연등회 연등 행렬, 체험 프로그램,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 호국성지 탐방, 팔재계 체험 걷기대회, 2024 팔관회 선재동자 수계법회, 불교성지 탐방 등에 동참한다.

한편, 부산불교연합회는 문화전승단 출범을 시작으로 1년 동안 이어질 부산불교 주요 행사를 안내했다. 전통등 강습회는 4월 6~7일, 4월 13~14일 총 2차에 나눠 닥밭골 한지체험관에서 진행된다. 강습회는 순수 전통 방식과 재료를 활용해 전통등 제작기법 보급과 전승을 위해 기획됐다. 제작한 전통등은 특별전시에서 부산시민과 불자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대형전통등 전시 및 각종 체험 공연이 마련되는 부산연등회는 4월 26일부터 5월 12일까지 송상현광장에서 열린다.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하는 부산연등회는 5월 11일 부산시민공원 다솜광장에서 진행되며, 자비나눔 및 실무자 회의, 팔관회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부산금강불교대학 졸업생 76명 배출

삼광한글학교 입학 · 졸업식도



부산 삼광사 금강불교대학(학장 영제 스님)은 2월 25일 삼광사 지관전에서 '2023학년도 수료식 및 2024학년도 입학식'을 봉행했다.〈사진〉 행사에는 광명사 주지 춘광 스님, 삼광사 주지 영제 스님, 천태종 총무원 교무부장 도웅 스님을 비롯해 졸업생과 입학생 및 가족들이 동참했다.

졸업자는 교법사과 32명, 불교학과 44명이며, 입학생은 교법사과 48명과 불교학과 중급과정 52명, 초급과정 92명이 등록했다. 수료생들은 부산금강불교대학 발전 장학기금을 전달해 훈훈함을 전했다.

학장 영제 스님은 훈사에서 "기본적인 지식을 올바르게 배워 불제자로서의 소양을 갖추고, 신행으로 불교 발전을 위해 앞장서는 인재로 거듭나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삼광사는 같은 날 지관전에서 '삼광한글학교 제31회 졸업식 및 제32회 입학식'을 거행했다. 졸업생 33명에게 졸업장을 입학생 60명을 허가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관음정진 300만독 308일 기도 입재

부산 광명사, 12월 23일 회향



천태종 부산 광명사(춘광 주지 스님)가 2월 21일 경내 지관전에서 제2대 종정 대충 대종사 탄신 100주년 기념 '광명사 일심청정 관음정진 300만독 308일 기도'를 입재했다.〈사진〉

광명사는 이번 법회를 통해 관세음보살 정진으로 정각을 이루고 불자들에게 성불의 길을 열어 보인 제2대 천태종 종정 대충 대종사의 높은 가르침을 되새기기 위해 마련했다.

주지 춘광 스님은 "대충 대종사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수행 정진하는 기회로 삼아 지혜롭고 행복한 불자가 되기를 바란다"며 "염불삼매의 환희와 미묘한 법을 체험해 관세음보살의 가피를 받는 시간을 함께 보내자"고 말했다.

관음정진 삼백만독 기도는 입재 후 12월 23일 회향한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제5회 천진불어린이합창제 성료

전국 11개 사찰 합창단 참가



천진불어린이합창단연합회(회장 영산 스님)가 2월 25일 부산 영화의 전당 하늘연극장에서 '제5회 천진불어린이연합합창제'를 개최했다.〈사진〉 '모여라, 부처님의 꿈동산으로!'를 주제로 열린 합창제에는 부산, 울산, 경남, 제주 등 전국 11곳 사찰에서 활동하는 어린이합창단이 참여했다.

천진불어린이합창단연합회 총재 지현 스님은 "아이들의 미소보다 더 고운 꽃은 없고 아이들의 음성보다 더 고운 소리는 없다. 그래서 아이들을 천진불이라 부른다"며 "여러분은 여기에서 희망 꽃을 피우고 기쁨의 미소를 나누게 될 것"이라 말했다.

천진불어린이합창단연합회장 영산 스님은 "이 자리를 마련하기까지 많은 분들의 수고가 있었다.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수불 스님은 "창립 이후 어려운 시간도 있었다. 코로나19를 이겨내고 더욱 성장한 것 같아 흐뭇하다. 앞으로도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축사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사회복지·청소년단체에 범어사 템플스테이 지원

금정총림 범어사(주지 정오 스님)가 2월 28일 경내 보제루에서 '템플스테이 협약식'을 개최했다. 범어사 템플스테이 협약은 조계종 종단 3대 핵심 종책 과제 중 하나인 '불교의 사회적 소통 강화'에 발맞추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템플스테이 협약을 통해 범어사는 부산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복지기관과 청소년단체 종사자들의 마음건강을 위해 노력한다.

협약 기관은 사단법인 부산불교복지협의회, 부산시니어클럽협회, 부산청소년지도사협회, 부산청소년수련시설협회, 부산청소년상담복지협의회, 선우회계세무컨설팅이다. 각 기관은 범어사 템플스테이 이용 시 할인 및 감정소진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받는다.

범어사 측은 사회복지 및 청소년단체 종사자들이 스트레스와 힘든 감정을 해소하고 쉼을 얻기를 기대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환경보살 결집 '릴레이'로 이어간다

부산환경연대 정기총회서 '초록릴레이 주자단' 출범



부산불교환경연대가 지구환경 보호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 실천할 '초록릴레이 주자단'을 출범했다.

부산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안도 스님)는 2월 28일 부산 해운대 반야선원에서 2024년 제2회 정기총회 및 '초록릴레이 주자단' 출범식을 개최했다.〈사진〉 이 자리는 창립 이후 환경연대의 활동을 돌아보고 새로운 목표와 실천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으며, 앞으로 새롭게 활동할 '초록릴레이 주자단'을 창립했다.

'주자단'은 릴레이 경주를 하는 선수처럼 현장에서 직접 뛰는 활동가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초록릴레이 주자단'은 부산불교환경연대가 주최하는 환경보호 활동뿐 아니라 회원 300명 배가운동에 동참할 인재들이다.

총회에는 상임위원 정산 스님과 상임대표 안도 스님, 공동대표 목종 스님, 울산불교환경연대 천도 스님을 비롯해 정관 스님(원오사), 정찬 스님(도림사), 장유정 미소원 이사장, 신익철 변호사 등이 동참했다.

상임대표 안도 스님은 "창립 이후 많은 활동을 펼쳤다. 모든 회원들의 관심과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인사를 올린다"며 "앞으로도 회원 결집에 힘을 모으고 생명존중 사상에 따라 무분별한 개발로부터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불교환경연대는 2022년 4월 20일 창립식을 봉행했다. 이후 부처님의 생명 평화 사상을 불교 공동체에서 실현하고 지구 생태, 기후 위기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녹색사찰 만들기에 앞장서 왔으며, 녹색불교아카데미를 열어 환경활동가를 양성했다. 앞으로 생태방생 운동과 지도자 양성 등을 진행하고 낙동강 세계문화유산 추진, 황령산 지키기 등 다양한 환경사업을 펼치고 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法華經專門講說
법화경전문강설
불경(佛經)은 한문(漢文)으로 전해져 왔습니다.
불경의 한자(漢字)와 한문의 뜻을 비유하면 음악의 악보와 같습니다.
경전의 한자원리와 한문구성문법도 모르면서 불교를 말하는 것은 악보도 볼 줄 모르면서 음악을 지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불교를 바르게 아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석가모니부처님께서 어떻게 수행을 해서 성불하셨는지 아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네이버에서 "법화경전문강설"을 검색하세요.
킹스대학교 前명예총장 최광영연구실

상진 스님 "백척간두진일보, 일상 화두 삼자"

양주 청련사 삼동결제 해제 회향법회서 법문

양주 청련사=윤호섭 기자

윤리 가치 혜이한 현대사회에는 오종대은 명심불망 필요성 강조


상진 스님이 2월 24일 청련사서 봉행된 삼동결제 해제 회향법회에서 법문을 하고 있다.

태고종 총무원장이자 양주 청련사 회주인 상진 스님이 동안거 해제를 맞아 사부대중에게 '백척간두진일보(百尺竿頭進一步)'를 일상 속 화두로 삼을 것을 당부했다.

상진 스님은 2월 24일 청련사에서 봉행된 삼동결제 해제 회향법회에서 법사로 나서 〈경덕전등록〉과 〈무문관〉 등에 실려 있는 공안 가운데 하나인 '백척간두진일보 시방세계현전신'을 읊으면서 모든 대중이 지켜야 할 삶의 자세로 강조했다. 스님은 먼저 '막다른 위험에 놓이게 됨'을 뜻하는 '백척간두'를 "온갖 사유의 출로가 막힌 막다른 골목"으로 표현했다. "백척간두는 모든 사유작용을 틀어막는 화두의 속성을 잘 드러내고 있다"고 설명한 상진 스님은 "여기서 진일보하라는 것은 천길 벼랑에서 손을 놓으라는 뜻이다. 화두를 온몸으로 부여잡고 큰 의심을 품을 때 모든 생각과 말의 자취가 소멸하고, 최소한 자아의식마저 사라질 때 그 순간이 진일보의 밝은 소식"이라고 말했다.

상진 스님은 이어 사람이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백척간두이자 천길 벼랑이라는 자세로 삶을 대할 것을 주문했다. 스님은 "인생과 세계는 생각으로 풀어낼 수 없는 거대한 암호와 같다. 우리 스스로가 진정한 백척간두에 있는지 화두로 삼아 깨달음을 이뤄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천길 벼랑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버둥거려도 떨어지는 걸 막을 순 없다. 떨어진다면 그냥 떨어져라. 삶을 너무 어렵게 살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쉽게도 살지 말라는 뜻"이라고 부연했다.

상진 스님은 또 윤리·도덕적 가치가 해이해진 현대사회를 지적하며 새벽종성의 '오종대은 명심불망(5가지 큰 은혜를 마음에 새겨 잊지 말 것)'을 언급했다. 5가지 은혜는 국가·부모·스승·시주·법우를 의미한다. 또한 마지막 구절에 해당하는 '당가위보유차염불(當可爲報唯此念佛)'을 통해 은혜를 갚기 위한 길로 염불을 제시하고 있다.

상진 스님은 "요즘 논란이 되는 의료대란, 학교 선생님들이 겪는 고충, 군부대 내 기강 문제 등 많은 것들이 '오종대은 명심불망'을 지키지 못해 발생한 것들"이라며 "부처님 가르침에 거짓은 없다. 그저 수용 못하고 이를 위배하는 내가 있을 뿐"이라고 경책했다.

스님은 끝으로 "잘되면 기분 좋고 안 되면 속상한 마음은 이제 내려놓고, 기원도 하고 서원도 하면서 경전이 어렵다면 염불에 매진해 고통의 바다에서 벗어나자"고 말했다.

한편 청련사 동안거에는 11명의 대중이 동참했으며, 청련사는 이날 안거 해제와 더불어 신중3일기도를 회향하고 정월대보름 맞이 방생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에는 300여 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화엄사, 화엄문도 합동추모다례·부도탑 제막

2월 25일 경내 각황정 · 부도전

부토탑 1기에 30명 봉안 가능


동참자들이 '화엄문도 부도탑'을 제막하고 있다.

조계종 제19교구본사 지리산 화엄사(주지 덕문 스님)가 2월 25일 경내 각황전과 부도전에서 '불기 2568년 갑진년 지리산 화엄사 화엄문도 합동추모다례재 및 화엄문도 부도탑 제막식'을 봉행했다.

이날 각황전에서 열린 다례재에는 화엄문도회 문장 종국 스님과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 부주지 우석 스님, 선등선원장 본해 스님을 비롯해 화엄문도스님들과 장길선 화엄사신도회장 등 사부대중 100여 명이 동참했다.

화엄문도회 문장 종국 스님은 "화엄사가 있기까지 많은 선대 스님들의 노력과 정진으로 오늘에 이르렀다"며 "앞으로도 문도스님들과 소통을 통해 화엄사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정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덕문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많은 어른스님들이 입적하셨는데, 올해에는 모든 문도스님들이 건강하시길 기원한다"며 "화엄문도의 원력을 모아 오늘 문도 부도탑을 제막하고, 올해 안으로 가마형 화장막을 조성해 모든 문도스님의 장례를 여법하게 치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화엄문도 최초로 정광고 교장 소임을 맡은 영일 스님은 "정광학원은 호남 5대 교구 본사가 1946년 재산을 출연해 설립한 불교종립학교로, 광주에서 가장 큰 학생 규모를 자랑하는 사학 명문이다"며 "화엄사 문도라는 자부심을 갖고, 교법사 20년 생활을 회향하는 마음으로 선배스님들이 만드신 학교를 발전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영일 스님은 화엄사에 승려복지기금 1000만원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어 동참자들은 화엄사 부도전으로 자리를 옮겨 '화엄문도 부도탑'을 제막했다. 부도탑은 1기에 30명을 봉안할 수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백양사 불교대학 개교…장성지역 포교 나선다

3월 5일 개강…학생 모집 중

무공 스님 "교육 · 포교 매진"



전남 장성지역 불교 포교를 위한 첫 불교대학이 개설된다.

조계종 제18교구본사 백양사(주지 무공 스님)는 그동안 불교 교육기관이 없었던 전남 장성지역에 '백양사 불교대학'를 개원하고 첫 신입생을 모집한다.

첫 학장에 취임하는 백양사 주지 무공 스님〈사진〉은 "지난 4년간 문도스님들의 화합을 통해 옛 백양사의 모습을 복원하고자 노력했다"며 "그동안 코로나19 사태로 미비했던 불교교육과 포교사업에 매진할 예정이다"라고 불교대학 개원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어 무공 스님은 "지역 거점의 포교 공간으로 백양사 불교대학이 명품 불교대학이 될 수 있도록 최고의 강사진을 구성하고 있다"고 포부를 밝혔다. 특히 차별성에 대해 "명상과 선 수행에 주안점을 두고 향후 졸업자들을 위해 불교명상대학원을 개설해 심화된 공부를 이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백양사 불교대학의 교육내용은 1학기 부처님의 생애, 불교입문 2학기 명상 실습, 천수경, 반야심경 강의를 구성했다. 별도 강의로 입학생에게는 무료로 템플스테이와 성지순례, 특강, 봉사활동을 진행한다.

한편 백양사 불교대학은 3월 5일 오후 2시 장성 상무대 영외법당인 명상원에서 개원식과 입학식을 진행했다. 강의는 1년 과정으로 매주 화요일 오후 7시부터 2시간 진행되며, 강사로 지현 스님(수록사 주지), 여일 스님(상무대 군법사)이 담당하며 만민스님, 정궁 스님, 선묵 스님이 특별강사로 나선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울산불교사암聯, 정월대보름 방생법회 봉행

태화국가정원 잔디정원서

장어 치어 2500마리 방생



울산불교사암연합회(회장 혜원 스님)이 갑진년 정월대보름을 맞아 2월 24일 울산 태화국가정원 삼호지구 잔디원 특설무대에서 정월대보름 합동방생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울산의 발전과 주민화합을 위해 마련된 이날 법회는 조계종울산불교사암연합회와 울산 삼호동 청년회, 삼호동 체육회가 공동 주최·주관하고 울산광역시 남구, 울산불교종단연합회가 후원했다.

울산불교사암연합회장 혜원 스님은 "방생이라는 것은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주는 의식으로 적극적인 선업의 행위"라며 "생명을 가진 모든 중생뿐 아니라 원수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을 기꺼이 용서해 주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는 것이 진정한 방생의 의미"라고 말했다.

서동욱 울산남구청장은 "방생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해 가는 과정은 굉장히 의미 있고, 울산시가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방생의 공덕으로 우리 모두 함께 행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방생법회에서는 울산 태화강 생태계에 적합한 장어 치어 2500마리가 방생됐다. 이어 참석대중은 달집태우기 행사장으로 이동해 달집을 태우며 올 한 해 모든 액운을 소멸하고 복이 가득하길 기원했다.

이날 행사장 주변에는 소망지 쓰기, 어묵·떡·차 등 먹거리 부스가 마련됐다. 태화강변에서는 삼호동 체육회와 청년회가 주관하는 연날리기, 강강술래, 풍물패공연, 윷놀이, 제기차기, 지신밟기, 줄다리기 등 민속놀이가 진행됐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자기희생 아는 군인 돼 달라"

해군사관학교 호국사 졸업 · 임관 축하법회



해군사관학교 78기 졸업 및 임관 축하법회가 봉행됐다.〈사진〉

진해 해군사관학교 진해 호국사(주지 영우 스님)는 2월 28일 학내 호국사 법당에서 78기 졸업 및 임관 생도들을 축하하는 법회를 봉행했다.

군종특별교구장 법원 스님은 총무국장 혜징 스님이 대독한 격려사를 통해 "해군은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끈 민족의 성웅 충무공의 후예로서 호법신장과 같은 막중한 임무를 완수하여 왔다"며 "조국의 대해를 가로지르는 담대함을 가지고 자랑스러운 해군 해병대 장교로서의 첫 발걸음을 내딛는 여러분께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항상 함께하시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안국선원장 수불 스님은 법문을 통해 "종교는 진리를 향해 가는 수단이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부처님께서 모두가 행복해길 바랐던 것처럼 자기 희생을 통해 국가와 민족을 지키는 훌륭한 군인으로 원대한 포부를 성취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법회에서는 모범 생도를 축하하는 시상식도 이어졌다. 고준혁 생도가 총무원장상, 이여경 생도가 포교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진각종 통리원장 표창, 군종교구장 표창, 모범불자상 수상, 장학증서 전달도 이어졌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고창 선운사 총신도회장 이취임법회

정찬원 회장 등에 임명장 수여



고창 선운사(주지 경우 스님) 총신도회 임종혁 전임회장과 신임 정창원 회장 이취임법회가 2월 24일 경내 대웅보전에서 봉행됐다.〈사진〉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은 "2년 동안 묵묵히 신도회를 이끌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신 임종혁 전임회장님 덕분에 큰 힘이 됐다"며 "정찬원 신임회장님은 여러 신도의 뜻을 하나로 규합해 선운사와 교구를 넘어 한국불교 발전을 위해 전심전력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정찬원 신임회장은 "선운사 신도회는 종단을 외호하고 불교문화를 수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행하고 전하는데 신도회의 역량과 조직을 강화하고 불자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화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날 퇴임하는 임종혁 전임회장은 선운사 전주포교당 건립성금 1200만원을 기탁했다. 또 신임 정찬원 회장은 삼세불 탱화 조성기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창녕 관룡사 불교대학 6기 졸업식

66명 졸업, 포교사 8명 배출



창녕 관룡사 불교대학(학장 정안스님)이 2월 24일 관룡사 대웅보전에서 6기 불교대학 졸업식을 봉행했다.〈사진〉 이날 졸업한 66명은 조계종 '부동' 신도품계와 졸업장을 받았다. 졸업생 8명은 포교사 고시에 응시해 전원 합격하는 영광을 얻었다.

학장 정안 스님은 "지난 1년 동안 여러분들 덕분에 너무 행복했다"며 "관룡사 불교대학이 최고의 불교대학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정각사, 정월대보름 달집태우기

2월 24일 무공 스님 초청 법문



익산 정각사(주지 일행 스님)가 2월 24일 익산시민과 함께하는 정월대보름 '해는 지고 달을 품다'를 개최했다.〈사진〉

달집태우기에 앞서 경내 극락보전에서 조계종 18교구 백양사 주지 무공 스님 초청법회도 열렸다. 법회를 마친 대중들은 달집태우기 행사장으로 이동해 각자의 소망과 바람을 적은 소원지를 태우며 익산시의 번영과 정각사의 발전과 마을의 평화를 기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부안 내소사 석포리 당산제 개최

사찰 · 마을 안녕 기원



부안 내소사(주지 진성 스님)와 석포리 당산제 보존위원회(회장 박병우)가 2월 23일 경내 마당과 일주문 앞에서 '석포리 당산제'를 개최했다.〈사진〉 행사에는 내소사 주변의 입암마을 등 5개 마을 주민과 불자들이 동참했다.

내소사 주지 진성 스님은 "당산제는 사찰과 마을 주민들 화합하며 살아가기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대승 가르침 따라 불성의 꽃 피우자”

신뇨엔, 2월 28일 월례 법전공
다치카와시 총본산 응현원서
20개국 100여 사원 영상중계
‘지혜 불’로 번뇌 태우는 호마
원주 이토 신소가 의식 집전


신뇨엔 용산 서울정사에서 신도들이 법전공 의식에 동참하는 모습.


신뇨엔 원주 이토 신소가 총본산 응현원에서 호마의식을 집전하고 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일본 재가불교 종파인 신뇨엔이 법전공 의식을 올리며 대승의 가르침을 따라 정진할 것을 다짐했다.

종교법인 신뇨엔(원주 이토 신소)은 2월 28일 일본 도쿄도 다치카와시 신뇨엔 총본산 응현원에서 월례 법전공(法前供)을 봉행했다. 법전공은 매달 28일 부동명왕을 본존으로 호마의식을 올리는 법요다. 신뇨엔은 구원상주 석가모니여래, 십일면관세음보살, 열반법신 대성부동명왕을 삼륜신(三輪身)으로 모신다. 이 중에서 부동명왕은 불교에 귀의하지 않는 고집 센 중생을 귀의시키기 위해 엄한 모습으로 변화한 부처님으로 전한다.

또한 신뇨엔의 주요 의식인 호마(護摩)는 밀교에서 화로를 놓고 유목(乳木)을 태워 부처에게 비는 일로, 지혜의 불로 중생의 번뇌를 태워 없앤다는 의미를 갖는다. 항공엔지니어였던 신뇨엔 개조 이토 신죠(1906~1989)가 1936년 진언종으로 출가해 진언밀교의 법을 이어받고, 승려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바르게 수행할 수 있는 길을 목표로 수행법을 개발했기 때문에 신뇨엔은 밀교 의식을 따른다.

이날 법전공은 전 세계 약 20개 국가 100곳이 넘는 신뇨엔 사원에 영상으로 중계됐다. 신뇨엔 원주 이토 신소가 직접 호마의식을 집전하며 사부대중과 함께 번뇌 소멸을 기원했다. 한국지부에 속하는 용산 서울정사와 부산정사, 창원포교소, 제주포교소에서도 신도들이 각 법당에서 의식에 동참해 부처님 가르침에 감사하고 소원성취를 발원했다.

의식을 마친 뒤에는 개조 이토 신죠가 남긴 1963년 6월 28일자 법전공 법문을 되새겼다. 당시 이토 신죠는 법전공과 호마에 대해 “단순히 인간적으로 그냥 불을 피우는 것이 아니다. 단 위에 여러 공양물을 올리지만 부처님께 올리는 것은 아니다”며 “항상 영계에서 커다란 힘을 보이고 움직여 주시는 호법의 신들, 이분들께 공양을 올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토 신죠는 이어 “신뇨엔에서는 부처님을 중심으로 호법의 신들이 움직이고 있다. 이 신들은 공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바라지 않아도 여러분을 지켜주는 것”이라며 “접심수행(신뇨엔 수행법)과 대승의 정진을 함으로써 상락아정의 세계로 들어가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한편 신뇨엔은 1936년에 생겨난 일본불교 교단이다. 서른 살에 일대 결심을 하고 출가해 교토 제호사에서 수행을 마친 승려 이토 신죠에 의해 창시됐다. 현재는 후계자인 이토 신소가 가르침을 이어 지도하고 있다. 부처님의 유언을 집대성한 〈대반열반경〉을 소의경전으로 하며, 출가수행자뿐만 아닌 재가자를 포함해 모두의 마음의 불성을 꽃피우겠다는 목표 아래 재가교단으로 출발했다.

泰, 부처님 骨사리 친견법회 봉행

사리불 · 목건련 존자 사리 함께 최초 친견 전시

석가모니 부처님의 골(骨)사리 친견 전시가 열린다. 최초로 부처님과 상수제자 두 분의 사리가 함께 전시돼 태국 불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월 23일 태국 일간지 ‘카오소드’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골(骨)사리 친견법회 봉행 소식을 전했다.

골사리 친견법회는 방콕의 사남루앙 광장에서 봉행된다. 이번 친견 전시는 최초로 부처님 상수제자 사리불과 목건련 존자의 사리가 함께 대중에 공개된다. 부처님 골사리는 인도의 대외 문화 교류 ‘룩이스트’ 정책 일환으로 태국에 이운되었으며 뉴델리 국립박물관 소장 유물이다

친견 전시는 태국 4개 지역(방콕, 치앙마이, 우본랏차타니, 크라비)을 순회하며 3월 5일부터 8일까지 치앙마이, 3월 10일부터 13일까지 우본란차타니, 3월 15일부터 18일까지 끄라비에 친견 순회 전시가 예정되어 있다.


석가모니 부처님 골사리(가운데)와 사리불, 목건련 존자의 사리. 사진출처=카오 소드

헤나게시 싱 태국 주재 인도 대사는 “태국으로 이운된 부처님의 골사리는 국외로 반출된 역사가 없다”면서 “골사리를 직접 친견할 수 있는 희귀하고 놀라운 기회가 이곳에 있다. 이번 교류로 양국에 축복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태국 문화부 장관은 태국에 신성한 유물을 전시할 기회를 준 인도 정부에 감사를 표하며 “인도가 인류를 위한 부처님의 진리를 전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민재 객원기자

中, 쓰촨성 댐 건설 반대 시위…티베트인 100여 명 구금

13세기 고대 벽화 품은 왕퇴사 수몰 예정
강경 진압으로 시위대 일부 입원
무소불위 권력… 강도 높은 비판

중국 쓰촨성에서 지역 주민들이 댐 건설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여 티베트인 100여 명이 구금됐다. 시위대 중 티베트 스님이 포함되어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월 25일 홍콩의 ‘자유아시아 방송’은 중국 쓰촨성 지역 주민들이 댐 건설 반대 시위를 벌이다 승려를 포함한 티베트인 100여 명 구금 소식을 보도했다.

중국 쓰촨성 티베트 자치구 더거현 시청 앞에서 1만3920메가와트급 수력발전 댐 건설을 둘러싼 300여 티베트인들의 시위가 벌어졌다. 수력발전소가 들어설 예정인 지역은 티베트 자치구와 인접한 쓰촨성 서북부 지역으로 많은 티베트인이 거주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특수 훈련을 받은 무장 경찰을 배치해 물대포와 후추 스프레이, 테이저건 등을 사용해 시위대를 강경 진압하고 체포했다. 티베트 스님을 포함한 티베트인 100여 명이 구금되었으며 체포된 시위대 중 일부는 강경 진압으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위 이후 중국 정부는 모든 주요 도로를 폐쇄하고 인근 지역 마을과 사원의 인터넷 접속을 제한하는 강경한 조치를 취했다.

류펑위 워싱턴 주재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시위대 강경 진압과 체포 사실은 인지하지 못했다. 중국은 법치국가이다. 중국 법에 따라 자국민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며 강경 진압 및 체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무장 경찰의 진압으로 쓰러지는 티베트 스님을 부축하기 위해 시위대가 다가가고 있다. 사진출처=모던 도쿄 타임즈

강투오 수력발전 댐 수몰 지역에는 왕퇴사(汪堆寺), 은남사(银南寺), 강다사(康多寺) 등 6개의 불교 사원과 2개의 마을이 포함되어 있다. 이중 왕퇴사는 13세기 고대 벽화와 문화대혁명 시기에 파괴되었던 사원을 지역 주민들이 1983년에 재건해 문화·종교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 장소이다. 현재 300여 명의 티베트 스님이 거주하고 있다. 수몰 예정지에 포함된 두 마을에는 약 2000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댐 사업으로 인해 강제 이주 예정이다.

모던 도쿄 타임즈의 리 제이 워커 분석가는 “6개의 불교 사원이 강투오 수력발전 댐으로 인해 위협을 받고 있다. 이는 단순히 수몰의 아픔이 아니라 중국 공산당의 무소불위 권력 행사로 티베트인에 대한 공산당의 무차별적인 무력과 공포 정치가 이를 뒷받침한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김민재 객원기자

호프 보살 보리사에 10만불 보시한 사연

아미타 빌리지 건립 발원
어머니 기리는 마음 더해


왼쪽부터 형전 스님, 권호프 보살.

미국에 거주하는 신심 깊은 불자 호프 보살이 라스베이거스에 아미타 빌리지 건립을 발원하며 10만불(한화 1억3290만원)을 보시해 훈훈함을 자아내고 있다. 조계종 해외특별교구는 “호프 보살은 2월 17일 라스베이거스 보리사 주지 형전 스님을 만나 아미타 빌리지 건설 기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호프 보살의 아미타 빌리지 건설은 이민자의 삶 속에서 오는 다양한 고민에서 비롯됐다. 라스베이거스에서 자영업을 하던 호프 보살은 2019년 코로나19가 극심할 때 보리사와 인연을 맺었다.

그러던 어느 날, 보리사 신도들이 사찰에 모여 고향에 대한 향수와 이민자 삶의 외로움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논의했고, 그 결과 다 함께 모여 살며 서로에 도움을 주는 아미타 빌리지 건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이야기만 나눴던 아미타 빌리지 건립을 수면 위로 부상시킨 것이 호프 보살의 원력이었다. 지난해 고인이 된 99세의 어머니를 기리는 마음으로 ‘아미타 빌지리 건립’ 불사에 선뜻 보시금을 낸 것이다.

미주 한국불교에서 불자들이 함께 모여 살기 위해 마을을 건설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형전 스님은 보리사 가까운 곳에 땅을 매입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

보리사 주지 형전 스님은 “불제자가 한 가족이 돼 한국 불교문화를 알리고, 이민자들을 위한 안락정토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호프 보살은 “제가 먼저 시작했지만, 이것을 보고 더 많은 불자가 동참해 우리들의 염원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많은 관심을 부탁했다.

김내영 기자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법당 전선시공 전문
승하강 장치시공(신형)



공단연등(고리용)
노랑(오렌지) 진분홍 백색 연분홍 금색

제등행렬용품
일자A형 S형 T분리형 LED바A형 LED홀더B형 건전지 초

전선간격
22㎝, 25㎝, 28㎝, 30㎝, 40㎝, 50㎝,
1m, 2m, 3m, 5m, 8m, 10m, 기타주문

LED태양광 솔라 (국산정품)

LED전구 국산인증 (정품)
고추구 12E 인지구 26E

도량(만월등)조립식 프레임(간편한 설치 및 높낮이 조절)




정직과 신뢰의 불자기업
불제 대원 산업
BULJE DAEWON CO.LTD
안전인증 ISO9001 ISO1400 특허청

구입문의 031)986-0277~8, 02)2266-2634
032)582-6235~6, 02)2263-2638
문의핸드폰 010-3630-7092
본사 · 공장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모산로 17-1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2/28~3/5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요가디피카(아헹가요가시리즈1)육체의 한계를 넘어	아헹가/현천 역	선요가	6	화엄경을 머금은 법성게의 보배구슬	김성철	오타쿠
2	불교명상입문:현대인을 위한 불교명상 수행의 이해와 접근	강명희	담앤북스	7	입보리행론강해(1) 대승불법의 정수팔만사천법문의심요	샨티데바 게송 /진메이펑훼 강설	운주사
3	어싱:땅과의 접촉이 치유한다	클린턴 오버/김연주	히어나우시스템	8	신심명 강설(총무원장 진우스님의)	진우스님	불교신문사
4	보리도차제광론2(나란다불교학술원총서2)	쫑카파	도서출판나란다	9	원빈스님의 금강경에 물들다	원빈스님 강설	이층버스
5	한글아함경	고익진 엮음	담마아카데미	10	중관학 특강:색즉시공의 논리	김성철	오타쿠

책세상

“깨닫고자 한다면 분별심을 버려라”



총무원장 진우스님의 신심명 강설
진우 스님 지음
불교신문사/ 2만8000원



일흔셋 시문으로 구성된 ‘신심명’
다양한 비유 · 사례들 들며 풀어
스님 강설 곳곳 ‘인생 팁’ 눈길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중국 선종 제3조 승찬 대사의 〈신심명〉은 발심부터 성불까지 우리가 가져야 할 신심에 관해 지극한 마음으로 남긴 사언절구의 146구 584자 게송이다. 일흔셋 시문으로 구성된 신심명은 선(禪)의 진면목, 중도(中道)의 요체가 간명하게 담겼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갑진년 새해를 맞아 〈신심명 강설〉을 펴낸 이유는 명징하다. 분별된 마음으로는 극락과 지옥, 배부름과 배고픔의 윤회를 계속 반복하니어서 대중들이 분별심이 사라진 선의 마음을 가져 자유로워지길 바라서다.

진우 스님은 분별심을 버리고 방하착하는 삶으로 가기 위한 다양한 사례와 방편을 예로 들고 세심하고 담백하며 유쾌·통쾌한 강설로 선의 궁극 중도의 길을 적확하게 제시한다. 이는 우리가 여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인생 팁’이기도 하다.

〈신심명 강설〉을 통해 진우 스님이 강조하는 것은 ‘분별심을 내려놓아라’다. 어떻게 하면 출세하고 남보다 돈을 많이 벌며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서 나를 돋보이게 할 것인가. 건강과 장수, 내 자식 잘 살도록 잘 기르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를 달성하려면 욕심을 부려야 한다. 내 것을 빼앗기지 않고 방어하려면 명예도 세워야 하고 끊임없이 시시비비해야 하며 필요하면 남을 속이고 싸움도 마다하지 않게 된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인과의 작용을 피할 수 없는 법. 인과는 분별심에서 나오는 것으로 고락(苦樂)의 과보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진우 스님은 “부처님께서 45년간 장광설을 〈화엄경〉 〈금강경〉 〈아함경〉 〈법화경〉 〈열반경〉의 오교시를 통해 중생에게 깨우침을 가르쳤으나 이 모든 내용을 한 마디로 압축한다면 결국 분별심을 갖지 말라는 것”이라며 “분별은 인과를 낳고 인과는 윤회를 낳는다”고 거듭 강조한다.

“부모 자식이나 가족 친지 친구 이웃 민족 등의 인간관계에 있어 정(情)이란 바로 나의 감정을 좋게 하기 위한 대상들에 불과합니다. 부모는 부모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가족은 가족대로 고락의 업은 스스로 각자가 자업자득합니다. 부모는 자식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하겠지만 따지고 보면 부모 자신의 감정을 좋게 하기 위해 자식이라는 대상을 선택했을 뿐입니다.”

진우 스님은 “어떻든 감정을 가진 중생은 감정의 프레임에 걸려서 다람쥐 쳇바퀴 돌 듯 생로병사와 희로애락을 반복하여 거듭할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육도(천상, 인간, 수라, 지옥, 아귀, 축생)의 틀에서 벗어나려면 감정 자체를 없앨 수 있는 중도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설한다.

“중도의 길을 가려면 매사에 있어서 감정의 속성을 잊지 말고 감정을 일으키지 않는 연습과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고락의 인과에 대한 철저하고 확고한 믿음, 신심을 가지고 일희일비(一喜一悲)하는 버릇을 고쳐 여여한 마음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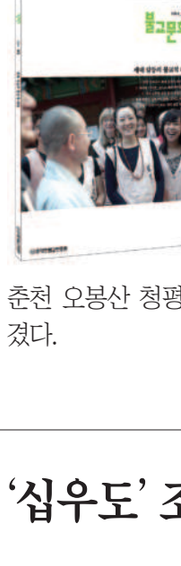
좋은 것을 원하고 바라는 마음마저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 애초 좋고 나쁨을 상정한 것이기에 이마저도 우리는 내려놓아야 한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따로 있기 때문이다.

“제발 좋고 나쁨을 분별하지 말라. 옳고 그름의 시시비비를 분별하지 않으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볼 줄 아는 지혜인이 되어야 합니다. 인과법칙의 속박에서 벗어나야 완전한 자유인이 되어 날마다 좋은 날 즉 일일시호일이 될 것입니다.”

갑진년 새해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우리에게 전하는 값진 당부다.

‘삼보일배’ 수경 스님 특별기고 ‘눈길’

계간 〈불교평론〉 봄호



지난 2010년 조계종 승적과 화계사 주지, 불교환경연대 대표 등 모든 것을 내려놓고 홀연히 떠난 수경 스님이 〈불교평론〉 봄호(통권 제97호)에 특별기고를 해 눈길을 끈다.

새만금을 살리기 위해 전국을 삼보일배로 다니며 한국 환경운동사를 새로 썼던 수경 스님은 ‘욕망을 줄여야 합니다’ 제하의 특별기고를 통해 욕망의 충족에서 행복을 찾으려 하지 말고 자비로운 삶으로 복덕구족을 지향할 것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교평론〉 봄호는 특집으로 ‘불교와 서양철학의 만남’을 기획했다. 이번 특집은 불교적 세계관과 사상을 근현대 서양 철학자들의 통찰과 비교해 서로 어떤 유사성과 연관성을 띠고 있는지 살폈다.

내년 만해 스님의 〈님의 침묵〉 집필 100년을 맞아 〈불교평론〉은 당대의 시대상과 역사성, 그리고 불교사상의 관점에서 재조명하는 특별기획 ‘백 년의 시집 〈님의 침묵〉을 다시 읽는다’를 만해 문학의 권위자인 이선이 경희대 교수의 집필로 마련했다. 불교평론은 “앞으로 4회에 걸친 연재를 통해 필자는 그간의 통념적인 해석을 넘어서는 새로운 인식을 제시해 100년이 지난 ‘님’이 오늘에 생성하는 ‘지금-여기’의 사유를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중일 기자

세대 갈등, 부처님 가르침으로 풀다

월간 〈불교문화〉 3월호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이한구)이 발행하는 불교 대중 문화지인 월간 〈불교문화〉 3월호(통권 제283호)를 발간됐다.

3월호 특집은 ‘세대 갈등의 불교적 해법’으로 세대 차이와 갈등의 원인을 진단하고 불교의 가르침을 통해 세대 갈등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해소 방안을 살폈다.

2024년 상반기 캠페인 ‘마음챙김하면서 걷자’는 이휘재 심신치유센터 ‘숨터’ 대표가 걷기를 통해 몸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다는 중요한 사실을 알게 해주었음을 전했다.

이 밖에도 ‘자현 스님의 비하인드 팔상도, 쌍림열반상도’, ‘불교 발달사, 중국 불교’, ‘사찰에는 재미난 이야기가 숨어 있다, 춘천 오봉산 청평사’ 등 풍성한 읽을거리가 담겼다.

신중일 기자

깨달음의 여정 ‘십우도’ 조명

월간 〈불광〉 3월호



불광미디어가 발행하는 월간지 〈불광〉 3월호(통권 제593호)가 발간됐다. 3월호의 주제는 ‘십우도(十牛圖)’다. 십우도는 마음을 소에 빗대 마음을 찾아가는 과정을 열 장의 그림으로 그린 것으로 심우도(尋牛圖)로 불리기도 한다. 곽암 선사와 보명 선사의 십우도와 십우도송이 각각 전해지는데, 우리나라 사찰벽화에는 주로 곽암 선사의 십우도가 그려져 있다. 보명 선사의 십우도는 목우도(牧牛圖)로 불리기도 한다.

‘월간 불광’ 3월호에는 ‘곽암 선사의 십우도(정운 스님)’, ‘보명 선사의 목우도(윤희조)’, ‘티벳불교의 목상도(차상엽)’ 외에 ‘일본 불교의 십우도(지미령)’, ‘선시 속의 소(동명스님)’, ‘한국화의 소(손태호)’, ‘십우도를 모티브로 활동하는 박그림 작가 인터뷰’ 등이 수록돼 십우도의 다양한 면을 만날 수 있다.

신중일 기자

한류는 이미
천 년 전에 시작되었다!

K-컬처(Culture)의 원조,
강진 비색청자의 숨겨진 이야기

1권
청자의 대부(代父) 해상왕 장보고,
탐진 땅과 바다에 푸른 꿈을 심다!

2권
고려 도공의 독창적인 상상력과 기술력,
천하제일의 비색청자를 완성하다!



정찬주 장편소설
깨달음의 빛, 청자
정찬주 지음
각 권 18,000원
각 권 336쪽

자신만의 고유한 작품세계를 천착해 온
베테랑 소설가 정찬주의 또 한 편의 수작(秀作)

추천의 말

나는 ‘K-컬처’의 뿌리를 알고 싶어 하는 독자들에게 이 책을 권하고 싶다. 뿌리 없는 나무가 어디 있겠는가. 천 년 전 바닷길을 통해 전해진 강진 비색청자가 중국인과 일본인들을 열광시켰던 역사적 사실은 실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_홍기삼(전 동국대 총장, 문학평론가)

홍익인간, 풍류도야말로 유불선(儒佛仙)은 물론 기독교 등 모든 유의미한 사상과 종교를 포괄하는 근원 사상 아니던가. 그런 사상, 마음을 지키고 있는 자만이 청자를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를 계속해 나가며 독자에게 깨달음을 주는 작품이다. _이경철(문학평론가)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www.bulkwang.co.kr | 불광미디어

부처님 일대기 담은 '송광사 팔상도' 국보 된다

문화재청 2월 27일 지정 예고
영산회상도 1폭, 팔상도 8폭
영조代 송광사 영산전 봉안돼
"조선 후기 영산회상도 다양성
팔상도 새로운 전형을 제시해"
남원 대복사 동종 보물 예고도


송광사 영산전 팔상탱 제1 도솔래의상.


송광사 영산전 팔상탱 제2 비람강생상.


송광사 영산전 팔상탱 제3 사문유관상.


송광사 영산전 팔상탱 제4 유성출가상.


송광사 영산전 팔상탱 제5 설산수도상.


송광사 영산전 팔상탱 제6 수하항마상.


송광사 영산전 팔상탱 제7 녹원전법상.


송광사 영산전 팔상탱 제8 쌍림열반상.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석가모니 부처님 일대기를 여덟 장면으로 압축해 묘사한 불화를 '팔상성도'라고 한다. 부처님의 팔상은 불교문화권 전반에 공유된 도상이지만, 구성과 주제, 표현 방식은 나라와 시대별로 차이가 있다.

조선 후기 팔상도를 대표하는 것은 현재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된 순천 송광사의 팔상도다. 이는 호남과 지리산 일대 사찰에 조성된 팔상도에 영향을 줬을 정도로 빼어난 수작으로 평가받는다. 순천 송광사 팔상도와 영산회상도가 국가지정문화재 '국보'로 승격된다.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조선 후기 팔상도를 대표하는 '순천 송광사 영산회상도 및 팔상도'를 국가지정문화유산 국보로 지정 예고하고, 승려 장인 정우의 작품인 '남원 대복사 동종'과 김홍도의 예술세계를 보여주는 '김홍도 필 서원아집도 병풍'을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2003년 보물로 지정됐다가 20여 년 만에 국보로 지정 예고된 '순천 송광사 영산회상도 및 팔상도'는 송광사 영산전에 봉안하기 위해 일괄로 제작한 불화로, 영산회상도 1폭과 팔상도 8폭으로 구성돼 있다.

팔상도는 조선 초기에는 〈월인석보(月印釋譜)〉의 변상도를 차용한 팔상도가 제작되다가 후기에 접어들면서 〈석씨원류응화사적〉에서 제시된 도상으로 새로운 형식의 팔상도가 유행했다. 후기 팔상도를 대표하는 작품이 바로 순천 송광사 팔상도이다.

현재 송광사성보박물관에 수장 중인 '순천 송광사 영산회상도 및 팔상도'는 화기를 통해 1725년(조선 영조 1)이라는 제작 연대와 의겸(義謙) 등 제작 화승을 명확히 알 수 있다. 한 전각에 영산회상도와 팔상도를 일괄로 일시에 조성해 봉안한 가장 이른 시기의 작품으로 확인되며, 팔상도만이 아니라 영산회상도까지 〈석씨원류응화사적〉의 도상을 활용해 하나의 개념 속에 제작된 일괄 불화로서 완전함을 갖추고 있다. 또한 조선 후기 영산회상도의 다양성과 팔상도의 새로운 전형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수화승 의겸의 지휘 하에 영산회상도를 중심으로 팔상도 각 폭이 통일된 필선과 색채를 유지하면서, 수많은 화제로 구성된 팔상의 인물들은 섬세한 필치로 묘사하고, 전각 및 소나무 등을 이용해 공간성만이 아니라 사건에 따른 시공간의 전환을 자연스럽게 처리하는 등 구성과 표현에 있어 예술적 가치도 뛰어나다.

'남원 대복사 동종'은 몸체에 새겨져 있는 주종기를 통해 승장(僧匠) 정우가 신원 등 7명과 함께 1635년(조선 인조 13) 제작했음을 명확히 알 수 있는 동종이다. 동종의 제작을 주도한 정우와 신원은 17세기 전반에 재건 불사가 진행되는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친 승려 주종장(鑄鍾匠)이다. 이들의 초기 작품인 남원 대복사 동종은 종의 어깨 부분을 장식하는 입상연판문대(立狀蓮瓣文帶), 구름을 타고 내려오는 보살입상 등 고려시대 동종 양식을 계승했음을 보여준다.

문화재청은 "불법의 전파와 국가의 융성을 기원하는 원패를 도입한 점 등은 조선 후기라는 시대성과 작자의 개성을 담아낸 부분이라 할 수 있어 학술적 가치가 크다"고 평가했다.

한편, 문화재청은 이번에 국보로 지정 예고된 '순천 송광사 영산회상도 및 팔상도'와 보물로 지정 예고된 2건에 대해 30일간의 예고 기간을 거쳐 국보·보물로 지정할 예정이다.

한국명상심리상담학회, 중독사회 문제 다룬다

11월 16일, 중독 · 명상 학술대회
청소년 중독 · 재활치료 등 다뤄
봉축 음악회 · 영상관법 강연도

중독과 우울이 21세기 화두로 떠오르면서 한국적 수행법인 명상이 중독 회복을 도울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사)한국명상심리상담학회(학회장 손강숙)가 중독과 우울, 명상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갖는다.

한국명상심리상담학회는 11월 16일 오후 1시부터 ㈜청호불교문화원 4층 세미나실에서 '21세기 중독과 우울, 그리고 긍정적 중독으로서의 명상'을 주제로 추계정기학술대회를 갖는다.

학술대회에서는 동방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이자 한국명상심리상담학회 이사장 인경 스님이 '중독과 명상'을 주제로 기조강연한다. 이어 △대학생의 중독 실태와 중독 프로그램(안세윤 건양대 교수) △청소년의 중독과 학교 명상 프로그램(김진섭 영복중 전문상담교사) △병원에서의 중독과 재활치료 프로그램(문일수 동국대 의대 교수) 발제가 이어진다.

손강숙 학회장은 "이번 세미나는 중독 문제를 명상을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마련됐다"면서 "청소년과 대학생 대상 중독의 실태와 그 대처 방안으로서의 명상기반 프로그램을 살펴보고 병원에서 중독 회복회자들을 대상으로 한 명상기반 재활치료 프로그램 등을 알아보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명상심리상담학회는 올 한 해 다양한 사업들을 펼친다.

4월 18일 대만 불광산사에서 '한국·대만의 전통적인 불교 명상상담과 서구의 명상상담의 융합'을 주제로 춘·추계정기학술발표회를 개최한다. △간화선과 명상상담(인경 스님) △무문관 수행과 상담(금강 스님) △대만불교와 불교 전통명상(대만 불광산사 선원장 스님) △〈잡아함경〉의 첨병 명상 사례(정지명 대만 보인대 교수)가 발표된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4월 15일 오후 7시 30분 서울 동국대 중강당에서 봉축 음악회를 개최한다. 김준희 피아니스트와 함께하는 렉처콘서트로 클래식 음악연주 후 강연이 이어진다.

6월 14일에는 조계종 제4교구본사 월정사 법륜전에서 '나를 찾아 떠나는 선재길'을 주제로 '성지순례명상의 이론과 실제' 학술세미나가 개최된다. 6월 22일, 7월 27일, 8월 24일 3차례에 걸쳐 인경 스님 출판기념회 및 영상관법 강연도 열 예정이다.

2023년에 이어 올해에도 전문상담서비스지원법 법제화를 위한 활동도 펼친다. 이필원 상임이사는 "전국 상담관련 분야 단체들의 합의를 이끌어 한 목소리로 온 국민 마음건강을 위한 전문상담서비스 법안 제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은호 기자

대행 선사 '한마음사상' 치유철학으로 조명한다

대행선연구원 3월 16일 제18회 계절발표회

'한마음 주인공 관법'이라는 생활선 수행으로 중생교화에 힘쓴 묘공당 대행 선사(1927~2012)의 한마음 사상을 치유철학의 관점으로 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마음선원(이사장 혜수 스님) 부설 대행선연구원(원장 혜선 스님)은 3월 16일 오후 1시 30분 한마음선원 안양본원 3층에서 제18회 계절발표회를 개최한다.

2024년 봄을 맞아 개최하는 이번 발표회에서는 윤종갑 동아대 교수를 좌장으로 주제발표가 진행된다.

김성옥·이관수 동국대 다르마칼리지 교수는 '자타의 구별 없는 한마음의 이해'를 통해 '한마음'을 설명할 때 등장하는 '너와 나의 구분 없는 마음'을 조명한다. 이들은 사람을 비롯한 여러 생명체들의 마음이 독립적인 단일체일 수 없다는 과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나의 마음은 항상 다른 마음의 영향을 주고받으며 변화하는 것이어서 자타의 구분이 없는 것임을 소개한다. 논평은 안환기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교수와 오진영 대행선연구원 연구원이 맡았다.

지혜경 연세대 철학연구소 전문연구원은 '치유철학으로서의 한마음 사상 연구'를 발표한다. 지혜경 전문연구원은 대행 선사가 불교의 마음 담론과 일심 개념을 '한마음'과 '주인공'이라는 두 가지 핵심 개념으로 설명하는 '한마음 사상'을 정립했음을 전제하고 이를 치유철학의 관점에서 정리했다. 발표의 논평은 이병욱 보조사상연구원장과 최원섭 대행선연구원 연구원이 진행한다.

이와 함께 2023년부터 시작한 한마음선원 지원 소개에서는 제주지원장 혜묘 스님이 제주지원 도량 현황과 불사 과정을 소개할 예정이다.

대행선연구원은 "대행 선사의 사상과 불교 사상을 집중 조명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 학술대회와 더불어 연간 네 차례에 걸쳐 계절발표회를 개최하고 있다"면서 "불교학 관련 전공자들이 다양한 주제로 발표하고 토론하는 이번 발표회에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계절발표회에는 한마음선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된다. 발표 자료집도 대행선연구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신중일 기자



'종교학 박사' 스님이 본 불교·기독교의 면면들

서강대 외래교수 홍진 스님
불교평론 열린논단서 발제

불교평론이 주관하는 열린논단에서 '기독교'를 공부한 스님이 발제해 눈길을 끌었다. 불교평론은 경희대 비폭력연구소와 공동으로 2월 22일 불교평론 세미나실에서 117회 열린논단을 개최했다.〈사진〉 이번 열린논단은 '종교학 박사님이 공부한 기독교'를 주제로 서강대 종교학과 외래교수 홍진 스님이 발제했다.

홍진 스님은 "비교종교학 학위를 취득하긴 했지만 특정 종교 입장에서 이기를 따지는 비교종교학보다는 종교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종교현상학에 입각해 기독교를 바라봤다"고 운을 뗐다. 이어 스님은 개괄적인 기독교의 역사를 설명하며 불교와 기독교의 공통점을 짚었다. 오직 유대민족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유대교의 선민사상에서 벗어나 누구나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기독교는 불교와 마찬가지로 보편적 종교로서 탄생했다는 것이다. 스님은 "붓다도 카스트제도를 거부하고 누구나 수행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했다"고 부연했다.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다는 기독교 교리의 핵심으로 '사랑'을 꼽은 스님은 "인간이 만드는 종교는 곧 휴머니즘"이라며 기독교와 불교 모두 인간의 본질을 사랑으로 보는 휴머니즘이라 설명했다.

홍진 스님은 기독교의 케노시스와 불교의 무아(無我)를 주목하기도 했다. 불교에서 사람이 탐진치 삼독으로 가득 차 있듯 기독교에서도 사람은 자신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있는데 이러한 생각을 버리고 신의 뜻을 채워넣는 것이 바로 케노시스이다. 스님은 "자아를 비우고 하느님의 뜻을 수용한 후 타인에게 사랑을 베푸는 '저잣거리 단계'는 입전수수(入廛垂手)와 같은 맥락"이라며 "자기희생의 가치는 기독교도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이민우 수습기자

영국·프랑스 요리사 '사찰음식' 매료되다

불교문화사업단, 2월 20~24일
런던 · 파리 '르꼬르동블루'서 강의

세계적인 조리교육기관 '르꼬르동블루'에서 한국 사찰음식 강의가 이뤄졌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원명 스님, 이하 문화사업단)은 2월 20~21일 주영국한국문화원과 협력해 르꼬르동블루 런던 캠퍼스에서 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사찰음식을 강의했다.

프로그램은 채식 전문 과정과 일반 대상 특강으로 나눠 온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특히 일반인 대상 특강에는 당초 60명 정원을 훌쩍 넘긴 100명 이상의 참가자가 신청해 한국 사찰음식에 대한 호응과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르꼬르동블루 파리캠퍼스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사찰음식 강의가 열리고 있다.

강사로 나선 사찰음식전문가 법송스님은 강의에서 사찰음식에 담긴 기본 철학부터 다양한 조리법을 포함, 이색적이면서도 영양가 높은 채식 요리를 소개했다. 20일 열린 채식 전문과정 강의에서는 연근구이, 서리태죽, 생강고추장볶음을, 21일 일반 특강에서는 우엉콩전, 톳조림주먹밥, 무들깨탕을 시연했다.

2월 23~24일에는 르꼬르동블루 파리 본교 캠퍼스로 이동해 채식전문과정 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사찰음식 강의가 열렸다. 총 16명이 참여한 전문가 대상 채식 강의에서는 겨울콩나물김밥, 매생이수제비, 미역당면무침을 선보였고, 총 75명이 참가한 일반인 대상 특강에서는 고구마찹쌀전, 무조림, 사찰김밥을 시연했다.

문화사업단은 2019년부터 르꼬르동블루 런던 캠퍼스와 업무협약을 맺고 매년 2회(상반기 3월, 하반기 8월)씩 사찰음식 강좌를 열고 있다. 2022년부터는 본교인 파리 캠퍼스까지 확대·진행 중이다.

문화사업단은 "르꼬르동블루에서 진행된 특별 강의는 현지에서 한국 사찰음식의 국제적 인지도를 높이고,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식생활 문화를 전파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김내영 기자

갤러리 한옥, 박근덕 작가 개인전

울산 반구대 암각화에 그려진 고래를 전통 단청 문양으로 표현하면 어떤 모습일까.

서울 종로 갤러리 한옥은 3월 5~13일 전통 단창 기술자인 박근덕 작가 전시회를 개최한다. '古來로부터'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서는 울산 반구대 암각화에 새겨진 고래들을 모티브로 전통 단청 문양으로 표현된 작품들이 전시된다.

박근덕 작가는 "이번 전시는 울산 반구대 암각화에 새겨진 고래들이 모티브가 됐다. 시간의 기억으로 새겨진 선사시대 고래와 선사시대부터 지금까지 변천되어 이어져 온 문양이 하나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중일 기자

지상백고좌

조계종 명예원로의원 여산 암도 대종사

“몸·마음·숨 건강히…그럼 ‘참사람’됩니다”



암도 대종사는… 1939년 전남 고창군에서 출생해 제18교구본사 백양사로 출가해 출가본사 주지를 역임했으며, 대한불교조계종 감찰국장, 교무국장, 교무부장, 총무부장, 교육부장, 총무원 부원장, 포교원장, 교육원장 등 주요 소임을 맡아 종단 안정화에 기여했다. 스님은 서른 살이 넘은 세납에 동국대학교 불교학과에 진학해 졸업한 뒤 동대학원에서 석사,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동국대와 증앙승가대 강사로서 후학을 지도한 뒤 중앙승가대 교수를 역임했다. 특히 스님은 조계종 중앙상임포교사로서 전법교화를 위해 전국을 누비면서 설법에 앞장섰다.
조계종단의 행정의 기틀을 다진 공로를 인정받아 조계종 종정의 표창을 받았고, 경찰대학교 중앙경승으로서 활동한 공로를 인정받아 경찰대학교 학장 표창을 받았고, 1986년 대한민국 사회의 통합에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훈장 석류장을 수상했다. 2011년 조계종 최고 법계인 대종사 법계를 품수했으며, 조계종 원로의원을 역임했다. 현재 전남 담양에 창건한 마하무량사에 주석하면서 수행하고 있다.

조계종 명예원로의원 여산 암도 대종사가 주석하는 마하무량사는 전남 담양에 소재해 있다. 마하무량사 인근에는 16만㎡의 대나무 숲이 펼쳐져 있는 죽녹원이 있다.

대나무는 사철 내내 푸르고 곧게 자라는 까닭에 사군자 중 하나로 칭송받아왔다.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지조를 지닌 까닭에 수행자의 표상이라고 할 수 있다. 〈시경(詩經)〉에 이르길, “푸른 대나무가 청초하고 무성하니 고아한 군자가 바로 거기 있다”고 했다. 암도 스님이 담양에 마하무량사를 창건한 뒤 주석하고 있는 것도 우연만은 아닐 것이다. 이 시대의 부루나 존자로 칭송받고 있으니, 암도 스님의 법문은 ‘낮에는 둘이었다가 밤에는 하나로 합쳐지는 신기한 대나무’를 베어서 만들었다는 ‘만파식적’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2월 26일 하오에 마하무량사에서 암도 스님을 친견했다. 경칩을 앞둔 절기여서 따뜻한 햇볕이 내리쬐는 가운데 선선한 바람이 불어서 사찰의 배경이 되고 있는 대나무 숲을 흔들었다. 큰법당(대웅전)에 가서 부처님 전에 삼배를 올리고 내려오니 암도 스님이 경내에 나와 계셨다.

“법당에는 들렀습니까?”

“네.”

스님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말했다.

“잘했소. 절의 주인은 부처님이니 부처님께 가장 먼저 인사를 드려야지요.”

암도 스님을 따라서 들어간 주석처에는 서옹 스님의 붓글씨가 걸려 있었다. 일필휘지(一筆揮之)의 글귀는 ‘수처작주(隨處作主)’였다. ‘이르는 곳마다 주인이 되라’는 의미였다.

“서옹 큰스님의 글씨네요. 임제 선사의 가르침을 쓰셨군요.”

필자의 말에 차를 우려내시던 암도 스님의 두 눈이 밝게 빛났다.

“내가 백양사에 출가했을 때 서옹 스님께서 주지를 맡고 계셨죠. 그런데 만암 종정스님의 49재를 마치자마자 서옹 스님이 은해사로 갔습니다. 비구승단에 합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서옹 스님께서 계속 백양사에 주석하고 계셨다면 나는 서옹 스님의 상좌가 되었을 것입니다. 유 작가의 말을 듣고서 이심전심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내가 참사람에 대해 얘기를 하려고 했거든요. 서옹 스님께서 역설하신 참사람은 임제 선사의 무위진인(無位眞人)과 다르지 않습니다. 참사람은 인생의 주인공인 것입니다.”

말을 마친 뒤 스님은 찻잔에 차를 따랐다. 스님과 필자는 말없이 차를 마셨다. 찻잔을 행주로 닦은 뒤 스님이 입을 뗐다.

“청산은 나를 보고 말 없이 살라하고, 창공은 나를 보고 티 없이 살라하네. 욕심도 벗어놓고 성냄도 벗어놓고, 물같이 바람같이 살다가 가라하네.”

나옹 선사의 게송을 들으면서 필자는 암도 스님의 법호인 ‘여산(如山)’을 떠올렸다. 스님의 법호는 ‘산을 따르겠다’ 내지는 ‘산과 같다’는 의미일 것이다.

“참사람이란 무엇입니까?”

암도 스님은 필자의 질문에 기다렸다는 듯이 답했다. “참사람은 참마음으로 참말을 하고 참다운 행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근본 요소가 몸, 마음, 숨이라면, 사람의 기본 능력은 생각과 말과 행동입니다. 사람의 심성이 선(善)과 악(惡)과 무기(無記)로 표현되지만, 실은 그 본성은 청정하고 원만하고 중묘(衆妙)합니다. 나라는 존재는 대자연인 우주와 연결된 하나의 소우주입니다. 따라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등불입니다. 여기서 길의 근원은 천지도(天地道)이고, 진리의 근본은 연기법이며, 생명의 기본은 숨의 길입니다. 마음의 등불을 밝히면 지혜의 등불이 켜지는 것입니다.”

몸 · 마음 · 숨, 사람의 근본 요소
참사람, 참마음으로 참말하고
참다운 행동을 실행하는 사람

몸 밖에 더 좋은 물건은 없다
‘四大色身’인 몸은 ‘마음의 집’
잘 먹고 마시고 호흡해야 건강

“그렇다면 참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참사람이 되려면 몸이 건강하고, 숨이 건실하고, 마음이 건전해야 합니다.”

“건강한 몸이란 무엇입니까?”

“몸 밖에 더 좋은 물건은 없습니다(身外無物). 몸은 지(地), 수(水), 화(火), 풍(風) 사대색신(四大色身)이므로 마음의 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큰 집은 지붕도 없고 바닥도 없으며 기둥과 벽도 없는 무주공당(無主空堂)입니다. 이 무주공당이 때로는 천당이 되고, 때로는 극락이 되기도 하니, 마음이 바로 무주공당인 것입니다. 도편수가 초석을 깔고 기둥을 심고 지붕을 올리는 순서대로 집을 짓듯이 사람의 몸도 사대의 기를 조화시켜서 차례대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만들어졌습니다. 눈, 귀, 코, 입이 생기고, 지구의 오대양 육대주를 닮은 오장육부가 생기고 난 후 세상에 나와서 21일 동안 부모미생전(父母未生前) 본래면목(本來面目)의 과정을 거쳐 완전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물려받은 이 몸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잘 먹어야 합니다. 첫째는 음식을 잘 먹어야 합니다. 음식은 고루고루 제때 먹어야 합니다. 음식을 먹을 때 천천히 오래 씹어야 합니다. 제철에 나는 채소를 먹어야 합니다. 고기를 너무 많이 먹으면 피가 탁해서 성질이 포악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둘째는 물을 잘 마셔야 합니다. 수질이 깨끗한 물을 마셔야 하고, 너무 차지도 않고 뜨겁지 않은 물이 좋습니다.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자정수, 즉, 밤 12시에 마시는 물이 좋습니다. 셋째는 좋은 공기를 호흡해야 합니다. 지상의 모든 생명체는 공기를 호흡하면서 삽니다. 지역에 따라서 동식물의 모양과 색이 다르고 사람의 인성과 습성이 다른데, 그 원인은 공기의 온도와 습도 때문입니다. 넷째는 마음을 잘 먹어야 합니다. 마음을 잘못 먹으면 욕심과 탐욕과 치심이 생깁니다.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 즉,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습니다. 마음이 몸을 움직이는 주인공입니다. 비유컨대 몸이 자동차라면 마음은 운전자입니다.”

구순을 바라보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스님은 쉼 없이 말씀을 이어갔다.

“노령임에도 법체가 강령하십니다. 비결이 있는지요?”

“그 비결은 바른 숨을 쉬기 때문입니다.”

“숨이요?”

“모든 생명체는 숨을 쉽니다(息外無命). 숨 탄 것의 숙명입니다. 숨을 쉬지 않으면 목숨을 거둔 것입니다. 따라서 숨은 모든 생명의 근원입니다.”

암도 스님은 들숨과 날숨을 의식하지 않고 폐로 숨을 쉬는 자연호흡과 날숨을 길게 하는 장출식(長出息)과 숨을 마시고 멈추고 내쉬는 단전호흡의 차이에 대해 설명했다.

13면에 계속

불교의 현대화를 추구하는 대원불교학술총서



붓다의 깨달음과 뇌과학
뇌의 구조와 작동원리를 이해하면 불교의 가르침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어떻게 스스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조절할 수 있는지 알게 된다.
문일수 지음 / 360쪽 / 25,000원



달라이 라마의 정치철학
티베트인이 겪어온 비극과 고통에도 불구하고 비폭력, 자비, 평화의 신념을 지켜온 달라이 라마의 정치철학과 사상을 담은 대표적인 100편의 글!
수바쉬 C. 카샵 편집, 허우성 · 허주형 옮김 / 876쪽 / 50,000원



불교심리학의 새로운 지평
전통적인 불교명상과 불교심리학을 현대의 심리학 이론 및 실천과 융합하여 불교심리학의 새로운 전망과 혁신적인 관점을 보여준다.
모리츠 키 편집, 이성동 · 김태수 옮김 / 932쪽 / 55,000원

고대부터 현대까지 한 권으로 보여주는 한국불교의 역사!
한국불교통사
김경집 지음 / 392쪽 / 20,000원

서양철학자들이 불교에 심취한 이유는 무엇인가?
에리히 프롬과 불교
박찬국 지음 / 316쪽 / 20,000원

인류의 위기에 대한 인식 전환과 새로운 실천 방향 제시!
활생문명으로 가는 길
김규칠 지음 / 368쪽 / 25,000원

불교와 고대 그리스로마 철학이 보여주는 놀라운 유사성과 상호 영감!
스토아철학과 서양불교
패트릭 어셔 지음, 이재석 옮김 / 152쪽 / 12,000원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인 마음(心)과 의식(識)에 대한 통찰!
불교의 무의식
윌리엄 왈드론 지음, 안성두 옮김 / 456쪽 / 23,000원

백운·태고·나옹의 선어록에 대한 문예 미학적 접급!
한국 선어록의 문예 미학
전재강 지음 / 312쪽 / 20,000원

가장 뛰어난 제자 24인의 삶과 수행, 깨달음의 과정을 담다!
부처님의 위대한 제자들
냐나뽀니까 장로 외 지음, 김충현 옮김 / 728쪽 / 40,000원

〈근간〉
불교 윤리 1, 2 / 다니엘 코조트 외 지음, 이동수 옮김
윤회 / 로저 잭슨 지음, 윤희조 옮김

비구니 승가에 대한 차별이 과연 부처님의 본뜻이었을까?
비구니 승가 설립의 역사
아날라요 지음, 김철 옮김 / 360쪽 / 20,000원

직접성과 즉각성의 전통적 해석에 대한 비판과 새로운 관점!
새로 보는 선불교
베르나르 포르 지음, 정천구 옮김 / 696쪽 / 45,000원

미국과 캐나다 등 서구권 대학의 철학과 교재!
철학으로서의 불교
마크 시더리츠 지음, 강병화 옮김 / 648쪽 / 38,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지상백고좌

조계종 명예원로의원 여산 암도 대종사

“성공하고 싶다면 타인 존중·배려하세요”

12면에 이어

암도 스님이 전하는 인간답게 사는 법

첫째, 부모님과 조상님을 잘 받들고
둘째, 배우자와 자식을 사랑하고,
셋째, 형님과 선배들을 존경하고,
넷째, 친구들에게 의리를 지키고,
다섯째, 동생과 후배에게 廉恥있고
여섯째, 이웃과 동료들에게 친절하라



암도 스님이 주석처에서 본지 작가와의 인터뷰에 응하고 있다.

스님에 따르면, 사람은 누구나 어머니 뱃속에서는 태식호흡(胎息呼吸)을 하다가 태어나서 탯줄이 잘리면 폐로 숨을 쉬는 까닭에 성태(단전)가 퇴화된다는 것이다.

태식호흡을 하려면 어머니 뱃속에서처럼 쭈그리고 앉아야 한다. 양쪽 팔꿈치로 무릎을 압박한 채 양손가락은 깍지를 끼고, 눈은 코끝 앞에 놓인 주먹손을 보고, 입을 붕어처럼 벌리고 배꼽 밑 하단전까지 숨을 마신 다음 참을 수 있는 데까지 참았다가 코로 내쉬어야 한다. 이렇게 100일 동안 30분씩 정진하는 것이다. 정진할 때 부처님께서 〈안반수의경(安般守意經)〉에서 설하신 수식관(數息觀)을 해야 한다. 삼독심을 버리지 않은 채 아무 때나 복식호흡을 하면 외려 약이 아니라 독이 된다.

100일간의 태식호흡을 끝마치면 1000일 동안 학식호흡(鶴息呼吸)으로 성태를 만들어야 한다. 학식호흡은 가부좌 자세로 배꼽 뒤중단전에 마음을 두는 것이다. 두 손으로 양쪽무릎을 짚고 숨을 마시면서 고개를 치켜들고 지식(止息)할 때는 목을 학처럼 양쪽으로 돌리고 코로 숨을 내쉬면서 수식관을 해야 한다. 학식을 하는 동안 무념(無念), 무상(無想) 무아(無我)의 경지를 체득해야만 성태(聖胎)가 된다.

성태가 되면 불성광명(佛性光明)을 각성(覺性)하여서 즉시 지혜(智慧)가 생겨 조견오온개공(照見五蘊皆空)을 투득(透得)하게 된다. 1000일 과정의 학식을 마치면 1만일 동안 상단전(명치 밑)에 의식을 집중하고 구식(龜息)으로 성태장양(聖胎長養)해야 한다.

이런 수행 끝에 대종사는 몸 전체의 피부가 열려서 모공(毛孔)으로 호흡하는 경지에 이르렀다고 한다.

“앞서 모든 것이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마음을 먹어야 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십시오.”

스님은 헛기침을 한 뒤 말을 이었다.

“마음 밖에 있는 것은 없습니다(心外無有). 우리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나옹 선사께서 ‘인생은 한 조각의 구름이 일어난 것과 같고 죽음은 한 조각의 구름이 사라지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직 한 물건만이 삶과 죽음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 한 물건을 찾는 것이 바로 ‘시심마(是甚麽)’입니다. 자각(自覺)이란 자신이 이 세상의 주인공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영감(靈感)으로 깨닫는 직관을 지닐 때 실상반야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성인과 범부의 차이는 자신의 주인공을 찾는 데 달려 있습니다. 자신의 주인공을 찾으면 성인이 되고 찾지 못하면 범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인공을 찾는 길과 숨길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진정한 깨달음은 연기법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자신의 본성인 심령으로 항상 공중(空中)을 관조해야 하고, 나아가서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우주의 숨길을 느끼면서 길게 날숨을 내뱉는 성태장양(聖胎長養)을 해야 합니다. 몸과 마음을 하나로 연결하는 것이 바로 숨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인간의 생명이 어디에 달렸느냐’하고 묻자 다른 제자들은 틀린 대답을 했으나 한 제자만이 ‘숨 한 번 내쉬고 마시는 사이(呼吸之間)에 달렸다’는 옳은 대답을 했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한 달도 아니고 하루도 아니고 고작 숨 한 번 내쉬고 마시는 사이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대종사는 이어서 불자들에게 휴식할 것을 강조했다.

“휴식(休息)의 ‘식’자는 스스로 ‘자(自)’와 마음 ‘심(心)’이 합쳐진 글자입니다. 즉,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라는 의미입니다. 순간마다 일어나는 오욕의 생각을 내려놓고 ‘참마음’을 보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수행의 근본입니다.”

잠시 문답이 끊기자 스님은 “경내를 걷자”고 했다. 구순을 앞둔 세납에도 불구하고 스님은 오르막길을 걸으면서도 조금도 힘에 부치지 않아 했다. 스님의 옆에 서서 걸으면서 필자가 물었다.

“암도라는 법명에는 어떤 깊은 의미가 깃들어 있습니까?”

스님은 살포시 웃은 뒤 손가락으로 경내의 석축들을 가리켰다.

“군대 전역 후 화순 용암사를 찾아가 다시 출가했는데, 은사인 천운 스님께서 암도라는 법명을 내려주셨어요. 용암사에서 내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요사채 아홉 채를 보수한 것입니다. 이어서 개울에 돌담을 쌓았는데 천운 스님이 보시기에 내 솜씨가 석수(石手) 못지않았던 모양입니다. 돌을 다루듯 중생들을 잘 제도하라는 의미일 테지요.”

경내는 지금도 불사가 진행 중인지 곳곳에 목재와 석재들이 쌓여 있었다.

“불자들에게 덕담 한 마디 해주십시오.”

“인간(人間)이라는 글자에서 알 수 있듯 사람은 관계 속에 있는 존재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인간답게 잘 사는 방법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잘 하는 것입니다. 첫째, 부모님과 조상님을 잘 받들어 효도(孝道)하고, 둘째, 배우자와 자식을 사랑하고, 셋째, 형님과 선배들을 존경하고, 넷째, 친구들에게 의리를 지키고, 다섯째, 동생과 후배들에게 염치(廉恥)가 있고, 여섯째, 주위의 이웃과 직장동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예의를 지키고 정직하며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성공합니다.”

필자는 〈숨길 따라 가는 길〉에 인용돼 있는 탄허 스님과의 일화가 떠올라서 암도 스님에게 물었다.

“금년에 염라대왕 연세가 몇 살입니까?”

이 질문은 암도 스님이 동대문 청룡사를 찾아가 탄허 스님에게 물은 질문이었다. 당시 탄허 스님은 아무 말씀 없이 단주만 돌렸다고 한다. 이에 스님이 “무량수란 말입니까”라고 다시 물었고, 탄허 스님은 웃음으로 화답한 뒤 차를 한 잔 내려줬다.

암도 스님은 살포시 웃은 뒤 입을 뗐다.

“내가 쓴 책을 읽었군요. 1971년에 나는 동국대 불교학과에 재학 중이었어요. 당시 백상원 기숙사 종비생 42명이 수원 용주사 중앙선원에 수련을 갔습니다. 당시 선원 조실이 전강 선사였습니다. 전강 선사가 법문 중에 판소리의 대가인 임방울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노래를 마친 뒤 ‘임방울이 죽은 마누라의 시체를 앞에 놓고서 앞산도 첩첩하고 뒷산도 첩첩한데 마누라는 어디로 갔느냐고 했다. 어디 아는 사람이 있으면 말해봐라’라고 물었습니다. 내가 손을 높이 든 뒤 말하길 ‘무거무래역무주(無去無來亦無住)’라고 했어요. 탄허 스님과의 선문답 후 인천 용화사를 찾아갔으나, 전강 선사께서 입적한 뒤였습니다. 만약 전강 선사를 뵈었으면 ‘임방울의 마누라가 어디서 왔습니까? 그곳을 가르쳐주시면 간 곳을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답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연(自然)은 글자대로 스스로 그러한 것입니다. 봄이 오면 꽃이 피고 여름이 오면 잎이 무성하고 가을이 오면 잎이 떨어지고 겨울이 오면 나뭇가지만 앙상합니다. 숨길 따라 살다가 숨길 끊어지면 가는 것입니다.”

걷다 보니 어느새 큰법당 앞이었다. 큰법당에는 ‘나쁜 일 하지 말고 좋은 일에 힘쓰며 청정한 마음으로 참나를 깨달아서 모든 중생 가르쳐 불국토 이룩하자’라는 글귀의 주련이 걸려 있었다.

“대웅전에 한글 현판과 주련을 단 이유는 일종의 대기설법입니까?”

암도 스님이 웃으면서 머리를 끄덕였다.

“부처님 가르침은 나도 좋고 너도 좋고 누구에게나 좋은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알고 너도 알고 누구나 알 수 있게 전법해야 하지 않겠어요.”

스님은 필자가 떠나는 길까지 배웅을 나오셨다. 마하무량사에서 나와서 귀가하는 길에 보니 인근에는 죽림만 있는 게 아니라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도 있었다. 메타세쿼이아는 화석의 나무로 불리고 있다. 중생대 시기부터 생존해온 나무이기 때문이다. 수억 년 전부터 씨를 뿌려온 메타세쿼이아, 그 장구한 시간에서 마하무량의 가르침을 배울 수 있었다.

유응오 / 작가

가장 간결한 260자의 불교 철학

『반야심경』의 글자 하나하나의 의미뿐만 아니라
핵심 사상인 공의 세계로 이끌어 주는 길잡이

화제의 신간



도표와 함께 읽으면 반야심경이 한눈에 쏙 들어온다.
산스끄리뜨본, 한역본, 에드워드 콘즈의 영역본을
비교하여 다양한 각도에서 해설,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반야심경』은 자주 접하는 경전이지만
막상 내용을 모르거나, 너무 기본이라고 생각돼서
차마 주변에 물어보지 못하던 사람들에게
반야심경의 핵심적인 가르침을 명료하게 일깨워 주고 있다.

글 김명우·그림 배종훈 | 280쪽 | 18,500원



도표로 읽는 시리즈

도표로 읽는 명상 입문
2023년 세종도서 교양부문 우수도서
글 혜명 김말환 · 그림 배종훈 / 15,800원



도표로 읽는 불교 입문
2016년 세종도서 교양부문 우수도서
글 이자랑 · 이필원 그림 배종훈 / 13,800원



도표로 읽는 유식 입문
글 안환기 · 그림 배종훈 / 15,800원



도표로 읽는 불교 교리
글 법상 · 그림 용정운 / 15,000원



도표로 읽는 부처님의 생애
글 묘장 · 그림 배종훈 / 15,800원



도표로 읽는 경전 입문
글 정운 · 그림 배종훈 / 15,000원



도표로 읽는 천수경 입문
글 목경찬 · 그림 배종훈 / 15,000원



민족사 02)732-2403~4 | www.minjoksa.org

목경찬의 사찰 설화탐사대 ❺ 경주 분황사



▶한줄 요약
물길이 북쪽으로 흐를 때는 헌덕왕릉의 석상과 비석이 땀을 흘리고, 남쪽으로 치우쳐 흐를 때는 분황사 부처님이 땀을 흘렸다.

백성 위해 부처님·현덕왕 '물길 돌리기' 경쟁

경주는 많은 사람이 찾는 관광지다. 불자에게는 단순한 관광코스라기보다는 성지순례지다. 다양한 순례지 가운데 국립경주박물관, 황룡사지, 분황사로 이어지는 여정이 있다. 분황사는 넓은 황룡사지 옆에 숲과 담으로 둘러싸인 조그마한 사찰로 보이지만, 신라 최고(最古)의 사격을 갖춘 사찰 중 하나였다.

분황사(芬皇寺)는 선덕여왕 3년(634)에 창건하였다. 우리나라의 위대한 스승인 자장 스님(590?~658?)과 원효 스님(617~686)이 계셨던 절이다. 자장 스님이 643년 당나라에서 귀국하자 선덕여왕은 스님을 분황사에 머무르게 하였다.

원효 스님은 분황사와 관계가 매우 깊다. 학자들은 스님의 독창한 불교를 해동종, 분황종이라 하고 스님을 분황원효라 할 정도다. 스님은 분황사에 머물면서 〈화엄경소〉 〈금광명경소〉 등 수많은 저술을 남겼다. 스님은 신문왕 6년 70세로 혈사(穴寺)에서 입적하였다. 스님의 아들 설총은 원효 스님의 유해로 소상(塑像)을 만들어 분황사에 모셔두고 죽을 때까지 공경하였다. 설총이 옆에서 예배하니, 스님상이 갑자기 돌아보았다. 일연 스님이 〈삼국유사〉를 저술할 때까지는 몸을 돌린 대로 있었다.

고려 숙종 6년(1101)에 숙종은 원효 스님에게 대성화쟁국사(大聖和諍國師)라는 시호를 내리고 분황사에 비석을 세웠다. 그런데 조선시대에 들어와 언제인가 비석은 훼손되었고, 조선후기에 절 근처에서 비석 받침대만 발견되었다.

추사 김정희(1786~1856)가 받침대 위쪽에 '此新羅和諍國師之碑蹟(차신라화쟁국사지비적)'[이것은 신라 화쟁국사의 비 자취다]을 새겨두었다. 자세히 봐야 글을 볼 수 있다.

분황사 창건 당시 세워진 모전석탑은 유명하다. 함정 문제로 시험에 자주 출제된다. 모전석탑(模塼石塔)은 말 그대로 벽돌[塼]을 모방[模]한 돌탑이라는 뜻이다. 벽돌로 만든 탑을 전탑(塼塔)이라 하고, 돌로 만든 탑을 석탑(石塔)이라 한다. 그런데 분황사 탑은 돌을 벽돌 모양으로 만들어 쌓은 탑이다. 흙으로 만든 벽돌이 아니고 돌로 만든 벽돌 모양이라 모전석탑이다.


분황사 모전석탑.

〈삼국유사〉 등에 언급만 되고 지금은 없는 문화재도 있다. 솔거가 그린 관음보살상 벽화가 그 가운데 하나다. 솔거가 황룡사에 그린 노송도(老松圖)는 유명하다. 노송을 너무도 잘 그려 새들이 착각하고 날아들다가 벽에 부딪혔다고 한다. 그런 솔거가 그린 관음보살도는 어떨까. 그리고 경덕왕 14년(755)에 모신 무게가 30만6700근(약 197톤)이나 되는 약사여래입상도 궁금하다. 몽골의 침략과 임진왜란 등으로 분황사의 문화재가 많이 유실되었다.

현재 분황사에는 모전석탑을 비롯하여 보광전, 약사여래상, 세 마리의 용이 물고기로 변했다는 삼룡변어정, 원효대사를 기리는 화쟁국가비석 받침, 당간지주 등이 있다. 1965년 분황사 뒷담 북쪽으로 30여 미터 떨어진 우물 속에서 발견된 목 없는 불상들은 시대의 아픔을 전해준다. 이 불상들은 경주박물관 뜰에 늘어서 있다.

불자에겐 성지순례지인 경주
원효 자취 서린 분황사 소중
알천 경계로 남·북 마을서는
부처님·현덕왕에 각각 기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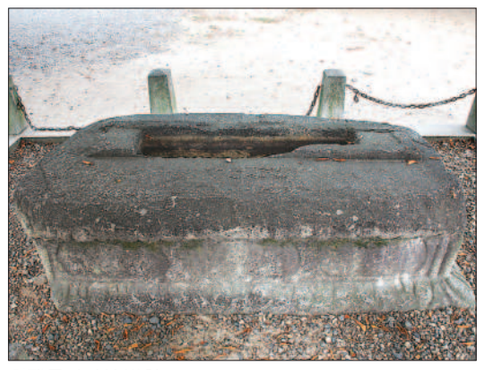
불교 향한 신라 자존심

분황사는 불교문화 강좌에서 자주 등장하는 사찰이다. 앞서 언급한 모전석탑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찰의 위치 관련으로 등장한다. 우리나라 사찰은 산사(山寺)라고 할 만큼 대부분 산에 있다. 그러나 마을에도 많은 사찰이 있었다. 물론 산사의 절이 수행하기 적합하다는 이미지, 조선시대 불교 탄압 등의 이유로 오늘날에는 산에 절이 많지만.

경주 분황사는 마을에 자리한 사찰의 대표적인 예다. 마을 정도가 아니다. 신라의 도읍지 경주 도심이다. 단순히 도심 사찰이 아니라 신라의 자존심을 나타내는 사찰 가운데 하나다.

〈삼국유사〉 제3 흥법편 '아도기라(阿道基羅)'[아도 스님이 신라의 불교 기초를 닦다]에서 아도 스님에게 스님의 어머니는 말하였다. '서울(경주) 안에는 일곱 군데 절터가 있다. 천경림(天鏡林), 삼천(三川) 갈래, 용궁 남쪽, 용궁 북쪽, 사천(沙川) 끝, 신유림(神遊林), 서청전(婿請田)이다. 모두 앞 부처님 시대의 절터였다. 불법이 길이 전해질 땅이니 네가 그곳으로 가서 위대한 가르침을 전파하여라.'

아도 스님은 신라에 불교를 전해준 고구려 스님이다. '앞 부처님'은 비바시불, 시기불, 비사부불, 구류손불, 구나함불, 가섭불, 석가모니불 등 과거칠불(過去七佛)이다. 일곱 부처님은 경전에 등장하지만, 석가모니불을 제외하고는 인류 역사에 등장하는 분은 아니다. 그런데 경주에 있는 일곱 곳이 과거 일곱 부처님 시대의 절터라고 하니, 역사적인 사실은 더욱 아니다. 다른 나라보다는 늦게 불교를 받아들인 신라의 자존심을 나타낸다. 신라 땅이 예로부터 부처님이 함께하였던 도량이라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문화의 우월감을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 또는 이 땅을 불국토로 만들고자 하는 마음을 상징한다. 혹은 흥륜사 터인 천경림이 원래 신라 토속신앙의 성지였던 것과 같은 맥락에서 분황사 터도 토속신앙의 제사 터로 추정한다. 여하튼 이 일곱 절터 가운데 용궁 북쪽에 자리한 사찰이 바로 분황사다.


화쟁국사비석 받침.


분황사 당간지주.

부처님 가피로 홍수 막다

분황사는 경주 북천(北川) 남쪽에 위치한다. 알에서 나온 혁거세 거서간을 목욕시킨 강이라 하여 알천이라 한다. 이 강은 덕동호에서 시작하여 형산강으로 이어지며, 동에서 서로 경주 시내를 관통한다. 이 강에는 예로부터 홍수가 자주 일어났다. 특히 현재 분황사는 북천이 굽이치는 바깥쪽에 자리하고 있다. 따라서 상류에서 물이 넘치면 곧장 절로 몰아친다. 따라서 부처님의 가피로 홍수를 막기 위해 이곳에 분황사를 지었다는 이야기도 있다. 이러한 분황사의 위치와 관련하여 재미있는 이야기가 민간에 전해진다.

알천을 경계로 남쪽과 북쪽에 두 마을이 자리한다. 남쪽 분황사가 있는 동천 마을과 북쪽 헌덕왕릉이 있는 구황 마을이다. 매년 여름이면 알천을 사이에 두고 양쪽 마을 사람은 홍수로 늘 불안하였다. 그래서 구황 마을 사람은 홍수의 피해를 막아달라고 부처님에게 기도를 드리고, 동천 마을 사람은 헌덕왕릉에 가서 기도하였다.

홍수 때마다 분황사 부처님은 구황 사람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물길을 북쪽으로 돌리려고 하였고, 동천의 헌덕왕 혼령은 물길을 남으로 돌리려고 하였다. 물길이 북쪽으로 흐를 때는 헌덕왕릉의 석상과 비석이 땀을 흘리고, 남쪽으로 치우쳐 흐를 때는 분황사 부처님이 땀을 흘렸다. 분황사 부처님과 헌덕왕의 혼령이 워낙 치열하게 다투니, 알천 냇물이 한때는 하늘로 치솟기도 했다.

그런데 대자대비하신 부처님이 어찌 누구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가피를 주었겠는가. 어찌 헌덕왕 혼령과 치열하게 다투었겠는가. 한 해에는 남쪽 구황 마을이 더 큰 피해를 보고, 한 해에는 북쪽 동천 마을이 더 큰 피해를 보니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 것이다. 그리고 홍수의 피해를 벗어나고자 하는 바람을 이야기에 담았다고 본다.

홍수의 피해를 벗어나고자 여러 차례 제방을 쌓고 나무를 심었다. 헌덕왕릉 근처 강가에 알천제방수개기(閼川堤防修改記)가 바위에 새겨져 있다.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516호로 지정되어 있다. 숙종 33년인 1707년에 홍수를 예방하려고 알천 제방을 수리하고 부역한 내용을 세 개의 바위 면에 90여 자로 기록한 글이 새겨져 있다.

그러나 제방을 쌓아도 빈번이 홍수 피해를 보았다. 특히 북천 강변 가까이 자리한 헌덕왕릉은 피해가 심하였다. 이로 인해 무덤 주위의 석재는 거의 손실되었다. 분황사 모전석탑 앞에 있는 사자상이 원래 헌덕왕릉에 있었던 것이라 주장하는 이도 있다. 오늘날에는 보문호와 덕동댐 건설로 홍수는 잦아들었다. 혹 경주를 자주 갔었다면 이번 순례길에는 알천남로 또는 알천북로를 따라 걸어보시라. 한가로운 여정이 되리라.

〈불교학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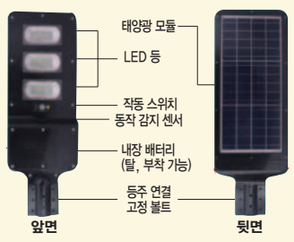
2024년 사찰고급연등 자동 승 하강시설
사찰경내외에 전선없는 파동식 가로등·장엄등 설치
가야기획
자동 승 하강시설
각 사찰 법당 및 경내외 연등설치 공사를 주요 업무로도 하고 있습니다.
시공전

시공후

사찰경내 연등 공사


가로등·장엄등




제품 세부 소개


자비연등

칼라연등

세계 최초로 개발된 전선없는 파동식 가로등 제품건
• 전선없는 파동식 가로등은 전력공급없이 자체발전으로 햇빛이 많은곳은 초저녁에 디밍없이 5시간 동안 매우 밝게 켜지고 그 이후 아침까지 50포 낮게 유지되는 제품 개발 양산(50프로도 매우 밝음)
• 사찰 경내·외에 햇볕이 되는 위치에 매우 유용함. 참고로 배터리가 10년동안유지 됨. 즉 수명이 20년으로 바도 무방함. 이유는 케이스가 ABS 우레탄 코팅고 IP65라 가능합니다.
태양광 등 및 팔각 비닐만월등

태양광 등 및 비닐만월등

황금등

광명연등

가까운 불교 전문상점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상점문의 및 안내 : 가야기획 02-379-2400 H.P 010-5340-7941

2024년 3월 6일 수요일 | 불기 2568년

접 수 문자접수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10-4648-8200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안내

1474호 | 15 | 전면광고

말이 많고 생각이 많으면
진리로부터 점점 멀어진다.
말과 생각이 끊어지면
어느 곳엔들 통하지 않으리.



부처님 말씀 읽기 -《신심명》에서

부산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재 학인모집

1. 부산영산재의 각 전승 교육사 의식 염불, 사물
2. 천수바라 · 오공양작법
3. 다게작법 · 운심게작법

- 특별반 3개월과정모집
- 사) 대한불화 전통불교조계종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부산영산재 사무국 총무원 010-5511-7000

관상(손금) 성철사주비법 전수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 송사 재판, 암, 질병, 산소물찬곳, 유산낙태, 이혼수, 부도, 사업실패, 배우가 일찍 죽는 관상, 귀신 붙은 관상,결혼 못하는 관상, 자식이 일찍 죽거나 질병관상, 중풍, 뇌졸중 관상
- 출장개인지도 : 관상학, 성명학, 사주명리, 손금, 상술비법
- 스님,무속인,법사,무당,일반인,공무원 특별 개인지도
- 신을 받았어도 제대로 못하시는 분. 작명 아기이름, 개명

상담문의 010-4014-8822 타로특별비법지도
365일 무료 숙식제공 교육장. 상술, 언변 비법 전문지도

부전 스님 구합니다

경주 우황사

경주시 천북면 새터흥림길1-32

010-2239-0300



검색-손도사 자전 천기소설 운명

010-5105-5000

의식은 불교의 꽃 (행사대행)

49제, 점안, 기타, 바라, 살풀이

30년 수행 공덕으로 귀사찰에 불사를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010-6785-1130 / 010-5270-8260

범음·범패 학인 모집

- 각단의식 및 예불, 천수바라, 작법
- 사물 법고, 정근북, 송주북
- 각 사찰 행사 합니다
- 진주 : 금륜사 법현 . 대진합장
- 주소 : 진주시 집현면 진산로 1528-7 금륜사

010-7579-8200

60대 비구스님입니다.

불사를 성취발전 시켜드립니다.

철학 능통

010-9954-2500 해인합장

주지스님 및 노전스님 모십니다

경북문경 쌍룡사

010-8819-8988

개인 지도 (통변비법 전수)

사주 · 작명 · 관상 · 풍수 · 타로

NAVER 용인 수현 철학원 검색
NAVER 송파 조수현 철학원 검색

010-8436-0056 / 010-8232-0057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 점안, 살풀이, 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이조불교 재활용센터

- 대불, 소불, 동불, 탱화, 법당 제작 (수미단, 닷집, 운각)
- 법당 철거, 오래된 불서 고가 매입

*사찰 사고팝니다.

010-9177-7842

현대불교신문
구독 나눔 캠페인

현대불교신문에는
부처님의 따뜻한 자비와 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도반과 함께 구독하여 나눔의 기쁨을 누려보세요.

02-2004-8212



전통 범음범패(바라작법) 과정 학인모집

한국불교 태고종 경북동부교구 종무원에서는 불교의식의 중요함을 인식하여 각 사암에서 꼭 필요한 의식을 여법하게 할 수 있도록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전통의식에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교육과정 : 1년(서울, 경기 의식 기준)
1. 사물 다루는 법 : 도량석, 조석예불, 각단예불, 각청(불공), 시식
2. 천도의식 : 49제, 시련, 대령, 관욕, 신중작법, 상주권공, 시식
3. 각종 바라작법(꼭 필요한 의식만을 집중적으로 교육함)

■개 강 일 : 2024년 03월 06일(수) 오후 2시
1. 교육시간 :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경우에 따라 요일변경)
2. 수 업 료 : 매월 10만원(교재비 별도)
3. 장 소 : 경북동부교구 종무원 설법전 (경주시 강동면 모서별봉길 52-33)
4. 접수 연락처 : 054-762-5888 FAX : 054-762-5889
5. 접수기간 : 상시모집(전화접수가능)
6. 자 격 : 종단, 승속 관계없이 가능

한국불교 태고종 경북동부교구 종무원장 관성 지공

❖ 본 지면의 생활안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지지 않습니다.

마음여행 해외성지순례

인도네시아
보로부두르 대탑, 발리 6일
6월10일 출발~6월15일 도착(6일간)
동참금 | 239만원
세계 7대 불가사의중 하나로 불리우는 보로부두르 대탑은 1,200여 년전 불교가 찬란한 빛을 낸 세계 최대의 불탑으로 화엄경의 성지입니다.
그리고 신들의 섬이라 불리는 발리는 현대문명에 때 묻지 않은 자연의 보고입니다.



중국 실크로드
성지순례 10일
2024년 5월24일~6월2일
동참금 | 339만원
일 정 | 인천-서안(진시황 병마용갱,화청지) · 법문사(부처님 불지사리) · 천수(맥적산석굴)-난주(병령사석굴)-장액(대불사)-칠채산(일곱 빛깔 무지개산)-가욕관(만리장성의 서쪽 최전방 성루) · 돈황(막고굴,명사산)-유원-투루판(베제크릭천불동,화염산,고창고성,교하고성)-우루무치(천산천지)



중국 운강석굴,
오대산 성지순례 5일
2024년 5월26일~5월30일
동참금 | 159만원
일 정 | ▶1일 : 대한항공편으로 인천-북경-대동
▶2일 : 운강석굴-응현목탑-현공사-오대산
▶3일 : 오대산 5대봉-동대 망해봉-북대 협두봉-중대-취암봉-서대-계월봉-남대-금수봉 5대 전체 순례
▶4일 : 오대산-보살정-현통사-탑원사-수상사-북경
▶5일 : 북경-인천(대한항공)



티베트
카일라스(수미산) 순례 16일
2024년 6월07일~6월22일
동참금 | 519만원
일 정 | 인천-성도-라싸-갼체-시가체-사캬-라체-사가-파양-다르첸-수미산코라-구게왕국-마나사로바호수-사가-라싸-인천
※순례 신청하신 분에게는 우주의 중심 카일라스 책을 드립니다.



예약 · 상담 02)720-9600
마음여행 실크로드여행사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8, 에스앤에스빌딩 901호

접 수 문자접수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10-4648-8200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474호 | 16 | 전면광고

계행을 가지는 것 즐거움이니
몸으로 모든 고통 받지 않으며
잠을 잘 때 편안을 얻게 되고
깨고 나면 마음이 환희하나니.



부처님 말씀 읽기 - 《열반경》에서

광 진 불 사

- 위치 : 서울 • 대지 : 200평
- 건물 : 법당 60평, 외전각 3채
- 주변 : 시내산 및 주차가
- 매가 : 35억
- 경기분당포교원
- 8층 건물에 8층 • 128평에 전용80평
- 역세권, ev. 주차가, 옥상사용
- 매가 : 15억

※40년세월,신용과,믿음으로일합니다. 출장상담받습니다.
※사찰관련 컨설팅 상담(창건주승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사찰, 땅, 포교당, 대형 천년사찰터 다량 보유
부전 등 절집소임 소개합니다. 신행상담, 사찰순례, 채권상담,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010-4586-4525

사찰안내

- 경남 의령군 의령읍 하리318-2/318-21번지 임야 37번지, 전답 332, 333번지
- 2층 건물·임야·전답 총 2445평 매매
- 건물 임대 가능
  1층 45평(방 3개) 거실, 주방, 욕실 겸 화장실
  2층 삼존불 산신각
- 보증금 3000만원/월세 50만원
  즉시 입주 가능

010-3927-574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칠곡
- 임야 : 대 485평
- 가액 : 5억 8천
- 건물 : 삼존불 3자 동불, 법당, 요사채, 공양간, 별채

010-3230-5656
010-8001-0733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양산
- 종교용지, 대지 218평, 시유지 포함 500평 사용, 주차10대, 건평 68평 중 1층 요사 42평, 방4, 화장실3, 2층 대웅전 26평, 식당2, 실외화장실1, 산신각6평, 난방 심야전기, 지하석수 1일 150톤 이상, 상하수도, 종말처리, 집기 일체 포함, 즉시 법회 가능
- 건강상 시가이하로 7억에 양도함 (절충가능)

010-6425-8274

사찰(급)안내

스님 병환으로 급매

- 땅(종교부지) 값만 받고 양도합니다.
- 위치 : 강원도 삼척시
- 대지 : 약 600 평
- 법당, 산신각, 미륵불, 탑 종각 및 범종, 요사채 2동
- 시내와 인접하여 교통 편리
- 집기류 전부 다 줌 • 법회 즉시 가능

좋은 인연 기다리겠습니다.

010-2366-2821

토굴, 암자 전세(급)안내

- 위치 : 경남 창원시 마산 무학산
- 대웅전, 산신각, 용왕당
- 건물 : 2층
- 대지 : 약5백평
- 보증금 및 시설비 포함 1천 5백만원

010-3717-531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 (양평역 5분거리)
- 대지 : 300평 현대식 건물
- 건물 : 대웅전 30평 1동 / 카페, 공양간 30평 / 요사채 23평 2층 건물 1동 종무소, 객방 13평 1동
- 가액 : 10억원(답사 후 인연되는 분 절충)
- 법회 즉시 가능합니다.

010-4461-382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진주
- 대지 : 약 50평
- 건물 : 3동 법당 8평 주지실 6평 용왕당, 3평 공양, 방3개, CCTV 4개
- 가액 : 6천
- 부동산 전화 사절
- 비구니 스님환영

010-7506-8604

사 찰 안 내

- 법당시설 완료
- 울산 북구 동대로43(호계동) 3층
- 상가건물 3층 약 45평 (방3)
- 보2000/월80
- 시물권 없음, 법당시설 완료
- 포교지로 철학관 무속인 적합

010-9110-3301

포 교 당 안 내

- 위 치 : 경북 청도군 면소재지 중심지도로변 2층
- 5분 거리내 대형마트 3곳
- 법당 · 주방 · 방2 · 화장실2 실평수 약 60평(서류 35평)
- 시권1800만원, 보증금 500/40
- 사주 방편 있으신 분 적합

010-7942-9015

사찰(급)안내

- 위 치 : 충남 부여군 은산면
- 임 야 : 2,000평
- 기도방 3개, 산신각, 용궁, 선황, 요사채
- 매매가 : 2억 7천 (가격절충)

좋은 인연 기다리겠습니다.

010-4799-9448

사 찰 안 내

- 위치 : 제주도 한림읍 금능리 소재
- 종교 부지 적합함
- 관광산업 단지로도 활용도가 높은 토지
- 토지(과수) : 약 2800평 • 대지 : 약 200평
- 2층 건물 1동 : 약 60평
- 매매금액 : 상호 협의하에관심 있으신 분께 영상 보내드립니다. 전화 · 문자 주세요.

010-3119-335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 규모 : 380평 (법당 30평 및 요사채 공양간)
- 가액 : 4억 3천5백만원

010-5316-5669

암 자 터 안 내

- 안면도 암자 명당터
- 주소 : 충남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 규모 : 대지 200평, 전 200평, 가옥 3채
- 금액 : 2억 7천만원

010-2959-53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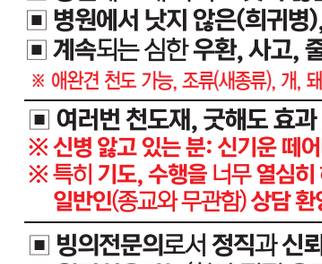
사 찰 안 내

도심 포교불사에 함께 동참 운영 하실 뜻있는 출가자 및 재가불자님을 정중히 모십니다.

- 위치 : 충남 부여
- 금강이 시원하게 내려다 보이는 8층 건물에 3층 154평의 넓은 법당
- 시설완비, 주차공간 확보
- 개원식 앞두고 (사정상) 전세 운영 가능
- 절충 협의

010-7174-1711

사 찰 안 내



공기 맑고 아늑하고 영험있는 기도도량입니다. 현재 운영 중으로 좋은 인연 기다립니다. 조정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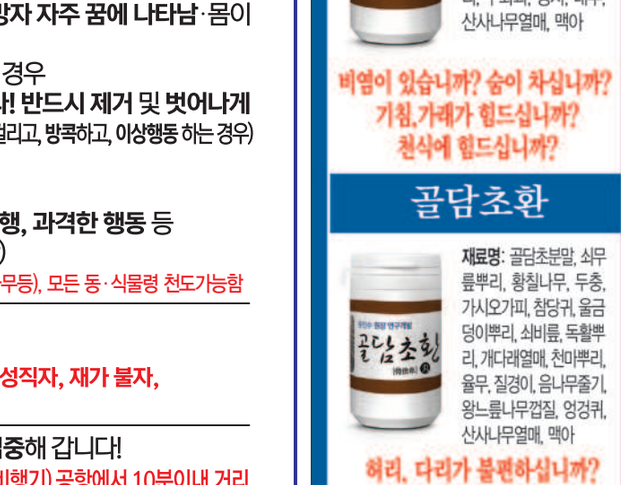
- 경북 청송군 현동면
- 대지 143평 (현재 운영중)
- 가액 : 9500만원

010-4180-1788

현대불교신문 후원 나눔 캠페인

법보시 후원은 최상의 공덕입니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세요.

02-2004-82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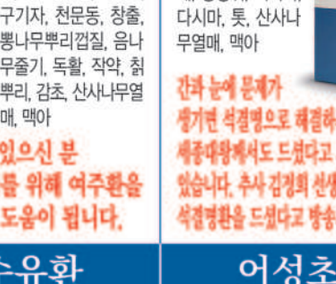
좋은인연 대출안내

-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 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현대사회는 '정신건강', '마음건강'이 매우 중요한 시대 상황입니다! 사람들의 정신과 마음을 해치는 중요한 원인에는 '빙의', '신기운'의 폐해가 매우 큽니다! '의학적'으로도 규명이 안되어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상담을 통해 해법을 찾으십시오!!"

[상담하면 도움이 되는 분] 전화상담, 대면상담은 무료입니다!

▣ 빙의와 신기운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 한 개인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 빙의 기운에는 신기운, 사람, 동물, 식물, 기타 여러 가지 영적기운이 몸속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몸속에 들어오면 여러 가지 신체적, 정신적 이상증세를 일으킵니다!
※ 빙의와 신기운으로 인한 문제는 병원에서도 안되고, 최고의 심리상담으로도 안되고, 무속굿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 영적기운을 환자로부터 제거하고 몸 밖으로 분리하고, 차단하고, 다스릴(천도)줄 알아야 해결이 됩니다!!

[빙의로 인한 대표적인 증세]

▣ 만성우울증·가위눌림·심한 불면증·공황장애·공포증·심한 불안증세 ·악몽 자주꿈·망자 자주 꿈에 나타남·몸이 매우 무거움·만성피로감 이 심한 경우! ▣ 환청·환각증세 심한경우!
▣ 증세는 있으나 병원에서는 진단이 이상 없이 나오는 경우! ▣ 혼자 중얼거림 심한 경우
▣ 특히 초등, 중등, 고등, 대학생이 빙의와 신기운에 노출되면 인생이 전체가 망가집니다! 반드시 제거 및 벗어나게 해주어야 인생이 달라집니다! (영리하고 똑똑했던 자녀가 어느 시점 이후 갑자기 학습능력 저하, 우울증 걸리고, 방콕하고, 이상행동 하는 경우)
▣ 어느 시점 이후부터 과거와 매우 다른 행동, 습관이 있는 경우(이상행동)!
▣ 병원에 오래 다녀도 낫지 않은 경우 등. ※ 자살충동 심한경우(손목긋는 자해행위 자주함)
▣ 병원에서 낫지 않은(희귀병), 조현병, 분노조절장애, 감정 기복 매우 심함, 묻지마 폭행, 과격한 행동 등
▣ 계속되는 심한 우환, 사고, 줄 초상나는 경우, 매우 심한 가정불화 (의처, 의부증 심함)
※ 애완견 천도 가능, 조류(새종류), 개, 돼지, 소, 닭, 오리, 뱀종류, 구렁이, 어류(장어, 물고기 종류일체), 식물령(큰나무등), 모든 동·식물령 천도가능함

▣ 여러번 천도재, 굿해도 효과 못보신 분 ※ 밤에만 증상이 심하고 밤에 주로 나가는 경우
※ 신병 앓고 있는 분: 신기운 떼어내고자 하는 분 환영!
※ 특히 기도, 수행을 너무 열심히 하시다가 탈(몸과 마음에 이상 증세)이 나신 스님, 타 종교인, 성직자, 재가 불자, 일반인(종교와 무관함) 상담 환영 합니다!(비밀보장, 출장 상담도 가능)

▣ 빙의전문의로서 정직과 신뢰와 꾸준한 사후 관리로 빙의 환자와 함께 문제 해결로 집중해 갑니다!
▣ 원격치유가능(환자 직접 오지 않아도 됨) ※육지계신 분 : 당일 정성가능(아침비행기, 오후 비행기) 공항에서 10분이내 거리

49재·천도재 전문도량 전국최고 빙의천도 신기운천도 전문상담원
마음치유·정신건강치유 전문상담원 **제주불교조계종금강선원**

제주도 제주시 삼무로 47(연동 271-22) 3층 상담문의 : ☎ 064) 746-0789



윤인수 원장 연구개발

겨우살이환

재료명: 겨우살이, 느릅나무뿌리껍질, 도라지, 더덕, 모과, 천문동, 맥문동, 비파잎, 삼백초, 뽕나무뿌리껍질, 둥굴레뿌리, 무화과, 탱자, 대추, 산사나무열매, 맥아

비염이 있습니까? 숨이 차십니까? 기침,가래가 힘드십니까? 천식에 힘드십니까?

여 주 환

재료명: 여주, 돼지감자, 바나바잎, 민들레, 복분자, 옥수수수염, 오미자, 구기자, 천문동, 창출, 뽕나무뿌리껍질, 음나무줄기, 독활, 작약, 칡뿌리, 감초, 산사나무열매, 맥아

당뇨 있으신 분 혈당수치관리를 위해 여주환을 드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전복껍데기환[석결명 스틱]

재료명: 전복껍데기, 마리골드, 국화, 민들레, 엉겅퀴, 백작약, 다시마, 톳, 산사나무열매, 맥아



간과 눈에 문제가 생기면 석결명으로 해결하세요. (본초강목) 세종대왕께서도 드셨다고 세종실록에 나와 있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도 제주도 유배시 석결명환을 드셨다고 방송되었습니다.

폐청소법, 치매·중풍 예방법 등 성인병에는

윤인수 원장의 경혈자극요법을 활용하세요.

불면증, 어지럼증, 이명(귀울림), 두통, 고혈압, 저혈압, 동맥경화, 만성설사, 목이 쉬었을때, 건망증, 협심증, 위염, 변비, 안면신경마비, 졸음병, 실어증, 심차신경통, 간경화, 황달, 대상포진, 피부가려움증, 생리통, 생리불순, 다이어트, 귀머거리, 녹내장, 갑상선 이외 총 287종이 수록되어 있음.



전화주시면 간략하게 설명드립니다

골담초환

재료명: 골담초분말, 쇠무릎뿌리, 황칠나무, 두충, 가시오가피, 참당귀, 울금, 덩이뿌리, 쇠비름, 독활뿌리, 개다래열매, 천마뿌리, 율무, 질경이, 음나무줄기, 왕느릅나무껍질, 엉겅퀴, 산사나무열매, 맥아

허리, 다리가 불편하십니까? 오래 걷기 힘드십니까? 계단 오르기 힘드십니까?

산수유환

재료명: 산수유열매, 옥수수수염, 복분자, 오미자, 구기자, 토사자, 사상자, 복령, 마가목열매, 뽕나무뿌리껍질, 참당귀, 천궁, 우슬, 오갈피, 두충, 질경이, 산사나무열매, 맥아

소변때문에 밤에 몇번씩 일어나십니까?

어성초환

재료명: 어성초, 적하수오, 자소엽, 측백나무잎, 서목태, 원지, 우슬, 천문동, 마가목열매, 복분자, 솔잎, 뽕나무뿌리껍질, 녹차잎, 창출, 구기자, 산사나무열매, 맥아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십니까?

하지·아이케어센터 | 구입문의 : 02-969-9007 / HP.010-3245-0118
농협 : 301-0234-9633-61 / 예금주 : 윤제하



박동춘의 茶 이야기

⑤ 茶문화 쇠락기 조선시대

초의 선사, 조선 차문화 중흥 이끌다

조선 후기 민멸 위기에 놓인 차 문화를 중흥할 수 있었던 것은 초의 선사(1786~1866, 이하 초의)의 노력과 사대부들의 차에 대한 인식 변화에서 비롯됐다. 이런 변화의 흐름은 당시 연경(현재 북경)을 출입하며 청의 문물에 관심을 가졌던 유학자로, 대개 초의와 교유했던 사람들이 주도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들의 차에 대한 관심에 부응한 것은 초의가 만든 초의차인데, 이는 우리 차의 우수성과 자긍심을 심어 주었던 좋은 차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렇다면, 초의는 어떤 연구 과정과 발심을 통해 초의차를 완성했던 것일까. 그 과정은 이랬다. 바로 그가 출가한 운흥사는 차의 산지인 화순에 위치했기 때문에 사미승 시절 그곳에서 수행했던 스님들의 수행 규범을 익힐 수 있었다는 점이다. 아울러 차에 밝았던 대흥사의 완호 스님(1758~1826)이 겨울 한 철 운흥사 암자에 차를 마시며 수행했다는 점도 초의가 차에 눈을 뜨게 된 배경이라 생각한다. 물론 그가 본격적으로 차의 연구에 매진한 시기는 1830년경이다. 이는 1815년 김정희(1786~1856)와 해후한 후 차에 대한 관심이 증폭돼 1830년경 〈다신전〉을 편찬에서 확인된다. 물론 김정희는 초의가 차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한 인물이다. 초의가 김정희를 만난 것은 1815년으로, 이해 겨울 첫 상경한 초의는 학림암에 머물며 수행할 때다.

이 무렵 김정희는 학림암으로 해봉 선사(?~1826)를 찾아와 공각소생(空覺所生)을 담론했고, 이 자리에 초의도 동석했다. 당시 초의는 해봉 선사와 김정희의 치열한 불교 논쟁을 곁에서 보면서 그의 해박한 식견에 감동했을 것이다. 그뿐 아니라 김정희가 연경에 갔을 때 옹방강(1733~1818)의 제자 완원(1764~1849)의 쌍비관에서 대접받았던 용단승설을 맛본 후 오묘한 차의 세계를 경험했던 이야기도 나눴을 것이리라. 그러므로 초의는 그의 차에 대한 깊은 안목과 관심에 주목했을 것이 아닐까. 아무튼 이를 계기로 초의는 사라질 위기에 처했던 선종의 차 문화를 복원하려는 의지를 확고하게 했다고 할 수 있다.

초의는 〈다신전〉의 편찬 과정에서 초의가 주목한 제다법은 명대의 초청법이다. 바로 뜨거운 무쇠 솥에서 차를 덖는 방법이다. 이는 잎차를 만드는 제다법인데 초의는 대흥사에 차밭을 만들어 본격적인 제다 연구에 매진한 결과 맑고 경쾌하며 단맛과 싱그러움이 감도는 한국 차의 특성을 함의한 초의차를 완성했다. 이는 그가 제다법에 대한 해박한 이론을 두루 섭렵한 후 이를 토대로 제다의 실증 연구에 매진한 결과라 하겠다.

한편 초의는 1837년 홍현주(1793~1865)의 요청으로 〈동다송〉을 저술했다. 이 무렵 초의는 제다법을 거의 완성해 가던 시기이다. 실제 그가 초의차를 완성한 시기는 1842년경으로, 이는 김정희가 초의에게 보낸 편지에서 "다삼매(茶三昧)의 경지를 얻었다"는 극찬을 받았던 사실에서 확인된다.



무쇠솥에 차를 덖는 모습. 불을 이용하여 찻잎의 독성을 중화시키는 것이 제다의 시작이다.

김정희 영향으로 차문화 접해
'다신전' 편찬, 茶연구에 매진
초의가 주목한 제다는 '조청법'

한편 조선시대는 차 문화의 쇠락 시기로 정의한다. 이는 융성한 차 문화를 이룩했던 고려시대와 견주어 본다면,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것이다. 대개 한 나라의 문화 융성과 쇠락은 어느 시대보다 융성했고 어느 때보다 발전하지 못한 결과를 낳았다는 등 그 기준을 삼을 만한 시대가 있고, 이 시대에 비해 그런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조선시대의 차 문화는 고려시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새로운 차 문화의 유형을 만들어내지 못했던 경향을 보인다. 바로 차 문화의 질적 수준은 좋은 차를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의 유무(有無)와 음다층의 문예적인 소양과 식견, 다구의 실용성과 예술성이 함의된 다구로써의 완성도 등을 기반으로 형성된다. 그러므로 융성한 차 문화를 구가했던 고려시대에 비해 조선시대는 그 시대를 대표할 차 문화를 형성하지 못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이런 결과는 조선이 건국한 후 태종 16년(1416년 9월) 예조의 건의로 기신제에 올리는 제물 중에 차를 술로 대체하라는 조칙이 내려진다. 이는 조선시대가 차에서 술로 전환이 됐음을 나타낸 것이다. 하지만 이런 변화의 시기에도 차를 즐기는 명맥이 완전히 끊어진 것은 아니다. 다만 차의 진수를 아는 이들이 점차 적어졌고, 임진왜란과 호란을 거치는 동안 차를 즐기거나 아는 사람이 더욱 드물어졌다. 이런 상황에서도 차의 가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그 진수를 알아차릴 사람을 기다렸던 시기라 할 수 있다.

조선 후기 차의 진면목을 알아차린 사람으로 정약용과 그 자제들, 초의와 그 제자들, 김정희와 그 형제들, 그리고 제자들, 신위, 박영보, 홍현주와 그 형제들 등이 있다. 실제 초의와 교유했던 북학파 경화사족들은 초의차를 통해 차의 진수를 경험함에 따라 차를 애호하는 계층으로 부상돼 이 시기에 차 문화를 이끌었다. 이뿐 아니라 조선 후기 차의 애호층 확대는 경제력을 갖춘 중인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쳤다. 그들이 주관한 시사회(詩社會)에서 차를 즐기며 시를 짓고 그림을 감상하는 흐름을 보였는데, 이들의 대부분은 김정희와 관련이 깊은 인물이라는 특징을 보인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18세기 말 이덕리는 진도에 유배된 후 이곳에 널려 있는 차나무를 보고 이를 활용해 나라에 도움이 되고 민생을 넉넉하게 할 방법을 제안했으니, 이는 그의 저술 〈기다〉에서 드러난다.

아울러 정약용도 〈상두지〉에서 쓸모없는 초목처럼 여겼던 차를 활용해 중국에 판다면 나라와 백성에게 실익을 안겨줄 것이라 했다. 이들의 차를 활용한 부국론은 제안에 불과했지만, 이들의 제안이 실행됐다면 조선 후기 차 문화의 흐름은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해 보다 나은 문화의 유형을 만들어냈을 가능성이 높았을 것이라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장〉

나란다축제 불교고리경시대회 완전정복 ⑩

1. 다음 글을 어느 과학자의 발언내용이다. 이 과학자의 이름은?

'미래의 종교는 우주적 종교가 돼야 한다. 그동안 종교는 자연세계를 부정해 왔다. 모두 절대자가 만든 것이라고만 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의 종교는 자연세계와 영적인 세계를 똑같이 존중한다는 생각에 기반을 둬야 한다. 자연세계와 영적인 부분의 통합이야말로 진정한 통합이기 때문이다. 나는 불교야말로 이런 내 생각과 부합한다고 본다.
만약 누군가 나에게 현대의 과학적 요구에 상응하는 종교를 꼽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불교'라고 말하고 싶다.'

① 뉴턴 ② 에디슨 ③ 장영실 ④ 아인슈타인 ⑤ 토마스 헉슬리

해설 : 해당 내용은 아인슈타인이 1939년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종교와 과학이라는 주제로 열린 특강에서 한 말이다.

2. 중국이 1950년에 티베트를 점령했고, 티베트인 10만 여명이 1959년에 인도로 망명하면서부터 티베트 불교가 본격적으로 세상에 알려졌다. 당시 티베트인들을 이끌고 인도에 망명정부를 수립하였으며, 살아 있는 관세음보살로 존경받고 있는 티베트의 최고 종교·정치의 지도자는?

① 틱낫한
② 암베드카르
③ 달라이 라마
④ 슐락시바락사
⑤ 아리야라뜨네

해설 : 달라이 라마는 관세음보살의 화신으로 믿어지는 티베트 종교·정치의 최고 지도자이다.

3. [보기]를 읽고, 괄호 안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말을 고르면?

[보기] 현대의 인간에게는 다음과 같은 정신적 상태가 나타난다. 정신적 귀의처를 잃고 고독과 자아 상실증에 빠지며, 목적 없는 경쟁의식으로 불안정한 삶을 살아간다. 과학적 지식만으로는 삶의 의미를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신적 방황에 빠지기도 한다.

위와 같은 현상을 두고 현대 사회를 (　　)의 시대라고 하는 것이다.

① 자동화 ② 정보화 ③ 기계화 ④ 대량 소비 ⑤ 인간성상실

해설 : 정신적 귀의처의 부재, 고독, 자아 상실증, 무한경쟁 등은 인간성을 잃게 하는 요소들이다.

4.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 출가제자들의 수행 생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식사는 하루 한 끼 오전에만 걸식을 하였다.
② 발우만을 간직하고 무소유의 삶을 실천하였다.
③ 숲에 머물며 마을 사람들과는 전혀 접촉하지 않았다.
④ 옷은 사람들이 버린 누더기를 깨끗이 빨아 기워입었다.
⑤ 안거가 끝나면 각 지방을 돌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였다.

해설 : 걸식은 마을에 출가제자들이 직접 내려가 음식을 마을 재가자들에게 받아오는 것이다. 출가수행자는 삼의일발(세 벌의 옷과 하나의 발우) 및 진기약과 같은 몇 가지 상비품의 소유가 인정되었다. 최소한의 기준으로 해도 발우만 가지고 다니면 나형외도(벌거벗고 다니는 자이나교도들)이다.

5. 불교 발생 이전의 인도 사회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기원전 6세기경 상업이 발달하였다.
② 기원전 1500년경 아리안족의 도래로 인도대륙은 철기시대로 접어들었다.
③ 아리안족들은 사제(司祭)를 중심으로 한 가부장적 농경사회를 형성하였다.
④ 상공업의 발달로 바라문 계급의 권위가 상실되고 중앙집권적 왕권이 점차 강화되었다.
⑤ 아리안족과 원주민인 드라비다족은 서로 화합하면서 당시의 사성 계급제도를 타파하였다.

해설 : 불교가 발생할 무렵 점차 사성 계급제도가 공고화되었다.

정답 : 1. ④ 2. ③ 3. ② 4. ③ 5. ②

제공 : (재)은정불교문화진흥원 / 감수 : 서정원 박사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얼과혼이담긴
우리민족의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루자죽염	125g	45,000원
가루자죽염	230g	82,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50,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90,000원
휴대용 알갱이자죽염	20g	9,000원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20,000원
	250g	10,000원

※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길381-4 www.msjy.co.kr

체질 개선과 건강 회복을 위한 합리적 조건
당신의 날씬한 건강이 시작되는 곳
'초록원웰빙'
since 1984
프리미엄 효소 제품과 다이어트 제품을 만나보세요
02-578-1708
010-7384-1708
강남점 (도곡동 467-24)
김영숙 대표



NAVER 초록원웰빙 검색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만나요

장보배의 사찰국수기행 스님이 웃는다 ❺ 지견 스님의 김치진물국수



▶한줄 요약
김치진물국수는 밀가루 분이 국물에 잘 퍼지도록 헹구지 않고 그냥 끓여내야 국물이 한결 걸쭉해지고 국수 면에 담긴 염분 덕분에 별다른 양념을 하지 않아도 간이 맞는다. 신김치 쫑쫑 썰어 넣고 마무리로 구운 김 조금 부숴 넣으면 맛이 몇 배 더 풍성해진다.

동장군 물리는 뜨끈한 신김치 진국 '美味'

춘삼월이 다 되었지만 동장군은 끝내 힘을 짜내어 눈보라를 불렀다. 곧 봄인가, 할 즈음이면 기가 막히게 또다시 추워지곤 하는 우리네 겨울. 그러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라면 저마다 긴긴 겨울을 이기는 방법 한두 가지 정도는 가슴에 담고 있는 법이다. 2월의 끝자락에 만난 지견 스님도 찬바람이 불면 불수록 힘을 발하는 비장의 무기가 하나 있다. 스님의 오랜 유년의 기억에서부터 살아 있는 추억의 맛. 그리고 한국인이라면 좋아하지 않고는 못 배길 얼큰한 소울푸드, 겨울의 '김치진물국수'다.



지견 스님은 김치진물국수를 "어지간한 라면보다 끓이기 쉽다"고 소개했다.

밀가루 분 퍼지도록 끓여내야
국물 한결 걸쭉하고 간 맞아
신김치 쫑쫑 썰어넣으면 완성



김치진물국수는 칼칼하고 뜨끈한 그 맛에 유독 추운 날, 또 감기 기운으로 으슬으슬할 때면 먼저 찾게 된다는 겨울의 국수다.

추울수록 좋은 국수

"추울 때는 김치진물국수를 먹어야지요. 어려서부터 절에서 살았으니 저도 국수를 참 많이 먹었어요. 이 국수는 겨울에 먹으면 정말 좋아요. 끓이는 방법도 너무 쉽고요. 김칫국 끓이다가 그냥 국수 뚝뚝 잘라 넣고 끓이면 되는 걸, 뭐. 하하하."

지견 스님(월명사 주지)의 시원한 웃음소리와 함께 이야기 타래가 풀어져 나온다. 청주시 외곽에 자리한 자그마한 사찰 월명사. 그 도량이 한눈에 펼쳐지는 산사 카페의 커다란 창문 너머로 연신 눈보라가 내리던 날이었다.

김치말이 국수, 백김치 국수, 동치미 국수…. 한국인에게 김치 국수라는 것은 수많은 김치 종류만큼이나 흔하지만, '김치진물국수'는 다소 낯선 이름. 하지만 말 그대로 김치의 '진국'이 우러난 국수라는 뜻이니 어려울 것 없다. 끓이는 법도 그만큼 간단하다.

"절집은 국물 낼 때 다른 것 없어요. 마른 표고버섯 넣고 끓이다가, 잘 익은 신김치 먹기 좋게 썰어 넣어서 팔팔 끓이면 끝. 그러면 김치가 익으면서 맛이 우러나서 별다른 간도 필요 없어요. 정말 간단하죠?"

어지간한 라면보다 끓이기 쉬운 김치진물국수는 밀가루 분이 국물에 잘 퍼지도록 헹구지 않고 그냥 끓여내야 한다. 그래야 국물이 한결 걸쭉해져 빨리 식지 않고, 국수 면에 담긴 염분 덕분에 별다른 양념을 하지 않아도 간이 맞는다고. 팔팔 끓인 채수에 잘 익은 신김치를 쫑쫑 썰어 넣고, 국수 한 줌을 반으로 뚝 잘라 넣으면 완성이다. 다 끓인 국수에 마무리로 구운 김만 조금 부숴 넣으면 시원한 김칫국에 구수한 김의 궁합이 좋아 별다른 재료 없어도 맛이 몇 배 더 풍성해진다.

칼칼하고 뜨끈한 그 맛에 유독 추운 날, 또 감기 기운으로 으슬으슬할 때면 먼저 찾게 되는 겨울의 국수. 찬바람이 불 때 한 솥 끓여내어 온 절집 식구가 맛있고, 배부르게 먹었던 추억의 맛이다.

"옛날에는 라면도 귀하니까 국수 3인분 하면 그 속에 라면을 하나 슬쩍 넣어서 끓였어요. 양은 늘리고 라면 맛도 내려고. 그런데 그게 또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신기하게 국수와 라면이 어우러지면 또 새로운 맛이 나거든요. 진짜 별미라니까(웃음)!"

말괄량이 소녀

"오래전 TV에서 해주던 '말광량이 루시'라는 만화가 있었어요. 어릴 적 제 별명이 루시였죠. 온종일 뛰어놀다가 흙투성이가 되면 돌아가신 우리 노스님이 아이고, 하시면서 옷을 갈아 입히고 빨래를 해주셨던 기억이 나요. 옛날에는 겨울 빨래를 하면 너무 추워서 손이 쩍쩍 굳어서 붙었어. 그러니 정말 추운 겨울이 되면 방에 커다란 고무통을 몇 개 넣는 거예요. 그리고 한쪽에선 빨래판에 옷을 빨고, 또 옆에 있는 통에서 헹구고. 요즘 어린 친구들이 보면 정말 신기할 거예요(웃음)."

아주 오랜 옛일 같기도, 또 바로 어제의 일 같기도 한 그 시간 속에는 온 동네를 뛰어다니며 골목대장 노릇을 하고, 뭐든 야무지게 해내던 어린 날의 지견 스님이 있다. 7살 무렵 큰스님의 손을 잡고 처음 절집에 온 날부터 제 몫을 해내던 그 아이를 은사스님은 오래오래 이야기하셨다.

"하루는 스님들이 밭에 나가 일을 하시는데 손님이 오셨대요. 그분이 배가 고프니 밥을 좀 달라고 했는데, 애가 혼자 밥하고 찌개를 끓여서 손님께 내왔다고. 8살짜리가 뚝배기에 감자 넣고 뭘 보글보글 끓여서 밥상을 내오던 모습이 지금도 너무 기억에 남는다 하세요."

무섭기가 하늘 같았어도 묵묵히 어린 지견 스님의 마음을 헤아리던 은사스님. 그리고 겨울바람을 가르며 신나게 뛰놀고 온 말괄량이를 안아주던 노스님의 커다란 품. 유난히 씩씩했던 절집 아이는 그날들의 따뜻한 기억을 양분 삼아 어른이 되고, 이제는 또 한 사람의 수행자가 되어 매일 새길을 헤쳐 나간다.

새로운 출발

어릴 적부터 경전을 외우는 것도, 생각도, 일솜씨도 뭐든 빨랐던 덕에 주변에선 이른 출가를 권했지만. 쉬이 결정한 것은 아니었다.

"절에서 자랐다고 다 출가를 하는 건 아니에요. 절에서 함께 자란 또래 친구들도 다른 삶을 살고자 했으니까요.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이산혜연선사 발원문을 봤는데,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아이로서 출가하여'라는 대목을 보는 순간, 제 삶의 이유를 깨달은 것 같았어요. 아, 이것은 내 얘기구나, 나는 출가를 해야 한다 하고요."

막연히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하는 일의 차이는 동서남북의 갈래 만큼이나 분명하다. 때로 그 모호한 경계에서 머물거나, 헤매기도 하지만 결국 그 미세한 차이를 가장 먼저 알아채는 것은 운명의 당사자다. 글에도 생명이 있어 수백 년, 수천 년을 살아 그 존재를 찾아내는 이들과 인연을 맺는 법. 그날의 한 줄 글귀는 지견 스님에게 자신의 지난 삶과 앞으로의 존재 이유를 깨닫게 해 준 셈이다. 그리고 그날 이후부터 뒤돌아보지 않고 열심히 달려온 삶이었다.

유달리 오감이 예민하여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고, 코로 냄새를 맡고, 입으로 맛보는 것이 남달랐다는 스님. 음식에 소금을 먼저 넣었는지 설탕을 먼저 넣었는지조차 단박에 구분하는 기술(?)은 출가 후, 진짜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바로 사찰음식이다.

"서른 살이 됐을 때 도반스님에게 사찰음식 강의를 해보라고 권유를 받았어요. 처음에는 은사스님께서 반대하셔서 접었지요. 그런데 몇 년 후에 또 다른 분이 제안해 주더라고요. 그때 이게 내 운명인가 싶어 어린 시절부터 제가 먹고 자란 레시피를 하나하나 기록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지 벌써 20년이 넘었네요."

해야 하는 일의 힘

"그냥 열심히 했어요. 사찰음식뿐만 아니라 절 운영에 도움이 되고, 사람들과 나눌 수 있겠다 싶으면 뭐든 도전했습니다. 그래서 따게 된 자격증들이 나중에 다 도움이 되더라고요."

요가 자격증을 취득해서 임산부와 노인, 어린이들을 위한 수업을 하고 명상과 꽃꽂이, 심지어 종이접기와 한식 자격증까지. 혹여 쓰임이 있다면 무엇이든 에둘러 돌아가지 않고 부딪혔다.

"어릴 적부터 절에 살았으니 마늘을 다져 본 적이 있어야죠(웃음). 한식 자격증을 딸 때는 맨날 눈 비비고 울면서 파, 마늘 다졌던 기억이 나요. 과연 이걸 내가 쓸 일이 있을까, 싶었는데 참 신기하게도 꼭 필요한 때가 오더라고요."

절집의 대소사를 진두지휘하면서 연중 사찰음식 교육을 진행하고, 그간 꾸준히 이어 온 나눔 활동을 체계화하기 위한 협동조합 신설, 일 년에 두 번씩 개최하는 대규모 사찰음식 시식회, 상품개발과 판로 개척까지. 지견 스님의 하루는 그야말로 24시간이 모자라다.

"몇 년 전부터 4개년 계획을 세워 차곡차곡 절집의 기반을 마련했어요. 그 4년 동안 콩나물 하나도 제대로 못 사 먹었던 것 같아. 그런데 참 신기한 게 불사하는 동안에는 사과를 하나 팔아도 금방 다 팔렸어요. 그런데 불사가 끝나니 그만큼은 안 되더라고요(웃음). 부처님 힘이 참 신기하다, 이것이 해야 하는 일의 힘이구나 했지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은 어서 실천하라. 이런 이치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은 어떤 세상에서나 안락을 얻는다(소부경전)' 스님의 하루는 오랜 경전 속 한 구절을 떠오르게 한다. 먼 항해를 거쳐 신대륙을 찾은 만화 속 루시가 그런 것처럼, 스님의 하루는 매일 도전의 연속이다. 그리고 씩씩한 주인공이 삶을 개척하는 모든 모험이 그러하듯, 그 여정은 반드시 해피엔딩을 향해 가는 것이다. 그날을 향해 오늘도 지견 스님의 모험은 현재진행형이다.

〈작가〉

지견 스님의 김치진물국수 만들기

재료 건표고버섯 4~5개, 다시마(선택), 신김치 1/3포기, 시판 국수, 김 1장.

만드는 법
1. 다시마와 말린 표고버섯 4~5개를 푹 끓여준다.
2. 신김치 1/3포기를 한입 크기로 잘라 1에 넣고, 김칫국물을 적당히 부어준다.
3. 시판 국수 2~3인분을 반으로 잘라 넣고 면이 익을 때까지 끓인다.
4. 국수가 익으면 그릇에 담은 후 구운 김을 부숴서 뿌려주면 완성!

종 단 공 고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제77회 임시중앙종회 개최

재단법인 대한불교일붕선교종 중앙종회는 2024년 3월 7일 일붕선교종 총본산 서울 종로구 일붕선원에서 제77회 임시중앙종회를 개최하므로 이를 공고합니다.

불기 2568년(2024) 3월 6일

제12대 일붕선교종 중앙종회의장 도정 스님

사)여래불교조계종

종도모집 안내

사단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은 시대가 요구하는 올바른 불교 모습을 정립하고자 공익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을 창종하고 활발한 활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불법홍포에 앞장설 전국 종도 스님을 모집하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불기 2568년(2024) 3월 6일

여래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덕평 스님

30 창간 30주년 1994~2024
현대불교신문사

'종단 공고 알림' MOU 제안

현대불교신문사는 창간 30주년을 맞아 귀 종단과 2024년 '종단 공고 알림' 업무협약을 통해 종단 활동을 홍보하는 데 함께하고자 합니다.
종단의 이취임, 종도 모집, 종단 행사 공고 등 각종 공고를 많은 곳에 전하여 종단을 알리는 데 일조하고자 합니다.



대행 스님

일상생활에서 끊임없이 게으르지 않게 정진하라

지금 젊은 분들도 그렇거니와 애들서부터 어른까지 다 알아야 할 인생관, 인생이 어떻게 해서 자기한테 주어졌고 어떻게 조화가 돼서 돌아가는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화원의 꽃이 저렇게 한데 합쳐져서 조화가 이루어졌듯이, 또는 산의 고목이나 벌레 먹은 나무들, 짧고 긴 나무들, 풀 등도 각기 모습이 다 다른 것들이 같이 모여 있기에 조화를 이룬다는 것, 산골마다 물도 좋고 돌도 있고, 그 여러 모습들이 조화된 아름다움으로 우리들 눈에 비추어진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우리들의 삶에 대한 것도 역시 그와 같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모둠이로 생각해서 물 위에 산이 가고 산 위에 물이 간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 지혜 있는 데 마음이 있고 마음 있는 데 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곧바로 자기한테 있다는 얘깁니다. 지혜 따로 있고 마음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랬을 때 지혜는 물로 비유했고 마음 내는 이 자체는 법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모습 모습이 다른 여러 종류들이 성황을 이루고 있는 산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살아나가는 모습들이 다르고 이름들이 다르고 또는 병든 사람 건강한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키가 작은 사람 큰 사람, 모두 다 같이 사는 것처럼 산에도 그렇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와 같이 들이나 산이나 물이 함께 조화를 이루어서 돌아간다는 것을 알고 우리 한번 그것을 타진해 봅시다. 물이라는 것은 지혜로 비유하니 우리가 시각적으로나 촉각적으로나 또는 감각적으로나 청각적으로나 온갖 지각이 한데 합쳐진 것을 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귀로 듣는 것을 받아들이고, 또는 눈으로 보는 것을 받아들이고, 또 코로 냄새 맡는 것을 받아들이고, 혀로 맛을 아는 것을 받아들이고, 또는 부닥치는 것을 받아들여서 그 모두를 지혜롭게 돌린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귀로 들어서 화가 불끈 나는 것도 있지만 아주 감미롭고 친근하고, 어떤 땐 웃음이 날 소리도 들을 수 있고, 어떤 때는 상을 찌푸리는 소리도 들을 수 있고 이랬을 때에 그 듣는 순간에 마음이 달라진다는 얘깁니다. 달라지는 이 마음 자체가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물로 비유한 것입니다. 그리고 듣는 것은 여러 가지로 듣기 때문에 산으로도 비유한 겁니다.

듣는 것만 듣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도 역시 아름다웁게 생각이 들 때가 있고, 아주 속상할 때가 있고, 여러 가지가지 아니겠습니까? 냄새를 맡아서 구린내가 나는 것도 있고 향기로운 냄새도 있는 것입니다. 또 맛을 봐서 아주 맛이 없는 것을 느끼고 맛이 있는 것을 느낍니다. 또는 우리가 손으로 쥐어서 촉감이 좋은 것이 있고 아주 거친 게 있습니다. 그런 걸 알게 하는 그 자기의 모든, 한데 합쳐진 지혜라고 할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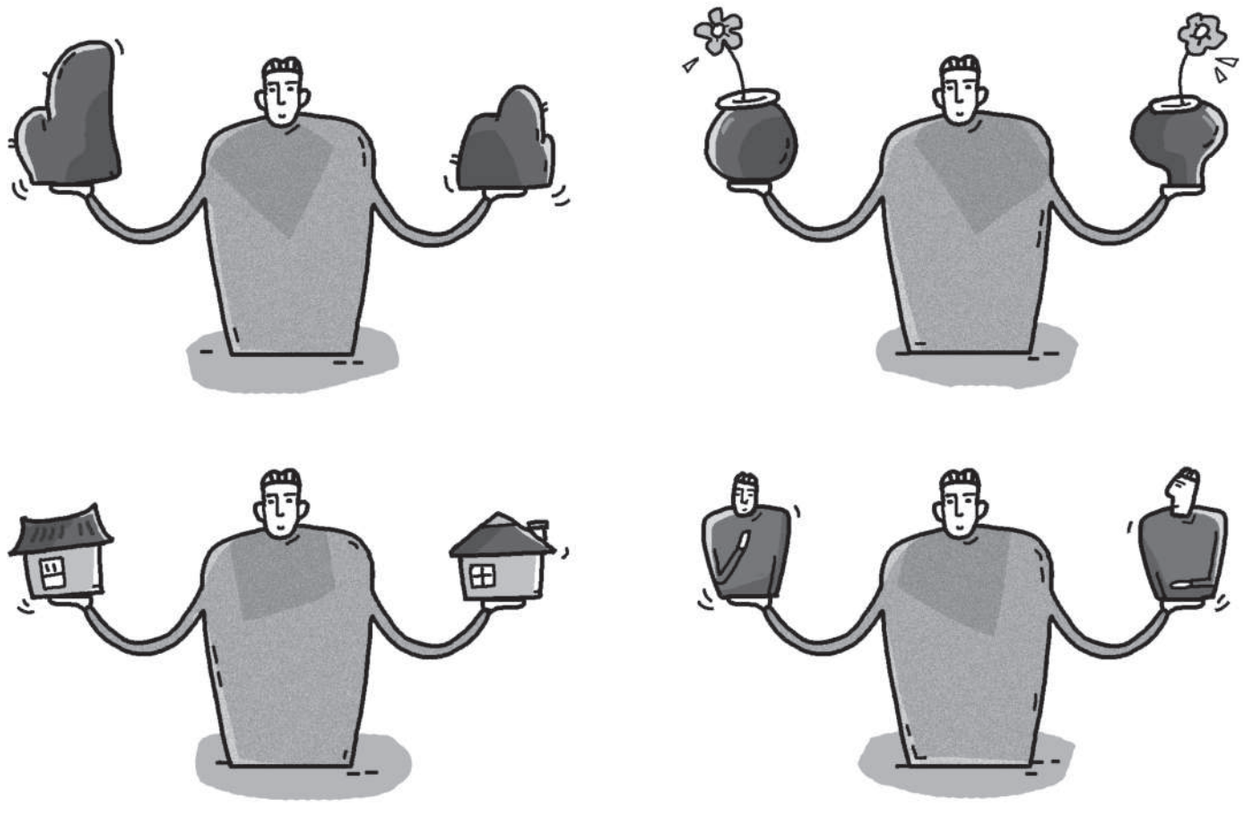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그러니까 청각이 뚜렷하고 시각적으로나 감각적으로나 모든 게 융합돼서 돌아가는 것을 발현하고 서로 상응하게 하는 그 자체의 지혜가 넓어야 된다는 얘기죠. 바다와 같아야 된다. 좁아서는 허공에 바늘구멍도 안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귀로 듣고 혀로 맛을 보고 코로 냄새를 맡고 하는 것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중생이다 부처다 하는 것은, 중생들은 보고 듣고 생각 일어나는 것 모두가 자기가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중생이요, 부처님의 뜻은 자기가 고정돼 있지 않으니까 마음조차도 배꼽이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처음 단전을 할 때 배꼽 밑에다 중심을 두라고 하지만 그 배꼽까지도 송두리째 빠졌다 이 소립니다. 송두리째 빠지니까 나라고 내세울 게 없는 것이 공한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고정된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귀로 듣는 것도 고정됨이 없고, 느끼는 것도 고정된 게 하나도 없죠. 보는 것도 고정되게 보는 게 하나도 없고 말하는 것도 고정되게 말하는 것이 하나도 없고, 행하는 것도 그렇고, 내 몸도 어떠한 부분을 내 몸이라고 할 수 없게끔 모든 면에서 고정되어 있지 않죠.

그렇다면 그렇게 고정되지 않게 돌아가는, 조화로이 돌아가는 것을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왜 '한 사람'이라고 했을까? '한'이라는 것은 이 내 몸 안에 5억이라는 생명이 들어서 한데 합쳐져서 조화를 이루고 자기 소임을 맡아가지고 돌아가니까 '한'이라고 한 겁니다. 그렇게 그 생명체가, 한데 합쳐졌기 때문에 손을 움죽거릴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고, 모든 것에 상응할 수가 있고 받아들일 수가 있고 줄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하다라는 얘기죠?

모든 것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그 자체가 바로 한 화병에 여러 가지 꽃을 담아서 조화가 되게 하듯이, 산에도 모든 게 조화가 돼서 있듯이 그렇게 조화가 돼서 연방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하면 그 사람의 소임 맡은 지금 대표인, 즉 한 사람의 마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5억의 생명을 대표하는, 한 사람의 마음이 5억을 대표하기 때문에 지혜롭게 돌아가는 겁니다. 대표하는 그 마음이 생각하는 대로 우리 이 몸 안에서 돌아가는 것도 거기에 응해서 돌아가는 것이요, 또 그 마음에 응해서, 바깥의 상대를 접하는 것도 내 마음에 의해서 접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도 있죠. 뜻을 이루어서 참자기를 자기가 발견한 자는 계법을 지키지 않아도, 그 계법을 범하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계법을 지키지 않는 반면에 결국은 범하지를 않는다. 앉아서 다리를 틀고 좌선을 하지 않아도 일상생활에 끊임없이 게으르지 않게 정진하는 것이 참선이니라.' 한 것입니다.

내가 꼭 한마디 하고 싶은 것은 깨친다 안 깨친다를 떠나서 우리 젊은이들이 앞으로 더 나아가야 할 길이 있는 것이, 여자고 남자고 젊고 늙고 간에 불문에 부치고 자기 앉은 방석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인간이라고도 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렇기에 중생이라고 말한 것인데, 우리가 이 한국이라는 조막댕이만 한 나라에 태어났으니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자기 몸을 보호할 줄 아는 사람이 자기 가정을 보호하고, 자기 가정을 보호하는 사람이 사회도 보호할 줄 알고, 또는 국가적으로도 그렇거니와 세계적으로도 우주적으로도 할 수 있는 자신이 있어야 내가 앉은 자리를, 내가 내 발등에 불 떨어지는 거를 끌 수 있다라는 얘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반면에 여러분이 '아, 부처님 법은 이렇게 어렵구나. 이걸 깨달아야 한다니…. 아

☞ 20면으로 계속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삶은 苦고가 아니다(개정판)

세상 모든 생명들에게 바치는 대행스님의 생활속 불법이야기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스님 법어집 '삶은 苦가 아니다' 오디오북 출시

대행스님의 법어집인 '삶은 고가 아니다'를 오디오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전문 성우의 목소리가 아니라 대행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공부 하는
이들이 수개월간의 정성과 노력을 담아 완성한 이 오디오북을 통해
불교를 더욱 편안한 마음으로 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오디오북 소개 |

제1장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 내가 누구인지 모른대서야 00:03:13
• 누구나 부처 될 자격이 있으니 00:33:47
• 통하는 길은 오직 마음뿐 00:51:17
• 마음의 안테나를 세워라 1:26:20
제2장 누구에게나 똑같이 부여된 능력
• 생명의 에너지와 주인공 01:37:30
• 자신의 뿌리를 굳게 믿고 01:54:07
제3장 다 놓고 얻는 도리
• 놓고 가는 생활선 02:11:58
• 고정관념부터 깨라 03:03:44
• 삶은 고가 아니다 03:36:59
제4장 서로 돕고 사는 세계
• 공생 공용의 이치 04:23:15
• 생활 속의 마음 도리 05:00:41
제5장 가르침의 바른 이해
• 마음 밖에는 부처가 없다 05:43:54
• 불법의 바른 이해 06:05:10
• 실참 수행 06:49:56
제6장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07:23:00

정가 ~~14,000~~원 → 특판가 12,600원 / 신국판 / 314쪽 (배송비 별도)

『삶은 고苦가 아니다』는 1996년 9월에 처음 발행되어 초판 22쇄라는 기록을 남기고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대행스님 법어집 입니다.
2015년의 3판 개정판에 이어 2022년 4월에 개정 제4판을 내놓으며 읽기에 좀 더 편하도록 글자 크기를 키우고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여 페이지 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한사람 한 사람이 지금 부처의 행을 하고 있는것이다

☞ 19면에서 계속

이구, 우린 깨닫지 못해서 중생이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중생 부처가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선의 생각을 해도 그것은 집착이니 인을 짓는 것이니라' 한 겁니다. 아무리 내가 보시를 하고, 이런 거는 좋은 일이고 이런 거는 공부를 잘했고…, 이러더라도 착을 둔다면 그것도 선인(善因)을 짓는 거죠, 집착을 했으니까.

그래서 "악에 집착을 해도 아니 되고 선에 집착을 해도 아니 되느니라. 일상생활에서 요만한 거 하나라도 착을 둬서는 안 되느니라. 내 마음이 고정되게 돌아가지 않고 공했으니 내가 하는 모든 일도 전부 공했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도 착을 두지 말고 그냥 무심, 무심으로 해라." 했던 겁니다.

그렇다고 "마음 내놔 봐라." 한다면 어디 눈에 마음이 붙어 있다고 하겠습니까, 귀에 마음이 붙어 있다고 하겠습니까? 코에 붙어 있다고 할 수도 없고 배꼽에 붙어 있다고 할 수도 없는 겁니다. 너무도 광대하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이 어디 고정되게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부처라는 이름이 있지 만약에 공하지 않았다면 부처라는 이름도 없을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팔십종호 할 때 '종호', '종'도 '호'니라 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이 어렵다, 어렵지 않다는 생각을 떠나서 시간과 공간이 초월된 상태로 우리는 지금 그냥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옛 산도 없거니와 옛 사람도 없고 옛 물도 없다는 뜻이 바로 이런 데 속합니다. '어렵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내가 중생이다 부처다' 이런 생각도 하지 마시고 '내가 이렇게 하면 중생이고 저렇게 하면 부처인데 내 부처를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 이렇게 어렵게도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부처의 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잘못되고 잘된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좋고 이렇게 하면 언짢은 거를 너무도 잘 알기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회 상식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벌써 태어났으면 나쁘고 좋은 걸 안단 말입니다. 우리가 의려를 하지만 그렇더라도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알 만큼은 알 수 있는 거니까 그걸 묵인하고 그냥 부처님의 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하는데 마음먹기에 달린 이 한생각을, 시대로 봐서도 우리가 단연코 중생이 아니라 부처의 행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마음은 체가 없기 때문에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크게 생각하려면 크게 생각하고 작게 생각하려면 작게 생각하고, 내가 우주 바깥을 벗어나려면 벗어나고 안에 들어 있으려면 들어 있고, 혹은 굴속에 들어가서 있으려면 있고, 바늘구멍 속에라도 들어가려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마음입니다. 마음은 체가 없기 때문에 크고 작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참자기의 작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생활 속의 어떠한 작은 일이라도 그렇고, 나라를 비유할 때도 그렇고, 사회를 비유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각중에 어떠한 걸 봤다, '이, 참 위태하구나!' 이럴 때, 즉 '이럭하면 안 돼!' 하는 그 일념을 낼 수도 있죠.

한 사람의 한 생각, '한 그릇'이라는 뜻도 되고 '한마음'이라는 뜻도 됩니다. 5억이라는 생명의 능력도 우리가 생활을 해 나가는 데 부담이 없이 해나가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딛고 다니게 하고 또 먹고 싶으면 먹게 하고 가고 싶으면 가게 하는 능력을 갖게 했습니다. 생각을 하게 했고요. 그러니까 그 능력을 발휘해서, 우리의 몸뚱이는 하나가 아니라 5억의 생명들이 한데 합쳐서 대표인으로 됐는데, 대표인끼리 또 한데 모이면 그 '한'이 너무도 광대무변해서 어디고 안 닿는 데가 없이, 아니 담을 게 없이, 아니 돌아가는 게 없이, 아니 덮는 게 없이, 아니 비치는 게 없이 광대무변하게 상응할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부처님 법을 빨리 알 수가 있을까, 지속적으로. 모든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대로 한생각 낼 때에…, 한생각은 생각 내기 이전의 근본인데 그 근본으로 하여금 생각을 낼 때, 크고 작은 것은 그대로 유의 법으로써 그냥 무심으로 해 가야 되겠지만 내 생각 자체가 그대로 법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어저께 어느 분이 이런 말을 합디다. "어느 분이 이렇게 말합디다." 하는 것은 나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럽니다. 어저께 텔레비전에서 씨름을 하는데 말입니다, 한 사람은 덩치가 크고 한 사람은 덩치가 작았습니다. 그거를 보는 순간 '약한 사람이 덩치 큰 사람을 한번 이겨 보는 것도 좋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누구한테 얘기를 하거나 '내가 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닙니다. 순간 '야! 저건 그렇게 하면 재미있는 게임이야.' 하는 생각이 문득 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덩치가 작은 사람이 팔이 저리고 아파서 못 쓰면 도저히 덩치 큰 사람을 넘길 수가 없기 때문에 마음의 에너지가, 덩치가 작은 사람의 마음과 이 마음이 둘이 아니기 때문에 그 팔은 힘이 솟아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 큰 몸뚱이를 넘기는 게임을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이왕지사 이겼던 거 조그마한 사람이 이겨라.' 하하하, 이렇게 했던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들이 한마음 한뜻으로써 내 가정을 지키고, 내 몸을 지키고, 사회를 지키고, 국가를 지키는 데에 이러한 한생각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싸움이 없으면서도 실은 어떠한 위기에서 싸움을 해 나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랬을 때에 생활이나 몸에 대해서나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모든 것을 해 나가려면 마음이 넓어야 한다 이겁니다. 이 한국만 생각하지 마시고 널리 세계를 보고, 우주적으로도 지금 앉은 방석을 온전하게 조화를 이루게 해야 합니다. 화병에 꽃을 꽂아서 향기를 맡고 아름다움을 즐기고 생활이 잘될 수 있고 웃을 수 있고 조화가 잘될 수 있듯이 말입니다.

부처님 법에는 이 생명 저 생명이, 이 나라 저 나라가 둘이 아니지마는 둘이 아니면서도 너무나 철두철명하게 너와 내가 있는 것입니다. 여자 남자가 없으면서도 여자 남자가 뚜렷하게 있어 여자 할 일은 여자가 하고 남자 할 일은 남자가 하듯이 그렇게 뚜렷한 것입니다. 둘이 아니면서도 모습 모습은 다 각각이나 조화를 이루듯이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마음부터 알아야 그야말로 한생각을 내도 지혜롭게 넓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마음부터 알아야 하는 것은 '내 마음은 체가 없어서 내놓을 것이 없이 공했다. 그러니까 공한 내 참나를 그냥 무조건 믿고, 무슨 일을 하는 것도 내가 옳다고 생각했을 때는 무조건 한다. 또 사회적으로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될 텐데, 우리 국민이 이거는 안 되겠다 할 때는 무조건 국민을 위해서, 대인을 위해서 밀고 나간다. 내가 회사원이라 할지라도 그렇고 공장을 한다, 무슨 장사를 한다 이런 경우도 다 그런 점으로 인해서 융성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한생각에.

한 사람만이라도 생각을 잘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회사는 아주 융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한 생각을 잘한다면 이 나라는 바로 물질과학으로부터 정신과학으로, 마음으로써 만법을 마음대로 자유자재할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명심하시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깨친다 안 깨친다 이거를 어떻게 말로 표현을 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자꾸 스스로 좌절해요. 여러분은 자기를 못 믿어요. 여러분은 자꾸 자기가 생각하는 거를 '중생이 생각하는 건데 이거 안 되지.'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것뿐만 아니라 큰 것도, 타인의 일이라도 말입니다. 공장을 처음 냈는데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할 때 그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하며, 한생각을 탁 내 줄 때 그 공장은 그대로 유지돼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생각을 내 주는 것도 그렇고 한생각을 하는 것도 그렇고, 한생각의 그 향기로운 냄새가 온 우주를 다 덮고 우주를 싸고 아니 닿는 데 없이 닿을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마음의 능력입니다. 마음은 여러 가지로 낼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받아들일 수 있으니 바로 이것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이치입니다. 몸뚱이도 한 사람 몸뚱이지만 한 사람의 몸뚱이라 해도 이름이 다 각각 있지 않습니까? 눈이다 코다 귀다 손이다 발이다 간이다 하는 이름이 여간 많지 않습니까? 이 많은 이름들이 한데 합쳐진 게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이 하는 노릇이 부처가 하는 노릇이다 이겁니다.

그렇게 백지장 하나 사이인데도 그게 그렇게 안 돌아가니까 힘이 든다 이겁니다. 마음의 주인공은 바로 가슴에서 느끼는 점입니다, 느끼는 점! 이 가슴에 와닿아 가지고 느끼는 점입니다. 느껴서 그대로 생각나면 그냥 그대로 법입니다. 그러니 보는 것도 아주 세밀하게 볼 수가 있는데도 그거를 여러분이 느끼면서도 못 믿는 것입니다. '야, 이건 내 마음으로 이렇게 느껴지는데 모두 여러 사람들의 말을 들어 보니까 이건 안 된다는데….' 이러거든요. 왜? 남의 말을 그렇게 잘 듣고 잘 들으면서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자기 주인공의 뜻은 왜 못 믿습니까? 자기 스스로 믿고 스스로 행하고 스스로 자재한다면 그대로 법신 아닙니까?

그래서 법신은 '자(子)'로 치고 마음 내기 이전은 '부(父)'로 쳤습니다. 마음을 내서 용(用)을 할 때는 '부'는 '자'로 하나가 돼 버리고,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때는 한데 조화가 돼서 가만히 있으니까 부처거든. 그러니 여러분이 생각할 때 좁게 생각하지 마시고 넓게 생각을 하십시오. 부처님께서 '누구 형상에다가 절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뜻은 그걸 알고 하면 절을 해도 자기요, 모르고 하게 되면 타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빨리 깨쳐야겠다 해도 그것이 착이 되는 거니까 빨리 깨쳐야겠다 하는 그 말 자체가 아닌, 그대로 자기를 믿으라는 얘깁니다.

(다음 호에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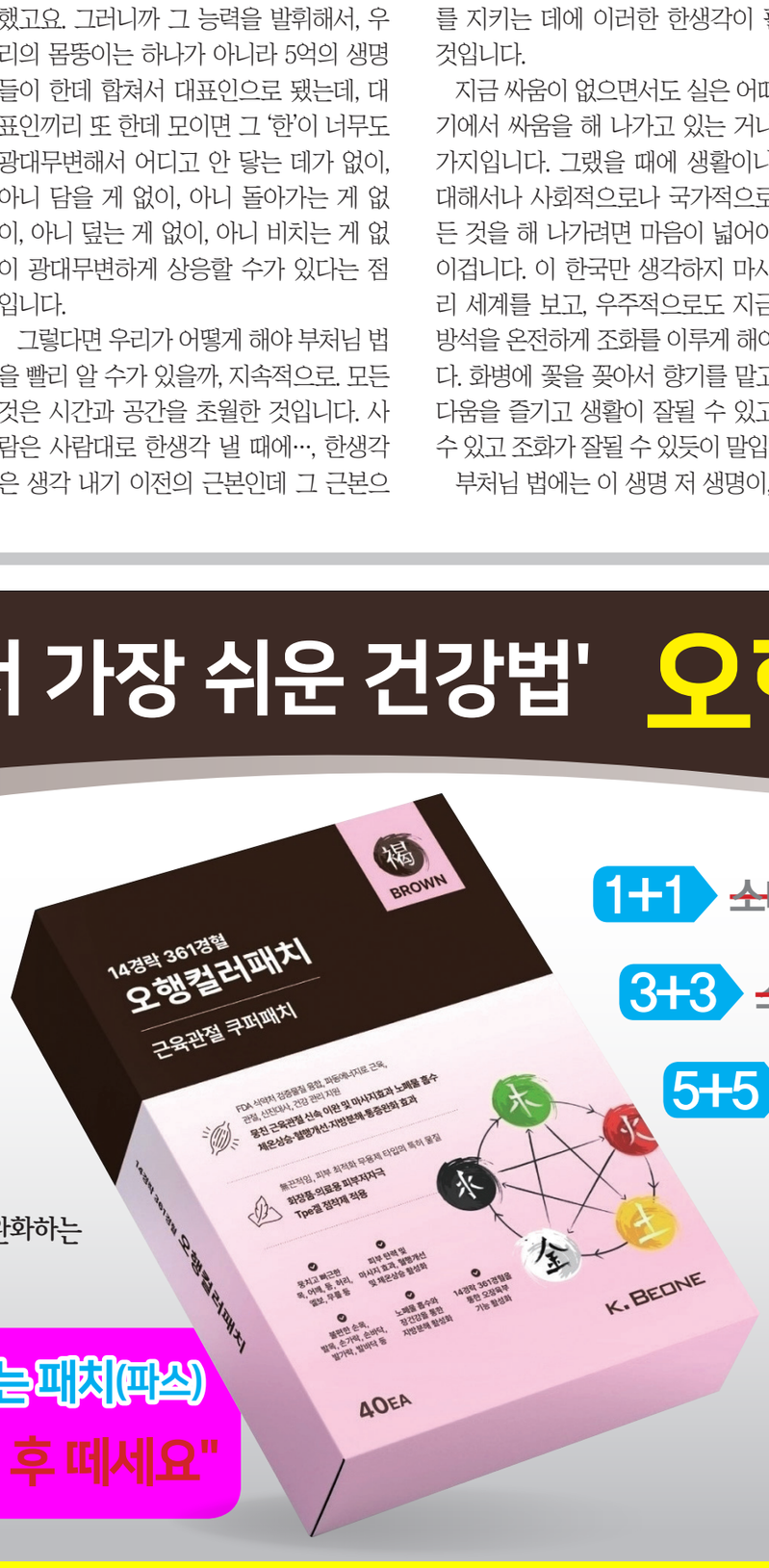
> 한생각의 그 향기로운 냄새가 온 우주를 다 덮고
> 아니 닿는 데 없이 닿을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 그게 바로 마음의 능력입니다.

※위 법문은 대행 선사 법문집 《허공을 걷는 길》 중 1985년 3월 17일 정기법회 법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건강법' 오행컬러패치 특판 할인가

국민대 스포츠건강재활 전공
심영세원 교수가 개발한 오행컬러패치!!
PDA식약처 검증된
피부 친화 Tpe겔 접착제 사용!!

천연광물의 원적외선 파동에너지 기술과
한의학 14경락 361경혈 기반
색상학, 수리학, 명리학을 접목하여
경직된 세포를 마사지하고 통증을 예방 · 완화하는
기술을 패치(파스) 한 장에 담았습니다.



자면서 저절로 건강해지는 패치(파스)
"취침 전 붙이고, 기상 후 떼세요"

1+1 소비자가 ₩99,000 → 60%할인 ₩39,600 총 80매
3+3 소비자가 ₩297,000 → 63%할인 ₩109,890 총 240매
5+5 소비자가 ₩495,000 → 68%할인 ₩158,400 총 400매

QR코드를 카메라로 찍어보세요
사용법 강연 영상이 나옵니다
허리통증 무릎통증
어깨/목통증 손목/발목통증

NAVER 마하몰 YouTube 심영세원

주문은 마하몰! 1688-9099 / (02)732-1520 인터넷 주문은 www.mahamall.co.kr /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하성미 기자의
心 心 talk talk

⑪ 붓다가 보여준 존엄한 죽음 (3)

집착 벗어나게 하는 '죽음 사유'

내담자 승희(45·가명) 씨는 쏟아 부은 상담의 노력이 무색할 정도로 변화가 없었다. 분노 조절이 어려워 아이에게 던진 컵이 깨지면서 발바닥을 다쳐 절뚝거리며 상담실을 찾았다. "다쳤으니 병원에 가봐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에 "내가 왜 이럴까요?"라는 말만 반복하며 어쩔 줄을 몰라 했다. 상담 경험이 많지 않을 때 만난 내담자였기에 너무 난감하고 어렵게만 느껴져 도망가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녀는 무엇이든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어야 했고 자신의 말만 옳다고 믿었다. 가족들은 가식적인 평화라도 지키려면 그녀의 말을 따르고 순종해야 했다. 폭군 같은 그녀에게 어렵사리 조언을 건네면 논박하듯 자신의 주장을 다시 길게 설명하며 초보 상담사인 나를 설득하려 했다. 자신의 주장을 굽히면 마치 자신이 죽을 것처럼 대응하며 숨을 강하게 내쉬고 얼굴은 벌겋게 변했다.

마지막 회기가 됐을 때 해결방법을 몰라 발을 동동거리는 심정으로 승희 씨에게 "무엇이 그리 두려운가요?"라고 물었다. 나도 모르게 튀어나온 맥락 없는 질문에 스스로 당황하고 있을 때 승희 씨는 잠시 침묵하고선 답했다.

"죽는 게 두려워요."

죽음불안은 내면 깊은 곳에서 자리하고 있다가 가면을 쓰고 나타난다. 죽음을 느끼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불편하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억압하며 자신의 마음을 가린다. 그렇게 외면했던 죽음불안은 또 다른 욕구로 변신해 사람들의 마음을 부추긴다. 그 결과로 사회집단의 인정, 명성, 영원한 사랑, 외모, 인기, 부유함 등을 쫓게 만든다. '자신이 특별한 존재가 되어야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불안은 욕구로 변신해 사람들을 끌고 다닌다. 이것이 애착이 되고 갈애가 된다. 그래서 나는 '죽음불안이 집착의 뿌리'라고 단언한다.

"죽음에 대해 정확히 무엇이 무서운가요?"

잠시 질문의 답에 머물러보라. 무엇이 떠오르는가? 외로움, 어둠, 잊혀짐…. 질문을 받고 나면 사람들은 대부분 죽음을 피하고 있는 이유를 발견하게 된다. 그 이유에 대해 묻고 또 꼬리를 물듯 질문을 이어가면 아이러니하게도 현재 자신의 삶 속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을 발견한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자신의 삶을 조종하는 큰 무의식을 마주하게 되는 순간이다.

위 질문은 실존주의 심리치료의 대가 어빈 얄롬(Irvin D. Yalom)이 내담자들에게 자주했던 질문이다. 얄롬은 죽음에 대해 질문하며 상담했고 내담자들을 치료했다. 그는 죽음에 대한 직면은 삶을 연결하는 열쇠임을 알았다.

그리고 얄롬은 치료 현장에서 내담자에게 소설 〈그렌델(Grendel)〉을 소개하며 베오울프(Beowulf)가 현자를 만나 지혜를 얻은 가르침을 소개하곤 했다.

가면 쓰고 변신해 나타나는 죽음불안
죽음은 스승, '이 순간'을 살도록 도와

"모든 것은 사라진다. 예외는 없다."

간결한 이 진리는 불자라면 너무나 익숙하다. 붓다의 가르침이기 때문이다. 부처님이 열반에 들기 전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선정의 세계가 묘사된다. 죽음 직전에 부처님은 초선정(初禪定)에 들어갔고 이선정(二禪定), 삼선정(三禪定), 비상비비상처(非想非非想處)에서 멸진정(滅盡定)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비상비비상처로 내려오는 과정이 묘사되어 있다. 그리고 사선정(四禪定)에서 열반에 이른다. 사선정은 평온하며 마음 깊이 안정된 높은 알아차림의 경지라고 설명되어 있다. 그 어느 누구가 붓다처럼 평온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까? 일체의 두려움도 고통도 없는 붓다의 죽음은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아름다운 순간이다.

붓다는 제자들에게 죽음에 대해 깊이 사유할 것을 당부했다. 〈증일아함경〉 제40 칠일품(七日品)에서 붓다는 "너희들은 죽음에 대한 생각을 닦고 죽음에 대해 깊이 사유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어떤 수행승은 붓다에게 "저는 항상 죽음에 대해 생각을 닦고 깊이 사유하고 수행하고 있다"고 답한다. 붓다가 그 수행승에게 방법을 묻자 그 수행승은 "'이레 동안만 살 수 있다면 칠각의를 사유하며 여래의 법에서 많은 이익을 얻고, 죽은 뒤에도 여한이 없을 것이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다"고 답했다.

붓다는 그에게 방일하다고 말한다. 다른 수행자들의 답에 대해서도 붓다는 방일하다며 그것은 죽음에 대한 사유가 아니라고 말한다. 수행자들은 엿새, 닷새, 이틀, 하루, 한 끼 식사 시간 등 짧은 시간들을 제시하며 이 기간 동안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며 열심히 수행할 것이라는 답을 한다. 붓다는 반복해서 내일 죽을 것처럼 열심히 정진하겠다는 그들의 답에 방일하다며 죽음에 대한 사유가 아니라고 했다.

붓다는 "수행승들이여, 만일 드나드는 호흡 속에서 죽음에 대해 사유한다면 곧 태어남, 늙음, 병듦, 죽음, 근심, 걱정, 괴로움, 번민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호흡 속에서 죽음에 대해 사유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호흡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의미한다. 지금 호흡을 하는 이 순간, 잠시라도 죽음이 곁에 있음을 사유하고 죽는다는 것을 받아들여보라. 지금 이 순간을 살지 못하고 마음이 집착으로 괴롭고 어두워질 때 자신의 호흡에 죽음을 초대해 사유해보라. 죽음은 스승이 되어 지금 이 순간을 살게 하고 애착을 끊게 하는 자유의 선물이 될 것이다.

*사례는 내담자 보호를 위해 취지를 손상하지 않는 범위에서 재정리했습니다.



홍재화의
걷기삼매경

⑤ 걸어서 좋은 의학적 이유

걷기, 기초 대사활동에 탁월…좋은 기운은 덤

내가 나의 인생을 살아가고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은 내가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을 때이다. 즉, 최소한의 건강을 유지할 때까지이다.

걷기는 체중감량은 물론 갖가지 생활습관병의 예방, 치료에도 좋다. 그래서 많은 의사들은 만병의 치료제로 걷기를 권한다. 이러한 걷기의 신체적 건강 증진 효과는 한방이나 양방 구분이 없다. 하지만 그 근본적인 이유는 다르다. 걸어서 좋은 한방효과, 양방효과 그리고 대체의학인 스본스도 효과를 알아보자.

(서)양의학은 병 자체를 중요시한다. 환자가 가지고 있는 증상과 의심되는 원인들의 연관성(association)을 찾고, 이들 중 인과관계(causal effect)가 증명이 된 원인을 찾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치료 방책을 찾아내려고 한다. 반면에 한의학은 종합 시스템으로서 인간 자체에 집중한다. 인간은 기와 마음과 정신이 조화를 이루었을 때 건강하다고 본다.

병에 대한 접근법이 다르기 때문에 치료법도 당연히 다르다. 서양의학은 주로 병의 원인(세균, 바이러스, 세포)을 찾아내 이를 정상화하는 항생제, 항바이러스제, 해당 부위에 대한 직접적 수술 등의 방법을 쓴다. 반면 한의학은 병의 원인이 되는 독성, 나쁜 기운 등을 치료하기도 하지만, 종합 시스템으로서의 환자의 정신과 육체의 조화와 균형의 유지에 관심을 기울인다. 한의학은 인간의 몸이 가진 자유치유력에 관한 다각적 치료법을 개발하는 데 집중한다.

전반적으로 보면 양의학은 병에 대한 직접적 공격을 통해 치료한다면, 한의학은 몸에 해가 되는 일은 가급적 피하면서 치료하려는 방어적인 입장을 가졌다. 그리고 새롭게 부상하는 스본스도(KSS, Kims Sbon Sdo)는 몸의 전체적인 균형과 무의식 신경의 활성화를 중요시한다. 서울 출생의 독일 거주 김세연 교수가 발견한 대체의학이다.

그는 KSNS(Kim schutz Nerren system, 한국 사람 Kim이 발견한 우리 몸을 보호하는 무의식 신경구조)를 발견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치료법인 스본스도(KSS)를 창안하였다. '스본'은 병을 일으키게 하는 원인을 찾아가는 과정이며 '스도'는 몸이 스스로 치료할 수 있게 도와주는 과정이다.

스도포인트를 지압 또는 간단한 도구를 사용하여 우리 몸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무의식



사진출처=Unsplash

체중감량 · 생활습관병 등 예방
땅의 기운 흡수해 인체 튼튼히
소화 · 배설 · 호흡 등 체내 신선

신경을 일깨우고 근육을 강화시켜 무너진 밸런스를 잡아서 몸이 스스로 치료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몸의 균형의 가장 기본은 발가락이며, 그중에서도 발가락에 펴져 있는 신경의 활성화이다.

걸어서 좋은 한방효과

양방의 관점에서는 세포가 우리 몸의 기본이라면, 한방에서는 기(氣)와 혈(血)이 중요하다. 한방에서 기는 동물의 생명을 이어가는 활동력으로 에너지를 말한다. 혈은 신체의 물질적 바탕으로 영양분을 온몸으로 분배한다. 따라서 건강하기 위해서는 기와 혈의 순환이 잘 되도록 해야 하는데, 수많은 방법 중에 가장 으뜸으로 치는 기혈의 순환 촉진 방법은 바로 걷기이다. 내가 좋아하는 허준 영감께서는 그의 명저 〈동의보감〉에서 '약으로 고치는 것보다 음식으로 고치는 것이 낫고, 음식으로 고치는 것보다 걸어서 고치는 것이 낫다'고 하셨다.

한의학에 의하면 다리는 땅의 기운을 흡수하여 인체의 구조를 튼튼히 한다. 인간을 식물로 빗대어 보면 다리는 땅의 기운을 흡수하는 뿌리이다. 걷기는 그 뿌리를 강하게 하는 운동이다. 그리고 걷기 운동의 가장 큰 효과는 기혈의 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우리 몸 세포조직에 양질의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밖으로 배출시켜 준다. 특히 걷기는 땅의 기운을 받아들이는 행위이다. 좋은 곳을 많이 걷는다는 것은 나의 기운을 강하게 하는 것이다.

걸어서 좋은 양방효과

한방이 기 효과와 혈액 순환과 같이 보이지 않는 시스템을 통해서 걷기의 건강 효과를 중시한다면, 양방은 주로 신진대사 활성화, 관절과 근육과 같은 보이는 시스템에 대한 효과를 강조한다. 이는 병을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치료 방법도 달라서이다. 그리고 한방과 양방의 공통점은 걷기를 건강의 최우선적 기본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그것은 걷기가 인간 신체 활동의 가장 기초가 되기 때문일 것이다.

신진대사는 새것을 받아들이고 옛것을 버린다는 의미로, 소화·배설·호흡·혈액 흐름 등으로 체내를 항상 신선하게 해야 한다. 걷기는 이런 모든 흐름이 원활하게 하는 가장 기초적인 대사활동이다.

요즘 걷기에 관한 양방의 관심을 가장 끄는 분야는 역시 족부의학이다. 발은 총 26개의 뼈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는 우리 몸의 전체 뼈의 4분의 1을 차지한다. 그리고 19개의 근육과 30개의 관절로 이루어져 온몸을 지탱하는 부분이다. 많은 질병이 생겨나기 쉽다. 특히 현대의 신발은 발의 구조 변형을 일으켰다. 이에 대한 치료를 전문으로 하면서, 적절한 걷기에 대한 제안을 한다.

〈비바미(Viva!me) 대표〉

"신은 듯, 안 신은 듯 맨발같은 신발" 어싱 접지 슈즈 2024 신상출시

지구와 연결되는
EARTHing(접지) 효과
발볼 넓은 신발, **맨발** 같은 신발
KSNS 적용 신발

어싱 슈즈는
발 볼이 좁거나 보통 넓이인 분들이
세련되고 날렵한 신발을
신고 싶을 때를 위하여
제작된 신발로 둘레길, 황토길,
캠핑용, 런닝용 신발로도 좋습니다.



베이지

어싱슈즈
특판가 (무료배송)
65,000원
※ 사은품 : 어싱 양말



베이지 블랙

어싱 트레킹화
특판가 65,000원 (무료배송)
※ 사은품 : 어싱 양말
※ 소재 : 도전특수고무 밑창 + 네오프렌(잠수복 재질)



NAVER 마하몰

주문은 마하몰! 1688-9099 / (02)732-1520 인터넷 주문은 www.mahamall.co.kr /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전법 일기

"스님은 MBTI 뭐예요?" 이방인서 멘토 되려면

처음 성신여대 대학생 법회를 맡고 솔직히 많이 긴장했다. 출가하고 20여 년간 노보살님들만 만났지 대학생을 상대해 본 일이 없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막막했다. '여학생들은 예민하지 않을까…' 한아름 걱정을 안고 캠퍼스로 향했다.

나름대로 준비한 명상과 교리 설명, 마음 나눔 등 한 시간여의 법회를 마무리하며 법우들한테 소감을 물어봤다. 다행히 긍정적으로 대답해준 덕분에 안도하며 편안한 마음으로 뒤풀이 식사자리로 향했다. 그때부터가 고난의 시작이었다.

"스님, 뭐 좋아하세요?" "좋아하는 색깔은요?"라는 물음으로 시작한 사석은 '스님의 상'으로 무장한 나에게 대학생 포교에 대한 무력감을 주기 시작했다.

"스님 주말엔 주로 뭐 하세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굳이 생각해본 적 없던 삶이었고, 주말이 딱히 구분되지 않는 승려생활이라 대답해주기가 난감했다. 그 중 무난한 질문인 것 같으면서도 나를 더 좌절하게 만든 게 있었다.

"스님은 MBTI가 어떻게 되세요?"

"글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요즘 대학생들은 첫 만남에서 편안하게 나누는 대화 주제인데 나만 '이방인'이었다. 불교를 전하겠다는 마음에 '스님상'으로 무장한 채 명상과 교리라는 딱딱한 내용만 준비해 온 것이 후회됐다. 그래놓고 학생들의 멘토가 되겠다니 얼토당토않은 포부인 셈이었다.

지금은 MBTI를 물으면 서슴없이 "ENFJ"라고 말한다. 대학생법우들은 듣자마자 "아~" 하고 바로 공감한다. 흔히 '선도자형'이라고 하는데, 공감능력 '끝판왕'에 뭔가를 자꾸 바꾸려 하고 항상 사람을 탐구하는 사람이란다. 그래서 지금 대학생 지도법사도 하는가보다.

요즘은 인간관계에 대한 내용이나 공부 잘하는 법, 자기관리에 관한 동영상 강의도 자주 본다. 그러다보니 정해진 법회보다 뒤풀이 시간이 학생들에게도 훨씬 재밌고 유익해졌다. 식사 후 차 한 잔 할 때는 더 깊은 고민상담도 한다. 자연스레 남자친구 소개도 하고, 친구와 있었던 일들, 심지어 친구의 친구 고민까지 얘깃거리가 되어 즐거운 '맛수다(맛있는 수다)'로 시간 가는 줄 모른다.

눈높이가 같아야 마음을 열고 나누기 수월하다. 너무 강한 표현처럼 느낄지 모르겠지만 요즘 대학생들은 세상이 전쟁터 같단다. 세상 편한 것 같아보여도 불안한 마음은 더 커졌다. 잘해야 한다는 강박관념도 있다. 산사에 있을 땐 몰랐는데 도심포교를 하다 보니 자연스레 공감대가 생겼다. 비슷한 고민을 갖고 있다보니 말에 힘이 생겼다.

'하루 5분 명상, 혹은 108배, 감사일기 쓰기.' 너무 익숙해서 간과하기 쉬운 이 수행이 바쁜 대학생들에겐 닻과 같은 역할을 한다. 바다 위에 떠다니는 것 같지만 닻을 내린 배는 파도가 쳐도 안전하다. 치열하게 삶을 고민했던 인생의 선배로서 밥 한 번, 차 한 잔과 함께하는 '수다'로 오늘도 전법하러 간다.



성신여대 불교동아리 지도법사
시현 스님



김형중의 깨달음의 노래 ③ 어느 비구니스님의 오도송

道는 가까운 곳에 있다

봄은 매화나무 위에 피어있네
진종일 봄을 찾아 산으로 들로(盡日尋春不見春)
짚신이 닳도록 헤맸어도 봄은 없네(芒鞋踏遍隴頭雲)
지쳐서 집에 돌아오는데 처마 끝에 핀 매화 향기 미소 지으니(歸來笑拈梅花嗅)
봄은 이미 나뭇가지 위에 활짝 피었네(春在枝頭已十分)

출전: 〈학림옥로(鶴林玉露)〉 권6

중국 송나라 때 나대경(羅大經)이 지은 〈학림옥로〉에 수록된 이름을 모르는 비구니스님의 칠언절구 오도송이다. 불도(佛道)를 찾아가는 구도의 과정을 봄을 찾아가는 고행과 지쳐서 돌아오는 길에 매화꽃을 발견하고 마침내 봄을 찾는 것에 비유하여 읊은 전형적인 선시이다. '봄을 찾아가는(尋春)' 과정이 '소'를 찾아가는 '십우도'의 심우(尋牛), 기우귀가(騎牛歸家), 반본환원의 과정과 흡사하다.

꿈에서 파랑새를 찾아 헤매던 아이들이 꿈에서 깨고 보니 자기들이 기르던 비둘기가 파랑새였다는 것을 깨닫는 다마테 틀링크의 동화 '파랑새'가 연상되는 시이다. 일본 하이쿠(17자의 정형 短詩)의 성인 바쇼(芭蕉, 1644~1694)도 "향기를 따라 매화 찾다 보았네 곳간 처마 끝"이라고 읊은 시가 있는데, 이 오도송을 보고 감동하여 용사(用事: 남의 시의 시구, 내용을 인용하여 시를 짓는 기법)한 것으로 추측된다.

전반부 1·2구는 봄을 찾는 '심춘(尋春)'의 구도수행을 묘사한 것이고, 후반부 3·4구는 집에 돌아와 처마 끝에 활짝 피어 '미소 짓는 매화꽃(笑梅)'에서 봄을 찾는다. '봄'은 '행복'이고, '깨달음'이고, '마음'을 상징하는 다의(多義)적인 뜻을 내포하고 있다.

1구의 '심춘(尋春)', '불견춘(不見春)'의 구도에서 4구의 '춘재지두(春在枝頭)'에 이르는 '봄(春)'이 반복되는 시어가 울림의 리듬감이 주어 강력한 깨달음을 연상시킨다. 이 세상이 그대로 진실된 세계인 사사무애(事事無碍)의 법계(法界)라는 것과 꽃피고 새가 우는 이 자리가 궁극의 본래자리인 반본환원(返本還源)의 경지인 것을 읊고 있다. 구도 수행과 견성 오도(見性 悟道)가 완벽하게 잘 구성돼 한 폭의 동양화를 그린 섬세하고 선적인 풍취가 느껴지는 최고의 선시이다.

봄 찾기 위해 산과 들로 다녔으나
집 처마 끝에 핀 매화꽃서 봄 찾아
구도과정 그려내…십우도와 유사

인생은 추운 겨울과 같은 고해(苦海)이다. 봄이 오면 온갖 꽃들이 만발하여 아름다운 화엄세상을 만든다. 그 중 '매화'는 추운 겨울의 역경을 이겨내고 제일 먼저 꽃을 피워서 봄소식을 알리는 전령사로써 역시 '봄'을 상징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군자 중에서도 강인함과 지조가 으뜸인 매화를 사랑한다. 퇴계 선생은 도산서원에 매화를 심어놓고 매화꽃이 필 때면 밤마다 달빛 아래서 매화 향기에 취해 시를 읊었다.

선가에서 깨달음의 내용은 사람이 사는 삶의 문제와 세상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주체인 마음에 대한 반야지혜이다. 인간의 일상을 떠나면 도가 아니다. 맹자는 "도는 가까운 곳에 있다"고 하였다. 이 오도송의 주제는 비구니스님이 그토록 찾던 봄을 자기 집 처마 끝에 활짝 핀 매화꽃에서 찾는 것이다. 자기 집 보배 창고 속에 있는 본래마음인 자성(불성)을 찾는 것을 견성(見性)이라고 하며, 그 마음으로 살면 중생이 부처가 된다.

이 글을 쓰면서 필자도 매화 화분을 바라보며 봄을 기다리는 마음을 담아 '봄'의 시를 지어 본다.

봄이 오네 처마 끝에 매화가 피고 있네
봄바람이 꿈을 담아 오고 있네
창문을 열고 보라 온 세상이 온통 화엄정토인 것을
눈을 뜨고 보라 곳곳마다 부처가 용출(湧出)하는 것을

〈문화평론가〉

기자칼럼

3원 통합, 권력 집중이 아닌 이유

조계종의 1994년 종단개혁은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한국불교 자주의 길을 연 분수령으로 평가된다. 종헌종법 개정을 통해 행정과 입법, 사법권을 나눠 '삼권 분립'을 이루고, 교육원과 포교원을 별원으로 구성해 혼란한 시기에도 교육과 포교라는 종단적 사명이 끊이지 않도록 했기 때문이다.

2024년의 조계종은 이런 교육원과 포교원의 역할을 총무원으로 일원화하는 조직개편 작업을 추진 중이다. 시대변화에 원활하게 대응하기 위해 30년간 이어온 3원 체제를 총무원 1원 체제로 통합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교육원과 포교원이 총무원으로 흡수될 경우 총무원장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더해 1994년 종단개혁의 결실이 과거로 후퇴한다는 과격한 견해도 있다. 하지만 이는 종단개혁의 핵심을 비껴간 단편적인 해석이다.

종단개혁 이전 총무원장의 주요 권력 가운데 하나는 전국교구 본·말사 주지 임면권이었다. 이를 이용해 중앙종회 장악이 가능했고, 종회는 총무원 하부기관으로 전락했다. 또 주지 임면권을 총무원장이 독단적으로 행사하면서 금품수수 의혹도 늘 뒤따라 다녔다. 결국 1994년 개혁회의는 종단개혁으로 권력을 분산하면서 총무원장 독점체제에 대대적인 수술을 한 셈이다. 본사주지의 중앙종회의원 겸직 금지, 본·말사 주지 임기 보장 등도 총무원장의 권력 분산과 교구중심제를 위한 조치였다. 총무원장 권력 분산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교육원과 포교원의 별원화는 사실상 별개 사안이다.

1990년대 한 해 4~500명에 달하던 출가자는 이제 100명도 채 되지 않는다. 불교인구 감소세도 여전하다. 교육원과 포교원이 별원으로 있다고 해서 해결 가능한 문제가 아니다. 승적·법계 업무와 승려교육·연수 업무가 총무원과 교육원에 분산돼 업무효율이 떨어진다는 등의 실무적인 문제는 차치하고, 별원의 기획·추진력이 부족하다면 총무원과 한 몸으로 현안을 풀어가는 것도 방법이다.



윤호섭 편집국 차장

현밀 스님의 뭉밀이 佛스타툰



일일시호일

"나날이 굳는 간 고통보다 더 큰
사진으로 만난 7살 딸 향한 그리움"

네팔 이주민 키란씨, 간 수치 일반인 40배 · 경화
수술받았으나…병원 빚 1400만원에 앞날 막막



농협 301-0189-0356-5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070.4707.1080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

보살 정신 있는 정치인을 선택하라

현불논단



이성운 교수
동방문화대학원대학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이 이제 4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에 나설 후보자 선출을 위한 소식이 연일 뉴스를 장식한다. 국민의 선택을 받으려는 이들은 대개 정치적 신념에 따라 정치 신념 공동체인 정당에 가입하여 그곳의 대표로 선거에 나서거나 특정 소속 없이 선거에 나가 국민의 지지를 받고 정치를 한다.

정당에서는 정당의 후보자들이 해당 정당의 신념과 일치하는지, 선거에 나섰을 때 당선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등을 검증해 선거에 나설 대표를 선출하다 보니 다양한 이슈가 뉴스를 장식한다.

전문가들은 보수나 진보의 신념으로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이들이 아닌 중도층이 대개 선거의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다고 한다. 캐스팅보트가 중요하다고 들린다. 자신이 지지하는 진영의 정치 행위는 모두 옳고 상대방은 절대 악이라고 몰아가려는 경향을 보이는 이들이 양 진영에 적지 않은 현실에서 볼 때 동의하지 않을 수 없을 듯하다.

국회의원 선거에 나서는 공인의 자세와 선택에 관한 불교의 관점은 어떨까. 사회 성립이나 지도자 선출에 관한 불교의 견해는 〈악간냐 숫따〉에서 조금 확인이 된다. 경전의 내용은 대략 이렇다.

"공동 소유의 토지가 개인 소유로 되어 사유 재산이라는 관념이 발생한 다음 도둑질이 발생하자 그릇된 행위를 하지 말자고 약속하였다. 그러

불교적 복지국가 실현하는 전륜왕
경전에는 '富 분배하는 리더' 묘사
나눔·배려 체화된 후보 선출해야

나 그걸 어기는 이들이 늘어났다. 약속을 어기는 이들을 비난하고 때리는 처벌이 일어났고, 그 기준을 결정하고 도덕의 보호자로 활동할 사람을 선출하고 그들에게 약속을 어긴 이들을 징벌하게 했다. 이렇게 선출된 이는 '위대한 자'라고 불렸고, 초원의 왕이었으므로 '크샤트리아'로 불렸으며, 정의를 베풂으로써 많은 이들에게 환대받아 '라자'(즐거워하는 자, 왕을 의미)로 불렸다. 이렇게 해서 통치라는 관념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선출된 주민의 대표 '라자' 공인은 정의를 실현하도록 사회의 구성원이 선출한 자일 뿐이고, 국민이 왕(공인)에게 세금을 바치거나 내는 것은 사회 정의를 실현한 데 대한 보수할 뿐이다. 아주 이런 시기에 주장된 사회계약론이라고 할 수 있다.

불교적 복지국가를 실현하는 이상적인 왕을 전륜왕이라 하는데, 〈전륜왕사자후경〉에 의하면, 전륜왕은 정신과 물질 또는 도덕과 경제라는 양면에서 사회의 정의, 평등, 화합을 실현하는 정신적 지도자인 동시에 부(富)의 분배자라고 한다. 분배의 공정은 왕이나 공인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

선출된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해서 국가의 정책을 실행할 법안을 만들고 고친다. 그 법안에 의해 국민의 일상생활은 영향을 받는다. 국민 대표들의 선택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바람직한 사회를 이루려면 우리나 우리의 대표들에게 바람직한 삶의 길로, 불교에서는 보살의 길을 제시한다. 보살은 깨달음을 추구하며 나보다 다른 이들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다.

종교의 유무나 피차를 떠나 화려한 언어의 성찬이 아닌 견해가 다른 이들을 배려하며 서로 돕고 나누는 삶이 체화된, 보살의 정신이 있는지 하는 것이, 불자가 선거에서 국민의 대표를 선택할 때 제일의 기준이어야 하지 않을까.

민주주의 위협하는 '딥페이크'

세간과 출세간



이화행 교수
동명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40여 일 앞두고 언론의 선거보도 열기가 뜨거운 가운데, 최근 딥페이크로 제작된 소위 '윤석열 대통령 양심고백'이라는 가짜 조작 영상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되면서, 자유민주주의가 위협을 받고 있다. 국내에서 대통령 딥페이크 영상이 등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저 윤석열은 상식에서 벗어난 이념에 매달려 대한민국을 망치고 국민을 고통에 빠뜨렸다. 무능하고 부패한 윤석열 정부는 특권과 반칙, 부정과 부패를 일삼았다"는 허위 연설을 담은 딥페이크 영상은 발전한 기술의 오용이 초래할 수 있는 사회의 혼란과 위험 수위가 어느 정도로 높아졌는지를 가늠하게 해주고 있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인간 얼굴이나 음성을 합성해 실제와 비슷하게 조작된 가짜 동영상 또는 오디오를 말한다. 고도화된 기술을 이용해 현실적이고 신뢰할만한 결과물을 제작해내어 사회적 혼란을 유발하거나 허구 정보를 실제로 발생한 사실로 인식하게 만든다. 특히 AI 딥페이크는 제작이 손쉽고 가짜와 실제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 왜곡된 허위 정보를 담는다는 점, 전파의 속도가 빠르다는 점에서 선거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금지하는 기술적 조치와 강력한 처벌 등의 선제적이고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윤 대통령 가짜 딥페이크 영상 논란
선거 등에 악영향 미치 가능성 높아
美 등 방지책 마련… 우리도 대비를

선거 과정에서 딥페이크는 여러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먼저, 선거 캠페인 중에 후보자나 정치인의 가짜 동영상이나 가짜 음성이 유포되면 당사자의 신뢰성이 훼손되고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허위 정보가 선거 캠페인을 방해하고 정당한 선거 과정을 왜곡시킬 수 있다.

또한, 딥페이크는 선거 보도의 신뢰성을 직간접적으로 훼손할 수 있다. 가짜 동영상이나 오디오가 언론에 공개되면 보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며, 선거 결과에 대한 불신이 증폭될 수 있다. 더 나아가 정치적 선동이나 선거 캠페인을 목적으로 딥페이크를 악용하는 경우, 사회적 분열과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딥페이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술, 정책, 법제, 교육적인 측면이 복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먼저, 딥페이크를 검증하고 탐지하기 위한 기술적 방어 수단을 강화하여야 한다. 유럽연합(EU)은 지난해 디지털 서비스법(DSA)을 통해 AI 제작 콘텐츠에 별도 표시를 의무화하였고, 미국은 행정명령을 통해 AI 콘텐츠 식별장치를 강화하도록 한 바 있다. 미국의 IT기업들은 AI로 만든 창작물을 식별하기 위한 워터마크를 도입하였다.

선거 시기에 특히 딥페이크 영상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등 관련 법령 개정도 시급하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확대하여 대중들이 디지털 윤리의식을 키우고, 딥페이크를 식별하고 의심하는 역량을 키우도록 하여야 한다. 선거 국면에서 딥페이크의 도전과 유혹은 성큼 다가온 AI시대에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하나의 시험대가 되가 될 전망이다.

社 說

송현광장을 그대로 놔둬라

지난해 11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송현광장에 이승만기념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불교계 안팎에서는 "이승만기념관 건립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와 중앙종회 종교편향불교왜곡대응특별위원회, 태고종 중앙종회 등이 잇따라 성명을 발표해 "한국불교를 분열시키고 박해했던 이승만 대통령의 기념관 건립 추진은 한국불교에 대한 큰 모욕"이라고 성토했다. 결국 박민식 국가보훈부 전 장관이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해 "입지와 관련해 정해진 바가 없다"며 진화에 나섰고, 사태는 일단락됐다.

하지만 불과 세 달여 만에 오 시장은 서울시의회 시정질의에서 "송현녹지광장 부지에 이승만기념관 건립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깃털처럼 가벼운 게 정치인의 말이라지만, 이것은 가벼워도 너무 가벼운 것 아닌가. 무엇보다 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이라는 민간기구가 추진하는 기념관을 공공부지에 두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는 2월 28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이승만기념관 건립이 강행될 경우, 오 시장이 이끄는 서울시와 관계 단절을 포함한 강력한 대응을 해나가겠다"고 천명했다. 불교계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시민사회단체들이 기념관 건립을 반대하고 있다. 무엇보다 종로의 얼굴을 바꾼 송현광장을 오롯이 시민의 곁에 있도록 해야 한다. 누구의 소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채우는 것보다 비우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을 오 시장은 알길 바란다.

저출산 극복, 불교계도 나서자

2월 28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은 0.65명으로 1년 전보다 0.05명 줄었다. 2017년 4분기에 처음으로 1명을 밑돈 분기별 출산율은 6년 만에 0.6명대까지 하락했다.

영국 BBC는 한국의 저출산 요인으로 과도한 노동 강도, 높은 주거비와 사교육 비용, 시대착오적 여성상을 꼽았다. 실제 인터뷰를 한 시민은 "어릴 때부터 20대까지 공부하며 너무 지쳤다. 한국은 아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2월 28일 주형환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만나 내놓은 해법은 주목할 만 하다. "극심한 경쟁사회에서 자란 청년들이 불안을 느끼고 자녀 양육에 부담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고 진단한 진우 스님은 경쟁 위주의 교육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요즘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경쟁에 내몰려 순위 싸움을 해야한다. 이 상황에서 인성교육은 뒷전이 됐다"며 "인성교육을 통해 타인과의 교류와 교감, 이타심 그리고 생명존엄성과 가족의 가치를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물질적 풍요가 반드시 행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 과도한 양육비용과 교육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경쟁과 서열화된 교육시스템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특히 선명상 등을 통한 인성교육은 불교만이 할 수 있는 특화된 교육프로그램이다. 저출산 극복에 이젠 불교도 나서야 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 15일 창간
대표이사 : 혜도 스님 총괄국장 : 박재완 편집인 : 신중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04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FAX (02)737-0698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대 구 지 사 : 010-6780-9190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한국불교의 미래 BTN 불교TV
초심자부터 참선 수행자까지
모두에게 길잡이가 되어줄 신규 프로그램



마음이 쉬어가는 카페 혜민입니다
방송시간 : 매주 (월)12:00, 22:30 / (토)19:30



송담스님의 이뭣고
방송시간 : 매주 (수)19:00 / (목)08:30 / (일)2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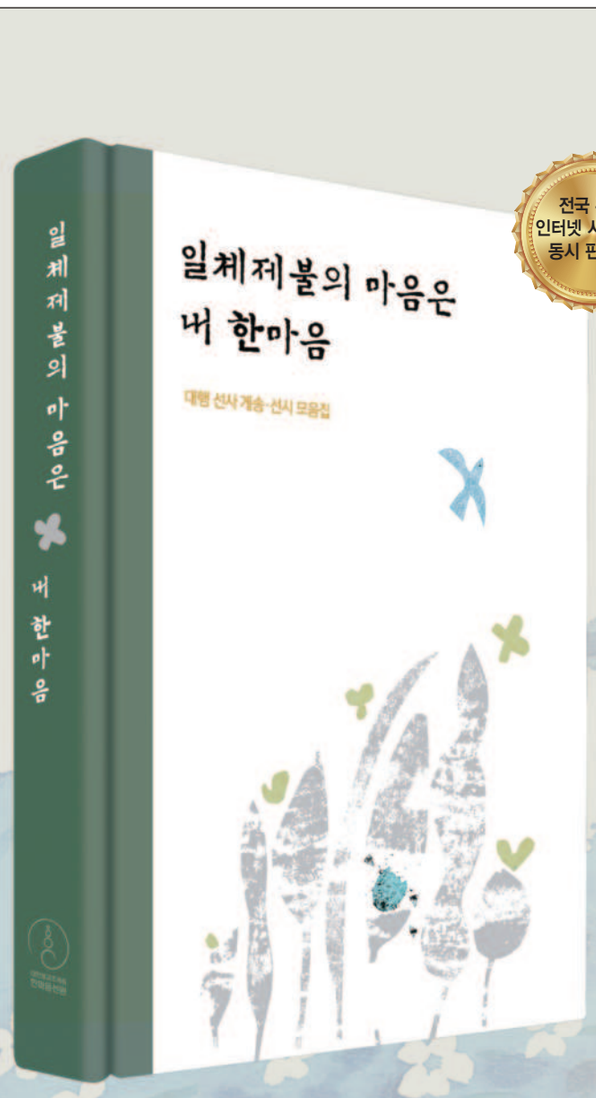


불교사용설명서
방송시간 : 매주 (금)09:30, 21:30 / (일)22:00



전설의 법문
방송시간 : 매주 (금)12:00, 23:15 / (일)13:00

BTN 채널안내 | GENIE TV 233번 Btv 295번 U+tv 275번 skylife 181번 지역 케이블 문의 : 02)3270-3300



전국 주요 인터넷 서점에서 동시 판매중!

바닷속 거북이 너울너울 춤을 추고
돌장승 노래 부르는 소리
온 천하에 울려 퍼지리!

신간

대행선사 게송 · 선시 모음집

일체제불의 마음은 내 한마음

본 책자에는 선사께서 법회 때 읊으셨던 게송, 선법가 가사로 만들어진 선시,
편지글 속의 게송과 함께 친필 원고 일부가 실려 있습니다.
가격: 20.000원 336쪽 엮은이_(재)한마음선원 출판부
현대불교신문사 02)732-1520 **무진향** 031)470-3118

대행선사 법훈록

그냥 목적이야!

개정판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르치신**

대행스님 법음의 정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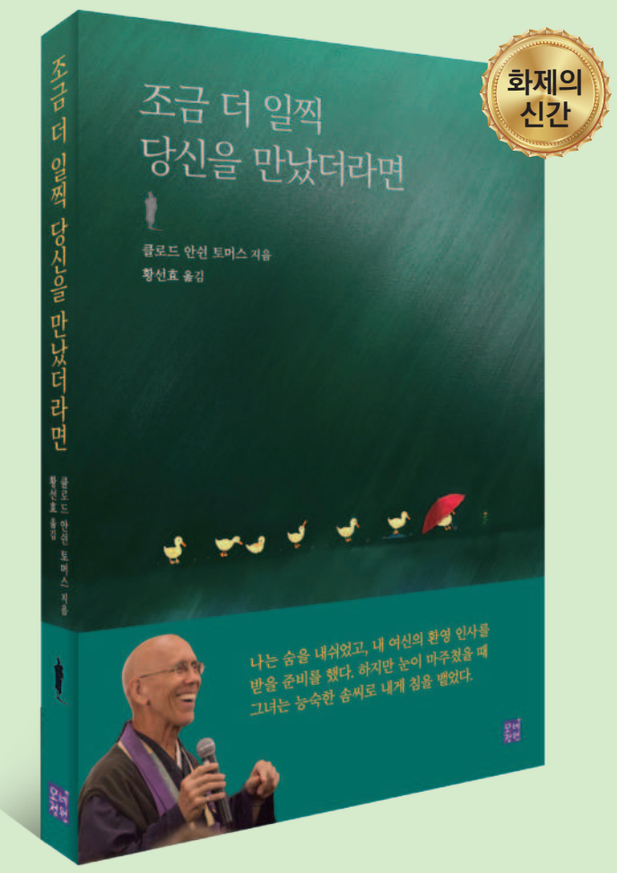
"업이 있다 없다 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에, 오늘 그걸 알아내면
과거부터 끌고 오던 그 업은 순식간에
봄이 오면 눈 녹듯이 다 사라져버리니까 말입니다.
과거가 문제가 아니라 오늘이 문제입니다
내일도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지금, 오늘이 문제입니다."

-본문 중에서-

"실생활에서 자기 마음 관觀하는 것을 일러줘서
자기 나무가 자기 뿌리를 믿고 찾을 줄만 안다면
그것은 보배를 찾아주는 것이나 같습니다."

규격 신국판 (154*200) 페이지 232쪽
출판사 (재)한마음선원 출판부 정가 15,000원

전쟁에서 사람을 죽였다고 고백하는 한 전쟁 영웅이
지옥 같은 트라우마 끝에 얻어낸 삶과 고통에 대한 실증적 깨달음의 책



화제의 신간

클로드 안쉰 토머스 지음 / 황선효 번역 / 232쪽

고통을 삶의 또 다른 기회로 만든 사람의 이야기

조금 더 일찍 당신을 만났더라면

우리는 고통을 통해서 치유를 향해 간다.

세상은 우리에게 고통은 적이라고 가르친다.
우리는 불쾌하고 실망스럽고 힘든 것은 거부하라고 끊임없이 주입받는다.
"이 모든 고통이 왜 필요한가? 행복하자! 즐기자!" 하지만 고통은 우리의 적이 아니다.
건너편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은 고통과 슬픔을 통해서다.
반대편의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진정으로 알고 느낄 수 있는 것은 고통과 슬픔을 통해서이다.

모네의정원 정가 ~~14,000~~원 ⇨ **12,600원** (배송비 별도)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지은이 **클로드 안쉰 토머스**

10대 후반의 어린 나이로 베트남 전쟁에 파병되어
항공훈장과 공군수훈십자훈장을 비롯한
수많은 훈장과 상을 받은 전쟁 영웅이다.
전쟁에 대한 심각한 트라우마로 죽음 직전까지 갔던
그는 비영리 기구인 'Zaltho Foundation'을 창립해
미국과 유럽 등 세계 각 곳에서 평화와
비폭력에 대한 강연 및 순례 활동을 하는
명상수행자로 거듭났다.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